

2020 남북통합지수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CONTENTS

1. 2020년 남북통합지수 총괄	11
2. 영역별 요약	15
3. 남북통합지수로 본 2019년 한반도: 평가와 전망	22

1장. 구조통합지수 29

1. 경제

가. 지수구성	29
나. 제도통합지수	30
다. 관계통합지수	34
라. 종합	50

2. 정치

가. 지수구성	59
나. 제도통합지수	60
다. 관계통합지수	67
라. 종합	94

3. 사회문화

가. 지수구성	97
나. 제도통합지수	98
다. 관계통합지수	106
라. 종합	125

2장. 의식통합지수 131

1. 지수구성 131

2. 영역별 지수

가. 경제	133
나. 정치	145
다. 사회문화	157

3. 종합 171

3장. 남북통합지수 : 2010~2019 175

CONTENTS (표)

〈표 2-1〉 경제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29
〈표 2-2〉 경제분야 법제도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32
〈표 2-3〉 제도통합지수 종합	33
〈표 2-4〉 교역부문 상대점수	37
〈표 2-5〉 투자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40
〈표 2-6〉 노동부문 상대점수	42
〈표 2-7〉 무역자유화 부문 상대점수	44
〈표 2-8〉 제도장치 확립부문 상대점수	46
〈표 2-9〉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48
〈표 2-10〉 2018년/2019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51
〈표 2-11〉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UN 명목소득 기준)	51
〈표 2-12〉 투자부문 상대점수 (구매력 평가소득 기준)	54
〈표 2-13〉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구매력평가 소득 기준)	56
〈표 2-14〉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구매력평가 소득기준)	57
〈표 2-15〉 정치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59
〈표 2-16〉 정치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61
〈표 2-17〉 북한 정치관련 법제화 정도	63
〈표 2-18〉 북한 정치관련 법제의 실효성 정도	64
〈표 2-19〉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	65
〈표 2-20〉 정치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66
〈표 2-21〉 실무정치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68
〈표 2-22〉 고위급 정치회담 연도별 횟수 및 점수	69
〈표 2-23〉 군사분야 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71
〈표 2-24〉 의회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72
〈표 2-25〉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관련 점수	74
〈표 2-26〉 정치분야 공동행사	74
〈표 2-27〉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동 부문 점수	76
〈표 2-28〉 대화·회담의 정례화 수준 평가 방법	77
〈표 2-29〉 대화·회담의 정례화 부문 점수	78
〈표 2-30〉 국제사회에서 외교군사적 협력 횟수 및 점수	79
〈표 2-31〉 남북한의 연도별 병력 수 및 병력감축 수준 부문 점수	80

〈표 2-32〉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배점	83
〈표 2-33〉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점수	84
〈표 2-34〉 2019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내용	86
〈표 2-35〉 상호체제 인정 정도(법 개정)	90
〈표 2-36〉 남북한의 상호체제 인정 부문 점수	91
〈표 2-37〉 2018년/2019년 정치영역 관계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93
〈표 2-38〉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94
〈표 2-39〉 사회문화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97
〈표 2-40〉 사회문화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99
〈표 2-41〉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정도	102
〈표 2-42〉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전문가 설문조사 연도별 추이	102
〈표 2-43〉 북한의 사회문화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	103
〈표 2-44〉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	104
〈표 2-45〉 사회문화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105
〈표 2-46〉 사회문화영역 관계적 통합 지표와 배점	107
〈표 2-47〉 인적왕래 변인 상대점수	108
〈표 2-48〉 공동행사 변인 상대점수	111
〈표 2-49〉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변인 상대점수	113
〈표 2-50〉 이산가족 상봉 변인 상대점수	115
〈표 2-51〉 인적 이동 자유화 변인 상대점수	117
〈표 2-52〉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지표와 배점	118
〈표 2-53〉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점수	119
〈표 2-54〉 주요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변인 상대점수	121
〈표 2-55〉 사회문화 교류협력 당국자 회담 상대점수	122
〈표 2-56〉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 종합점수	124
〈표 2-57〉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126
〈표 2-58〉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27
〈표 2-59〉 2018/2019년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129

〈표 3-1〉 의식통합지수 변인과 배점	131
〈표 3-2〉 경제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133
〈표 3-3〉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34
〈표 3-4〉 남한 주민의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평가	136
〈표 3-5〉 대북 지원의 선호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37
〈표 3-6〉 북한체제 평가와 시장경제 우호도 응답률과 상대점수	139

〈표 3-7〉 대북 지원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40
〈표 3-8〉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응답률과 상대점수	141
〈표 3-9〉 경제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143
〈표 3-10〉 정치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145
〈표 3-1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46
〈표 3-12〉 남북 정치제도의 동질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47
〈표 3-13〉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49
〈표 3-14〉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150
〈표 3-15〉 상대방 인지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52
〈표 3-16〉 정치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154
〈표 3-17〉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157
〈표 3-18〉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 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158
〈표 3-19〉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160
〈표 3-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응답률과 상대점수	162
〈표 3-21〉 남북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응답률과 상대점수	163
〈표 3-22〉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165
〈표 3-23〉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 종합	168
〈표 3-24〉 남북의식통합지수 연도별 변화	172
<hr/>	
〈표 4-1〉 2010~2019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76
〈표 4-2〉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시계열적 추이와 단계 변화	181

CONTENTS (그림)

〈그림 1-1〉 영역별 남북통합지수 추이	11
〈그림 1-2〉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5
〈그림 1-3〉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8
〈그림 1-4〉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20
〈그림 1-5〉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20

〈그림 2-1〉 개성공단 고용 북한노동자와 생산액 추이	41
〈그림 2-2〉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53
〈그림 2-3〉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96
〈그림 2-4〉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30

〈그림 3-1〉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 (2008~2019)	167
〈그림 3-2〉 의식통합지수 2010~2019년 변화 추이	174

〈그림 4-1〉 2010~2019년 남북통합지수 추이	175
〈그림 4-2〉 최근 3년간의 제도, 관계, 의식, 종합지수 비교	180
〈그림 4-3〉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82
〈그림 4-4〉 영역별 제도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82
〈그림 4-5〉 영역별 관계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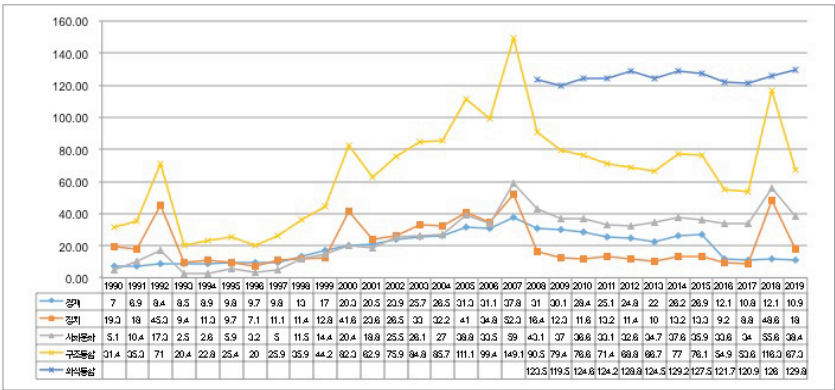
1

1. 2020년 남북통합지수 총괄
2. 영역별 요약
3. 남북통합지수로 본 2019년 한반도:
평가와 전망

IPUS

1. 2020년 남북통합지수 총괄

〈그림 1-1〉 영역별 남북통합지수 추이



■ 『2020 남북통합지수』에서는 2019년 남북한 간 경제, 정치, 문화 영역의 통합 현황을 파악하여 구조통합지수와 의식통합지수를 산출하였다. 2019년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남북 간에도 협상이 교착되면서 전반적인 남북통합지수가 2018년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었다.

- 경제영역 통합지수는 2월 이후 남북,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가 거의 중단된 가운데 남북 간 교역과 대북투자 총액이 전체적으로 하락하였고, 무역자유화 부문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 정치영역 통합지수는 2018년 대비 하락하였다. 구조통합지수 중 제도 통합 부문은 소폭 상승했으나, 관계통합 부문이 악화된 정도가 컸으며, 의식통합지수도 다소 하락하였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미 정상 회동이 이루어졌음에도 합의의 이행이 진전되지 못하고, 추가 협상도 이루어지지 못해 긴장이 지속된 상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회문화영역 통합지수는 관계통합지수의 악화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는 2018년 대비 이산가족 상봉, 국제대회 공동개최, 단일팀 구성,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이 전년 대비 -10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2019년 당국자회담이 전혀 개최되지 않음에 따른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신설’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영역별 통합단계는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긴장 강화로 전년과 비교하여 하락(정치, 사회문화)되거나 유지(경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영역 통합단계는 전년과 동일한 1단계(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은 단계, 혹은 물적 자원의 교류는 거의 없으나 낮은 수준의 제도적 균질성이 존재하는 단계)를 기록하였다. 2018년 남북 간의 대화국면으로 비롯된 정치/문화적 교류 재개에 의한 단계적 지수 상승은 2019년 대화가 재차 중단되면서 2017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 정치영역의 통합단계는 2018년 3단계로 상승하였으나, 2019년 1단계(대화·회담 등 교류가 있으나 빈도 및 비중이 낮음)로 하락했다. 남북관계가 악화됐던 2016, 2017년 수준은 아니지만, 남북 교류 및 협상이 활발했던 2018년의 동력은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

- 사회문화영역 통합단계는 2단계(교류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나, 접촉빈도가 높은 상태)로서 전년의 3단계에서 한 단계 하락하였다.

■ 남북 의식통합지수는 정치 및 사회문화 영역에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경제 영역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다. 의식통합지수는 비교적 짧은 주기의 등락이 반복되는 변화 추이를 보이며 이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 수준이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9년 남북 간 협상은 교착되었지만, 2018년 활발했던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어 의식통합지수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 경제부문에서는 남한주민의 경우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대북 지원

에 대한 선호도 등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 응답이 증가하였다. 북한주민의 경우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부문에서 긍정적 응답이 증가한 반면,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부문은 긍정응답이 소폭 하락하였다.

- 정치영역 의식통합의 경우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은 상승한 반면, 통일의 필요성, 정치제도 동질성,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는 하락하여 종합적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상대점수가 모든 항목 전년 대비 부정적 평가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북한에 대한 남한의 상대점수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였다.

■ 구조통합과 의식통합을 합한 종합 남북통합지수는 197.1점으로 전년(242.3점) 대비 19.7% 감소하였으며, 이는 의식통합지수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조통합지수가 전년에 비하여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 지난 10년간 종합지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크게 증가했으나, 2019년 다시 크게 하락하여 2013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 등락을 반복하면서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의식통합지수와 달리 상대적으로 증감 폭이 큰 구조통합지수의 변화가 종합지수의 변화 추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 종합지수에 기초한 남북한 통합률은 2019년 19.7%로 2018년 24.2%에서 하락하였으며, 이는 정치 및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관계적 통합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통합률의 하락에 기인한 것이다.

- 남북한 통합률은 2008년 이후 20%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6년 17% 대로 하락하였으며, 2018년에 24.2%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9년 다시 19%대로 하락하게 되었다.
- 영역별로는 경제영역에서 16.9%로 가장 낮은 통합률을 보이며, 정치영역은 17.2%, 사회문화영역은 21.9%의 통합률을 보였다. 전년과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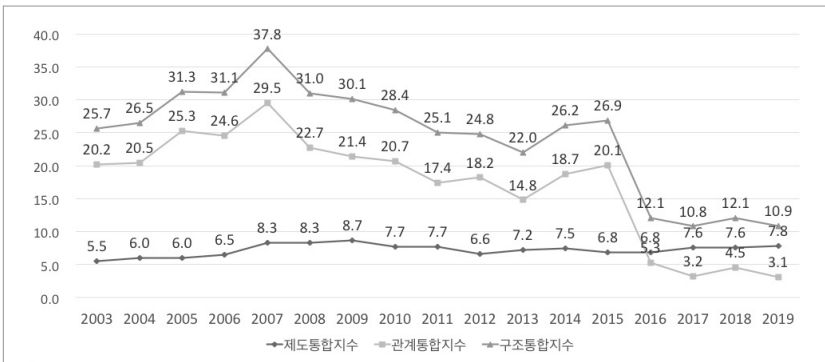
교하여 특히 정치영역의 통합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앞서 통합지수의 변화 추이와 일관된 결과이다.

2. 영역별 요약

가. 경제

- 2019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1.2점 하락한 10.9점을 기록하였고, 이는 통합단계로는 1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2019년에는 △ 남북 교역 중단, △ 대북 사업 투자 지원 하락, △ 제도 장치 확립 정도 하락 등이 지수의 주요 하락요인 이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 경협이 전무한 가운데 2018년의 북미·남북 간의 대화도 사실상 단절되어 지수가 하락하였다. 다만 제도통합지수는 공동법제화 부문에서 경제분야 공동법제화 구속력이 소폭 상승하였다.
 - 통합단계 역시 전년과 동일한 1단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은 단계, 혹은 물적 자원의 교류는 거의 없으나 낮은 수준의 제도적 균질성이 존재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점수는 0단계에서 불과 0.9점 높음에 따라 실제로는 0단계와 가깝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림 1-2〉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구체적으로 2019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에 영향을 미친 변화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하락요인>

○ 북한 핵 협상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가운데 남북 간 교역과 대북투자 총액이 전체적으로 하락하여 각 부문의 점수가 각각 0.2점 하락하였다. 무역자유화 부문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해 대비 0.5점 하락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 회담 및 합의서 채택도 전무하여 '제도장치 확립 정도' 부문도 지난해에 비하여 0.5점 하락하였다.

■ <상승요인>

○ 매년 10인의 법률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집계되는 공동법제화 부문의 경제분야 공동법제화 구속력은 지난해 대비 0.2점 소폭 상승하였다.

■ 2020년의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 2020년의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2019년 대비 소폭의 변동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에 이어 2020년 또한 북미, 남북 간의 대화가 실무차원, 그리고 정상 차원에서도 사실상 단절되어있는 상태이다. 특히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 당국은 미국 정치 상황 및 국제정세를 관망했기 때문에 남북교역 및 대북 투자의 경우 2019년 점수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한 해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영향을 확대하여 북한 또한 국경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제재에 의해 감소한 북한의 무역액은 2020년 더욱 가파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전체 무역에서 95%대를 차지하고 있는 대중무역도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0년에도 2019년과 같이 무역자유화 부문은 낮은 점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하여 판단하면, 2020년의 구조통합 지수는 2019년과 같이 1단계에 머물

게 될 공산이 크며, 법제화 수준 변동에 따라서는 0단계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지수는 2013년 40.8점 → 2014년 43.4점 → 2015년 42.6점 → 2016년 39.3점 → 2017년 38.3점 → 2018년 41.2 → 2019년 45.0점으로 2018년부터 시작된 반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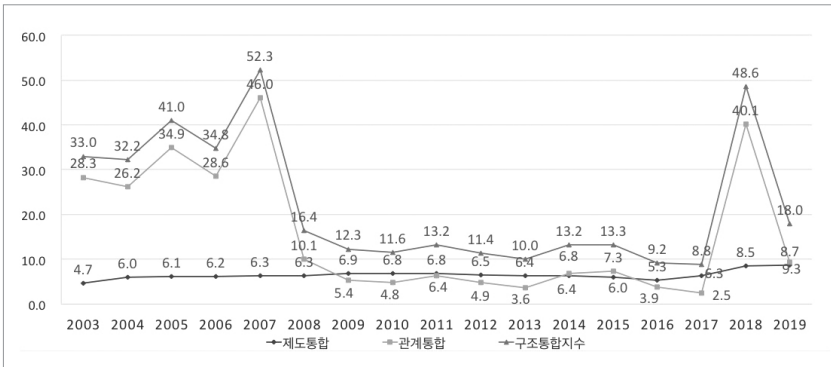
- 2019년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제분야 남한주민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18년 18.9점 → 2019년 20.5점으로 1.6점이 상승하였다. 이것은 남북관계가 사실상 정체된 상황을 반영하여 점수가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북한주민(북한이탈주민)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18년 22.3점 → 2019년 24.5점으로 전년 대비 1.2점 상승하였다. 특히, ‘대북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항목과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항목이 크게 상승하여 현재 북핵 협상 중단과 대북 경제제재로 어려운 북한 경제상황에서 향후 남북경협과 대북투자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 경제영역의 통합지수는 남북 관계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 구조통합지수는 작년에 비해 1.2점 하락하여 2018년의 상승을 반납하고 다시 2017년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2018년 급격히 완화된 북미·남북 관계가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다시 정체기에 들어서 남북 교류가 거의 중단된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즉, 최근의 상황은 정치적 관계의 경색이 경제 영역의 남북 통합을 저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영역에 대한 경제영역의 독자성은 여전히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정치

- 2019년 정치영역의 남북통합지수는 56.9점으로 전년도 87.8점보다 30.9점 감소하였다. 구조통합지수와 의식통합지수를 나누어 보면 구조통합지수는 작년보다 30.6점 하락한 18점을 기록하였고, 의식통합지수는 0.3점이 하락한 38.9점을 기록하였다.

〈그림 1-3〉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구조통합지수는 2013년 10점으로 0단계로 떨어졌다가 2014년에 3.2점이 상승하여 1단계를 가까스로 회복하였고 2015년에는 0.1점 상승한 13.3점이었으나 통합단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1단계였다. 2016년에는 4.1점 하락한 9.2점으로 급격히 하락하였고, 2017년에는 더 하락하여 8.8점까지 떨어졌으나 2018년 남북관계의 급격한 진전으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여 48.6점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북미 간, 남북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18점으로 2008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 구조통합지수의 한 축인 제도통합지수는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부문에서 북한 내 당에 의한 정치가 제도화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중시하는 흐름이 지속된 것을 고려해 1.5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하였고, 공동법제화 수준(전문가평가)이 2018년 대비 0.2점 상승하여 총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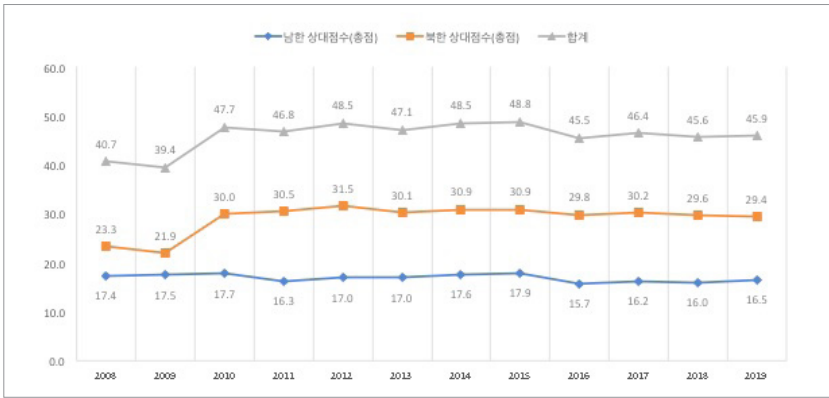
점으로 측정되었다. 다른 한 축인 관계통합지수의 경우 2018년과 달리 실무정치회담, 고위급 회담, 군사분야 회담 모두 개최되지 못했으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유지되었으므로 30.8점 하락한 9.3점에 그쳤다. 제도통합의 소폭 상승과 관계통합의 하락으로 2019년 정치분야 통합단계는 ‘대화·회담 등 교류가 있으나 빈도 및 비중이 낮음’으로 설명되는 1단계를 기록하였다.

- 의식통합지수는 80점 중에서 38.9점으로 통합수준은 48.6%였으며, 전년인 2018년과 비교하면 0.3점 하락하였다. 전년 대비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이 0.1점,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이 0.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는 2018년에 비하여 각각 0.6점, 0.1점, 0.1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의 통합의식은 전년보다 1.2점 하락하여 17.4점을 보인 반면, 북한주민의 통합의식은 0.8점 상승하여 21.5점을 기록했다.

다. 사회문화

- 2019년 사회문화영역 통합지수(의식통합지수 + 구조통합지수)는 의식통합지수 45.9점, 구조통합지수 38.4점으로 총합 84.3점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 의식통합지수는 소폭 하락했으나, 구조통합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해 감소폭을 주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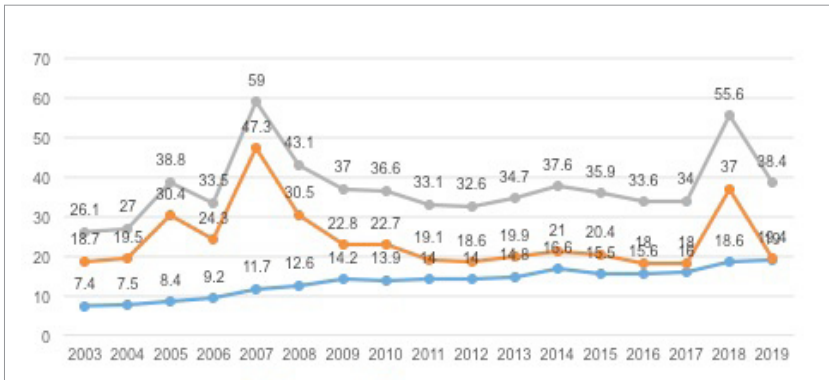
〈그림1-4〉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2019년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는 90점 만점 중 45.9점으로 2018년 45.6점보다 다소 상승했다. 남한주민의 의식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0.5점이 상승하였으며, 북한주민의 의식통합지수 전년 대비 0.2점 하락했다.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가 측정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의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에서 보이는 부동성(不動性)은 남북한 주민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림 1-5〉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2019년 구조통합지수는 28.4점으로 전년 55.6점에서 대폭 하락했으며, 이는 관계통합지수 대폭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전년 대비 제도통합지수는 0.4점 상승했으나, 관계통합지수는 17.6점 하락했다.
 - 제도통합지수 소폭 상승은 전문가 조사 결과 ‘공동법제화 수준’이 다소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 관계통합지수 대폭 하락은 공동협의기구 감소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대폭 하락했고, 당국자회담이 전혀 개최되지 않아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지수가 -7.3로 크게 줄어들었다.

- 2019년 대폭 하락한 구조통합지수(제도 + 관계)는 2018년 사회문화 통합지수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년 대비 남북 사회문화 통합 수준이 하락한 상황을 나타낸다.

- 2021년 발표하게 될 2020년 사회문화영역 남북통합지수 전망을 예측해 보면, 2019년에 비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 상황과 미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구조통합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남북관계는 전면 중단되었다. 2019년 남북통합지수 또한 전년 대비 하락한 상태이나, 2020년에도 보합하거나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의식통합지수는 남북관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편이라, 과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 북한 또한 대남관계를 전면 단절한 데 이어, 코로나 상황으로 무역, 교류 등 중국과의 국경마저도 전면 봉쇄해 사회문화 분야 구조지수, 의식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화가 없거나, 다소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3. 남북통합지수로 본 2019년 한반도: 평가와 전망

2019년 남북통합지수는 188.1점으로 2018년 242.3점에 비해 54.2점 하락하였다. 이는 상당 부분 2018년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제1차 남북정상회담,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 9월 18~20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116.3점까지 상승했던 구조통합지수가 2019년 58.3점으로 58점 하락한 데 기인한 것으로 2019년 구조통합지수는 2017년 53.6점, 2016년 54.9점에 이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의식통합지수는 2018년 126점에서 2019년 129.8점으로 3.8점 상승하였다. 이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와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제2차,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며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구조통합지수의 급락과 2008년 이후 120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의식통합지수의 지속을 특징으로 하는 2019년 남북통합지수 경향은 2020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19년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남북관계 또한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이후 경색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남북한 관계통합지수의 악화가 예상된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북한 등 주변국들이 국경을 폐쇄하거나 인적 교류를 중단하고 남북한 간 경제협력은 물론 북중 간 무역이 큰 타격을 받음에 따라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에서 남북한 관계통합지수 또한 당분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북

한 핵문제 해결과 경제제재 완화 등의 실질적 성과가 없을 경우 남북 구조통합지수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으로 당분간 영역별 통합단계는 2018년 이전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높은 정치 의존성과 제도통합과 의식통합의 점진적 상승

남북통합지수의 변화 추이를 제도와 관계, 의식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관계통합, 특히 정치 영역의 관계통합 요인의 높은 견인효과와 2016년 이후 제도통합과 의식통합지수의 점진적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2019년 남북통합지수는 관계통합 요인, 특히 정치 영역 관계통합 요인의 남북통합지수 견인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실제로 2018년 남북통합지수가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제도통합 보다는 관계통합, 특히 정치 영역 관계통합이 지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마찬가지로 2019년 남북통합지수의 하락 또한 관계통합, 특히 정치 영역 관계통합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2019년의 경우 제도통합과 의식통합지수는 정치 영역에서 의식통합지수가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경제, 정치, 사회문화 영역에서 모두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한 반면 관계통합지수는 경제, 정치, 사회문화 영역에서 모두 하락하였다. 경제 영역의 관계통합지수는 2018년 4.5점에서 2019년 3.1점으로 1.4점 하락하였고, 정치 영역의 관계통합지수는 40.1점에서 9.3점으로 30.8점 하락하였으며 사회문화 영역의 관계통합지수는 37.0점에서 9.4점으로 27.6점 하락하였다. 하락 폭을 기준으로 경제 영역은 1.4점, 정치 영역은 30.8점, 사회문화 영역은 27.6점 하락하여 정치 영역의 하락 폭이 가장 크며 이러한 정치 영역에서 관계통합지수 하락이 남북통합지수의 전체적인 하락을 견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남북관계, 특히 정치와 사회문화 영역에서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남북통합지수가 단기적으로 다시 한 번 급등락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지난 몇 년 간의 남북통합지수 조사결과는 제도통합과 의식통합지수의 경우 관계통합과 달리 2016년 이후 점진적 상승 추세에 있음을 보여

준다. 구체적으로 경제 영역 제도통합지수는 2016년 6.8점, 2017년 7.6점, 2018년 7.6점, 2019년 7.8점으로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정치 영역 제도통합지수 또한 2016년 5.3점, 2017년 6.3점, 2018년 8.5점, 2019년 9.7점으로 점진적 상승 추세에 있다. 또한 사회문화 영역 제도통합지수도 2016년 15.6점, 2017년 16.0점, 2018년 15.9점, 2019년 19.0점으로 점진적 상승 추세에 있다. 의식통합지수 또한 영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2016년 121.7점, 2017년 120.9점, 2018년 126.0점, 2019년 129.8점으로 점진적 상승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가 2020년에도 계속 이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 대북 경제제재 지속 하에서 교류협력과 경제통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과 2019년 연이어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함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는 지속되고 있으며 남북한 교류협력과 경제통합 또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특히 2019년의 경우 2월 베트남 하노이와 6월 판문점에서 제2차,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는 등 북미 간 당국자 접촉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성과가 부재한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 교류와 통합은 진전이 없는 교착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과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에서 교류협력과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역을 활용한 농업 분야 교류 협력과 같이 직접적인 방식 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한 교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 방역 협력,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조류 독감 등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산림 및 환경 분야 협력 등 남북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제재를 벗어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남북 공통의 인도적 문제와 북한의 열악한 의료 보건 문제 등 인도적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 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

- 새로운 국제정세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

2021년 1월 20일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대중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또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관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협력을 추구하고, 북한과 정상 간 대화를 포함한 전면적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을 모색할 경우 남북관계는 2018년과 같은 순풍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관계에서 지속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교류협력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현재와 같은 경색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에서 제재를 벗어난 남북 교류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조적 차원에서의 남북통합과 별개로 의식 차원에서 남북통합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문화나 학문 분야에서 남북한 간 차이를 연구하고 직접적인 방식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제정세 변화 속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1장. 구조통합지수

2장. 의식통합지수

3장. 남북통합지수 : 2010~2019

IPUS

1장. 구조통합지수

1. 경제

가. 지수구성

〈표 2-1〉 경제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영역	지표	배점
제도적 통합	<input type="checkbox"/> 공동의 경제제도나 정책의 존재	30
	<input type="checkbox"/> 동일화폐 사용	30
	<input type="checkbox"/> 남북한 경제분야 공동법제화	30
관계적 통합	<input type="checkbox"/> 남북교역액/북한 총 무역액 : 교역부문	20
	<input type="checkbox"/> 한국의 대북투자액/북한 국민소득 : 투자부문	20
	<input type="checkbox"/> 남한기업이 고용한 북한 노동자의 수/남한기업이 고용가능한 최대 북한 노동자 고용수 : 노동부문	20
	<input type="checkbox"/> 관세정도와 비관세장벽의 존재 : 무역자유화 부문	20
	<input type="checkbox"/> 경제교류를 뒷받침 하는 제도적 장치 확립 정도	20
	<input type="checkbox"/> 소득수준의 수렴	20
	<input type="checkbox"/> 이자율의 수렴	10
	<input type="checkbox"/> 인플레이션율의 수렴	10
	<input type="checkbox"/> 경기변동의 동조화	10
	<input type="checkbox"/> 금융시장의 통합정도	10

■ 이상의 변인들에 부여된 점수를 가산하여 경제통합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11단계로 구분한다.

- 0단계 (물적 자원의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이며 남북 사이의 제도적 균질성도 매우 낮은 수준임): 10점 이하

- 1단계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음, 혹은 물적 자원의 교류는 거의 없으나 낮은 수준의 제도적 균질성이 존재하는 단계): 11-20점
- 2단계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높으며 낮은 수준의 제도적 균질성이 존재하는 단계): 21-30점
- 3단계 (물적 자원 교류의 비중이 높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주로 매개적 제도)이 마련됨: 31-50점
- 4단계 (3단계 + 관세나 수입할당 등이 없으며 자유로운 수출입이 가능): 51-70점
- 5단계 (4단계 +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본이동을 자유화함, 상당한 정도의 노동 이동도 가능): 71-100점
- 6단계 (5단계 + 회원국의 정책을 구속하는 제도 - 위임적 제도 - 의 수립): 101-130점
- 7단계 (6단계 + 동일 화폐 사용): 131-160점
- 8단계 (7단계 + 경제정책의 대부분이 국가 공동의 기구와 제도에 위임): 161-190점
- 9단계 (8단계 + 모든 경제정책이 국가 공동의 기구와 제도에 위임): 191-220점
- 10단계 (9단계 + 실질적인 경제적 통일을 이룬 단계): 221-250점

나. 제도통합지수

1) 공동의 경제제도나 정책의 존재

■ 공동의 경제제도와 정책 부문은 현재까지 공동의 경제정책(통합재정, 공동 중앙은행)을 위임하기 위한 위임기관(delegated institutions)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년과 같이 0점을 부여한다.

- 이 부문의 배점은 30점으로 남북한 통합재정의 존재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15점을 배점하고, 남북한 중앙은행의 존재유무와 그 권한 정도

에 따라 15점 배점한다.

- 현재는 남북한 정부의 경제정책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은 공동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동 제도·정책 부문의 점수는 0점이다.

2) 공동화폐의 사용 - 화폐 동맹

- 남북한 공동화폐 사용 부문도 현재까지는 진전이 없으므로 예년과 같이 0점을 부여한다.
 - 이 부문의 배점은 30점으로 남북한 공동화폐 사용이 EU의 경우와 같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1단계: 북한화폐 태환화 10점
2단계: 북한화폐의 남한 화폐에 대한 페그(peg) 10점
3단계: 남북한 공동화폐의 사용 10점

3) 남북한 경제분야 공동법제화

- 남북한 법제의 공동법제화는 전문가 평가에 기초한 '법제화 수준' 배점과 △사유재산권, △경제적 자유화, △금융제도의 확립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한 '법제의 실효화' 배점의 합으로 측정된다.
- 경제분야 법제화 수준은 △북한의 법제화 수준, △남북한 법제의 수렴정도, △남북공동법제의 구속력 수준으로 나누어 전문가 조사를 통해 측정한다. 전문가 조사는 10명의 북한법 전문가들이 세 개의 지표에 대해 각각 10점 척도로 점수를 부과, 그 부문별 점수를 합계한 후, 15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따른다. 2020년에 실시된 전문가 조사 결과, 2019년 경제 분야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15점 만점에 6.8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것은 작년보다 0.2점 상승한 수치이다.
 - '북한 경제 분야 법제화 수준', '경제 분야 남북한 법제의 수렴정도', '공동법제의 구속력'은 모든 분야에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이는 북한의 경제 제도 개선이 여전히 뚜렷한 발전을 보이지 못

한 상태에서 아직 시장을 목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판단된다.

- 2019년 2월 결렬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UN 경제제재를 둘러싼 북미와 남북 간의 대화가 정체기에 들어선 이후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분야 법제화 또한 정체된 상황으로 경제 제도 개선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9년 경제 법제화 점수는 예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2-2〉 경제분야 법제도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북한의 경제분야 법제화 수준	2.6	3.0	2.9	2.8	2.7	3.0	3.0	3.0
경제분야 남북한 법제의 수렴 정도	1.6	1.8	1.7	1.6	1.6	1.9	1.9	1.8
경제분야 공동법제화 구속력	1.4	1.8	1.9	1.4	1.5	1.8	1.7	2.0
합계	5.6	6.6	6.5	5.8	5.8	6.6a	6.6	6.8

a. 합계 점수는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 후 반올림' 한 것이며, 부문별로 반올림 후 합산한 것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

■ 법제 실효화 수준은 △사유재산권, △경제적 자유화, △금융제도의 확립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 2009년 화폐 개혁의 단행으로 '사유재산권' 부문의 점수가 하락하고, 2010년 3월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남한 투자 자산에 대한 몰수를 통보하여 경제적 자유화 부문 중 '투자의 자유'가 침해된 이후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어 전년과 동일한 1점을 유지하였다.

■ 이상의 남북한 공동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 보면, 전문가 평가에 의한 '법제화 수준' 점수 6.8점과 '법제의 실효화 수준' 점수 1점을 합하여 7.8점이 된다.

4) 제도통합지수 종합

■ 경제영역의 제도통합지수는 △공동의 경제제도나 정책의 존재, △공동의 화폐의 사용,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의 합계로 산정하여 7.8점을 부여한다.

- 현재 남북간 공동의 경제제도와 정책, 공동의 화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두 항목의 점수는 0점이다.
-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위에서 기술한 대로 법제화 수준과 법제의 실효화 수준을 합산하여 7.8점이 된다. 따라서 제도통합지수는 공동법제화 수준 점수와 동일하며 이는 아래 <표 2-3>에 나타나 있다.

<표 2-3> 제도통합지수 종합

	공동제도와 정책(30)	동일화폐 사용(30)	남북한 공동법제화(30)		법제, 제도적 통합
			법제화(15)	실효화(15)	
1989	0	0	1	0	1
1990	0	0	1	0	1
1991	0	0	1	0	1
1992	0	0	2	0	2
1993	0	0	2	0	2
1994	0	0	2	0	2
1995	0	0	2	0	2
1996	0	0	2	0	2
1997	0	0	2	0	2
1998	0	0	3	2	5
1999	0	0	3	2	5
2000	0	0	3	2	5
2001	0	0	3	2	5
2002	0	0	3.5	2	5.5
2003	0	0	3.5	2	5.5
2004	0	0	4	2	6
2005	0	0	4	2	6
2006	0	0	4.5	2	6.5
2007	0	0	6.3	2	8.3
2008	0	0	6.3	2	8.3
2009	0	0	7.2	1.5	8.7

	공동제도와 정책(30)	동일화폐 사용(30)	남북한 공동법제화(30)		법제, 제도적 통합
			법제화(15)	실효화(15)	
2010	0	0	6.7	1	7.7
2011	0	0	6.7	1	7.7
2012	0	0	5.6	1	6.6
2013	0	0	6.6	0.6*	7.2
2014	0	0	6.5	1	7.5
2015	0	0	5.8	1	6.8
2016	0	0	5.8	1	6.8
2017	0	0	6.6	1	7.6
2018	0	0	6.6	1	7.6
2019	0	0	6.8	1	7.8

* 개성공단이 5개월 가량 폐쇄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1-5/12의 점수를 부여함

다. 관계통합지수

1) 교역부문

■ 2019년 북한의 무역액(남북교역 제외)은 3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1% 증가한 수치이다. 수출은 14.4% 증가한 2.8억 달러, 수입은 14.1% 증가한 29.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6.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 2017년 하반기 들어 북한의 광물, 수산물, 섬유제품의 수출을 전면금지한 UN 안보리 대북제재안이 연달아 결의되었고 2018년까지 이 효력이 계속 유지되면서 북한의 수출입액이 급감하였으나 2019년에는 수출, 수입액 모두 14%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는 2018년도 수출입액 급감으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시계 및 부분품(HS91)으로 전체 수출에서 17.8%인 490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18년 최대 수출품 철강(HS72)의 3500만 달러를 넘어섰다. 대분류 기준으로는 광학·정밀기기류

(HS90-92)로 2018년 대비 53.2% 급성장하여 총 6,93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7년 경제제재 이전의 최대 수출품목 광물성 생산품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전체 수출액의 12.3% 수준으로 그 비중이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광물성 연료 및 광물유(HS27)이며 총 3.5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1.7%를 차지하여 2018년 대비 총액기준으로 는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다. 플라스틱 및 그 제품(HS39)와 인조필라멘트섬유(HS54)은 전체 수입금액 대비 각각 9.3%와 6.4%를 기록하여 그 뒤를 이었다. 2017년 제재 이전 주요 수입 품목이었던 기계·전기기기(HS84-85)는 2019년에도 제재의 영향이 지속되어 전체 수입액 대비 0.2%를 기록하였다.

■ 2018년 비상업적 거래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상승을 기록하였던 남북교역액은 2019년 700만 달러로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북·중 교역액은 2018년 대비 13.6% 증가한 30.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2010년 5.24 조치에 이어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역시 폐쇄되면서 이후의 남북교역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2018년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및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로 인한 일시적 교역액 증가는 2019년 다시 급감하여 유의미한 남북교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이에 2019년,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남한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0.2%에 그쳤다.

- 2019년에도 북중 무역은 북한 대외무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사실상 북한의 제2교역국이었던 남한과의 교역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국제 제재의 영향으로 다른 주요 교역국 또한 북한과의 거래를 줄이면서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기존 60~70% 수준에서 2017~2019년에는 95% 수준까지 급증하였다.

■ 2019년 북한 무역현황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요 수출 품목의 변화이다.

○ 2017년 UN 안보리는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석탄, 철광석, 의류, 수산물 등에 대해 전면 금수 조치를 순차적으로 결의하였다. 제재의 영향은 2019년에도 효력을 발휘하여 기존의 주력 수출품목의 비중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시계 및 부분품, 광학·정밀기기류 등 경공업 품목의 비중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력 수출품목의 변화는 장기화되고 있는 UN 대북제재 속에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 위주로 북한의 수출전략이 재편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이상을 종합하면, 교역부문 상대점수는 전년 대비 0.2점 하락한 0.0점을 기록하였다¹⁾.

○ 지난해 교역부문 상대점수 0.2점의 상승을 견인한 북한의 2018 평창 올림픽 참가 및 남북 정상회담 등이 촉발한 비상업적 거래가 사라짐으로써 2019년 상대점수는 다시 2017년과 같은 0점을 기록하였다.

1) 교역부문의 상대점수는 EU나 COMECON과 같이 경제통합도가 높은 경제공동체의 '역내교역비중'과 남북 교역 비중을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2006년 유럽연합 27개의 회원국가의 국가별 전체 교역액 중 역내교역 (intra-EU)의 비중 자료와 1985년 CMEA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회원국 6개국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연방)의 역내 수출비중 자료를 사용한다. 각각 68.9% 과 56%로 이 두 수치의 평균인 62.4%를 상대점수 산출을 위한 기준점으로 삼았다.

〈표 2-4〉 교역부문 상대점수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북한무역액 ^a (A)	남북교역액 ^b (B)	북한 총 무역액 (C=A+B)	남북교역 비중 (D=B/C)	상대점수 (E=(D*14)/62.4)
1989	4,516	19	4,534	0.4%	0.1
1990	4,170	14	4,184	0.3%	0.1
1991	2,584	111	2,695	4.1%	0.9
1992	2,555	173	2,728	6.4%	1.4
1993	2,646	187	2,833	6.6%	1.5
1994	2,100	195	2,295	8.5%	1.9
1995	2,052	287	2,339	12.3%	2.8
1996	1,977	252	2,229	11.3%	2.5
1997	2,177	308	2,485	12.4%	2.8
1998	1,442	222	1,664	13.3%	3.0
1999	1,480	333	1,813	18.4%	4.1
2000	1,969	425	2,394	17.8%	4.0
2001	2,270	403	2,673	15.1%	3.4
2002	2,260	642	2,902	22.1%	5.0
2003	2,391	724	3,115	23.2%	5.2
2004	2,857	697	3,554	19.6%	4.4
2005	3,002	1,056	4,058	26.0%	5.8
2006	2,996	1,350	4,346	31.1%	7.0
2007	2,940	1,798	4,738	37.9%	8.5
2008	3,816	1,820	5,636	32.3%	7.2
2009	3,414	1,679	5,093	33.0%	7.4
2010	4,174	1,912	6,086	31.4%	7.1
2011	6,316	1,714	8,030	21.3%	4.8
2012	6,811	1,971	8,782	22.4%	5.0
2013	7,340	1,136	8,476	13.4%	3.0
2014	7,610	2,343	9,953	23.5%	5.3

연도	북한무역액a (A)	남북교역액b (B)	북한 총 무역액 (C=A+B)	남북교역 비중 (D=B/C)	상대점수 (E=(D*14)/62.4)
2015	6,252	2,711	8,963	30.2%	6.8
2016	6,532	332	6,879	4.8%	1.1
2017	5,550	1	5,551	0.0%	0.0
2018	2,843	31	2,875	1.1%	0.2
2019	3,245	7	3,252	0.2%	0.0

a. KOTRA, 『북한대외무역동향』, 각 년호 (남북교역액은 제외).

b. 통일부 주요 사업 통계, “남북 교역액 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검색일 2018.10.04).

2) 투자부문

■ 대북투자액은 크게 ‘정부 대북투자’와 ‘민간 대북투자’로 구분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부주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대북 투자규모를 중심으로 대북투자액을 산정하였다.

○ 정부 대북투자액은 남북협력기금 중 투자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항목 △경협기반조성 무상지원액(이하 지원액), △남북교류협력 지원 용자액(이하 용자액)의 합산을 통해 산출하였다.

■ 2019년 남북협력기금 중 투자 성격으로 규정한 지원액과 용자액의 합은 약 1,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다.

○ 2019년 ‘경협기반 조성 무상지원액’은 전년 대비 47.9%가 감소한 944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위 금액은 대북 경협기반조성 사업 중 대북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DMZ 평화둘레길 조성에 대한 기금 지원’, ‘남북경협 및 금강산기업 피해지원’, ‘관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기금 지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지원’, ‘경협기업 보험 지원’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다.

○ ‘남북협력지원 용자액’은 지난해와 같은 257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 2019년 투자부문 상대점수는 전반적인 대북투자액의 하락으로 작년대비 0.2점 하락한 0.1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여전히 경험 재개가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미 간의 교착상태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대북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한데 따른 상대 점수 하락으로 볼 수 있다²⁾.

○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2010년 5.24 조치 이후 정부의 대규모 대북투자 역시 어려워진 상황에서 투자부문 상대 점수는 1점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투자부문의 경제통합지수는 경제통합이 높은 지역에 포함된 국가들의 국민소득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비중을 기준으로 삼고, 남한의 대북투자액을 이와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2004년 EU에 가입한 동유럽 8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의 GDP의 FDI 비중을 사용하였고, 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고려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EU 통합 이후 3개년에 걸친 국민소득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의 평균값은 5.9%이다.

〈표 2-5〉 투자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정부투자(남북협력기금)a		민간 투자액b	남한 전체 투자액 (A)	북한의 국민소득c (B)	남한투자 비중 C=(A/B) *100	상대점수 D=(C*14) /5.87
	경험분야 기반조성 (경상지출)	남북교류 협력지원 (응자)					
1995					5,215	0.00	0.0
1996	4.9		5	9.9	10,528	0.09	0.2
1997			1	1.0	10,309	0.01	0.0
1998			1	1.0	10,260	0.01	0.0
1999			125	125.0	10,265	1.22	2.9
2000	14.6		22	36.6	10,593	0.35	0.8
2001	89.9	46.0	28	163.9	11,007	1.49	3.6
2002	36.8	35.7	12	84.5	10,887	0.78	1.9
2003	76.3	54.7	8	139.0	11,028	1.26	3.0
2004	76	81.4	12	169.4	11,145	1.52	3.6
2005	204.5	56.8	45	306.3	13,001	2.36	5.6
2006	152.1	71.0		223.1	13,741	1.62	3.9
2007	172.5	140.0		312.5	14,349	2.18	5.2
2008	110.0	36.6		146.6	13,327	1.10	2.6
2009	41.5	24.0		65.5	12,044	0.54	1.3
2010	17.7	45.2		62.9	13,960	0.45	1.1
2011	12.4	13		25.4	15,719	0.16	0.4
2012	23.8	22.1		45.9	15,962	0.29	0.7
2013	11.5	74.6		86.1	16,602	0.52	1.2
2014	20.0	22.3		42.3	17,462	0.24	0.6
2015	20.6	3.6		24.2	16,386	0.15	0.4
2016	11.5	3.2		14.7	16,837	0.09	0.2
2017	8.64	2.66		11.3	17,404	0.06	0.2
2018	18.12	2.57		20.7	17,516	0.12	0.3
2019	9.44	2.57		12.01	17,551d	0.06	0.1

a.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현황”, (1,000원 = 1달러 적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interkoreanfund/bfPresent/>, 검색일 2020.12.14.>

b. 김영훈, 2006, “남북경협 현황과 평가”, 『금융경제연구』, 제281호.

c. UN, “GNI in US Dollars”, <<http://unstats.un.org/unsd/snaama/dnllist.asp>>.

d. 2018년도 국민소득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북한경제성장률 0.4%를 적용하여 산출함.

3) 노동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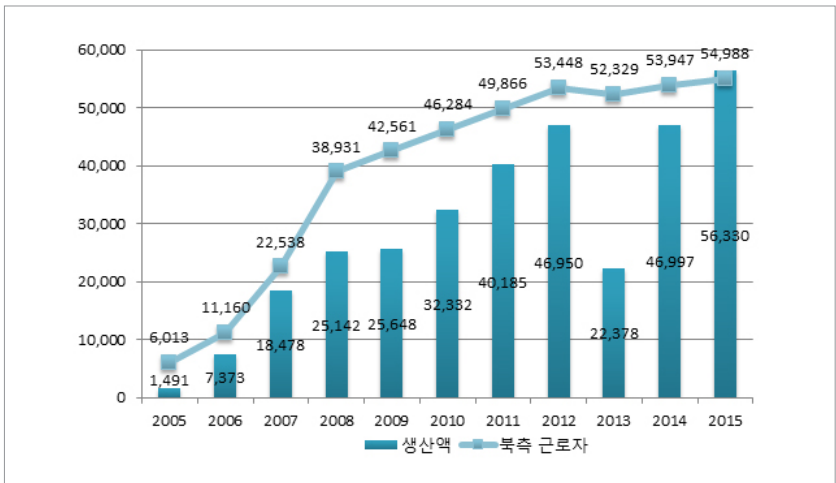
■ 노동부문의 상대점수는 통일이후 예상되는 북한 노동인구의 남한 유입규모³⁾에 현재 고용된 북한노동력 규모를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 남한기업이 고용한 북한 노동자의 수는 2015년 말 기준 개성 공단에 약 5만 5천 명이 있었으나,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현재는 남한 기업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가 없다.

- 이에 따라 2019년 노동부문의 상대점수는 2018년과 동일한 0점을 기록하였다.

〈그림 2-1〉 개성공단 고용 북한노동자와 생산액 추이

(단위: 만 달러, 명)



3) 정창무(2007) 인구이동 예측결과는 2020년을 통일 시점으로 가정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32만 명 정도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2-6〉 노동부문 상대점수

(단위: 명)

연도	남한기업 고용 북한노동자a (A)	상대점수 (A/320,000)*20
1989	0	0.0
1990	0	0.0
1991	0	0.0
1992	0	0.0
1993	0	0.0
1994	0	0.0
1995	0	0.0
1996	0	0.0
1997	0	0.0
1998	0	0.0
1999	0	0.0
2000	0	0.0
2001	0	0.0
2002	0	0.0
2003	0	0.0
2004	0	0.0
2005	7,621	0.5
2006	11,189	0.7
2007	22,538	1.4
2008	38,931	2.4
2009	42,561	2.7
2010	46,284	2.9
2011	49,866	3.1
2012	53,448	3.3
2013	30,525b	1.9
2014	53,947	3.4
2015	54,988	3.4

연도	남한기업 고용 북한노동자a (A)	상대점수 (A/320,000)*20
2016	6,110c	0.4
2017	0	0.0
2018	0	0.0
2019	0	0.0

- a.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 주요 통계”, <http://www.unikorea.go.kr/cms/getFile.do?file=2017070714065518271.xls&orgname=%EA%B0%9C%EC%84%B1%EA%B3%B5%EB%8B%A8%EC%82%AC%EC%97%85_%EC%B5%9C%EC%A2%85.xls&mgmtId=MGMT_0000000350&siteId=SITE_00001&filePath=unikorea/common/file/&count=Y>.
- b. 연말 노동인구 52,379명에 개성공단 폐쇄일 수를 고려한 (1-5/12)를 곱하여 산출함
- c. 전년도 연말 노동인구 54,988명에 개성공단 폐쇄일 수를 고려한 (1-32/36)를 곱하여 산출함

4) 무역자유화 부문

■ 2019년에는 일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남북 교류가 전면 중단된 것을 반영하여 0점을 부여한다.

- 무역자유화 부문은 크게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자유화정도의 합산을 통해 상대점수를 산출한다.
- 상품무역은 다시 ‘관세 유무’와 ‘교역금지품목 범위’ 등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평가한다.
 - 2010년 ‘5.24 대북조치’로 인해 같은 해 6월 「반출·반입 승인대 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가 개정된 후 모든 물품의 반출입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승인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에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이 거의 중단되면서 상품 무역자유화 정도에 심대한 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부터 0.5점이 낮은 4.5점을 부여하여 왔다.
 - 2016년 2월 개성공단 잠정 폐쇄 이후 2019년에도 남북 간 상품 교역이 여전히 전면 중단된 상태이므로 상품 무역자유화 점수는 0점을 부여한다.

- 서비스무역에 대한 자유화 점수는 '북한 서비스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남한인력의 국경 간 이동' 등 두 가지 범주에서 평가한다.
 - 2010년 이후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경험사업에 대해서는 남한 사업자들이 방북승인이 불가한 상황을 반영하여 1.5점을 부여하여 왔다.
 - 2019년에는 남한인력의 국경 간 이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0점을 부여한다.

〈표 2-7〉 무역자유화 부문 상대점수

연도	상품무역(10) (A)	서비스무역(10) (B)	상대점수 (C=A+B)	비고
1989	5.0	0.0	5.0	
1990	5.0	0.0	5.0	
1991	5.0	0.0	5.0	
1992	5.0	0.0	5.0	
1993	5.0	0.0	5.0	
1994	5.0	0.0	5.0	
1995	5.0	0.0	5.0	
1996	5.0	0.0	5.0	
1997	5.0	0.0	5.0	
1998	5.0	0.0	5.0	
1999	5.0	0.0	5.0	
2000	5.0	0.0	5.0	
2001	5.0	0.0	5.0	
2002	5.0	0.0	5.0	
2003	5.0	0.0	5.0	
2004	5.0	1.0	6.0	개성공단·금강산 통행합의서 채택(1)
2005	5.0	2.0	7.0	KT 개성공단 통신서비스 개시(1)
2006	5.0	2.0	7.0	
2007	5.0	2.0	7.0	
2008	5.0	2.0	7.0	
2009	5.0	1.5	6.5	'12.1 조치' : 인적이동 제한 '유씨 억류사건' : 거주인력 안정보장 문제 발생

연도	상품무역(10) (A)	서비스무역(10) (B)	상대점수 (C=A+B)	비고
2010	4.5	1.5	6.0	'5.24 조치' : 상품무역 및 인력이동에 대한 제약요인 발생
2011	4.5	1.5	6.0	
2012	4.5	1.5	6.0	
2013	2.6	1.5	4.1	개성공단 폐쇄(5개월)에 따른 점수 차감
2014	4.5	1.5	6.0	'5.24 조치'에 따른 상품과 인력이동의 제한 지속
2015	4.5	1.5	6.0	
2016	0.5	0.2	0.7	개성공단 폐쇄(2월10일 이후)에 따른 점수 차감
2017	0.0	0.0	0.0	남북 상품 무역 및 인적 왕래 전면 중단
2018	0.0	0.5	0.5	
2019	0.0	0.0	0.0	

5) 경제 교류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확립 정도

■ 2019년에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개최된 바 없고 철도, 도로 등 인프라 분야 및 산림협력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회담 개최와 합의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아 질적변수는 3.0점을, 양적변수에서는 0점을 부여한다.

-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매개제도(intermediating institutions)를 2007년 2차 정상회담이후 설치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규정하고, 매개제도의 존재와 실질적인 작동여부를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제도 확립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매개제도인 공동위원회가 2019년도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매개 제도의 존재'에 대해 3점을 부여하나 실질적인 작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 제도의 작동' 점수는 0점이다.
- 제도 확립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2019년 남북 간 회담 성사와 합의서 채택의 사례가 없는 관계로 0점을 부여한다.

〈표 2-8〉 제도장치 확립부문 상대점수

(단위: 회)

연도	질적변수			양적변수 ⁴⁾					상대점수
	위임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작동 ^a	회담 개최수	합의서 채택수	합의서 가중치	연도별 점수	연도별 점수에 따른 상대점수	
1989							0.0	0.0	0.0
1990							0.0	0.0	0.0
1991							0.0	0.0	0.0
1992							0.0	0.0	0.0
1993							0.0	0.0	0.0
1994							0.0	0.0	0.0
1995							0.0	0.0	0.0
1996							0.0	0.0	0.0
1997							0.0	0.0	0.0
1998							0.0	0.0	0.0
1999							0.0	0.0	0.0
2000	0.0	3.0	2.0	3	0	0.0	3.0	0.5	5.5
2001	0.0	3.0	0.0	3	2	3.0	6.0	0.5	3.5
2002	0.0	3.0	2.0	14	11	16.5	30.5	1.5	6.5
2003	0.0	3.0	2.0	17	14	21.0	38.0	2.0	7.0
2004	0.0	3.0	2.0	13	8	12.0	25.0	1.5	6.5
2005	0.0	3.0	2.0	11	6	9.0	23.0	1.5	6.5
2006	0.0	3.0	2.0	8	3	4.5	12.5	1.0	6.0

4) 제도 확립관련 양적변수는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 * 합의서 가중치 : 합의서 채택은 회담 개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파급효과도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담 개최에 비해 0.5의 가중을 더 주었다.
- * 연도별 점수는 다음 수식으로 산출: 연도별점수=경제회담 개최 수+경제관련 합의서 채택 수 *1.5
- * 상대점수는 연도 연도별 점수에 따라 0~5점까지 범위에서 상대점수를 부여한다. 하지만, 연도별 점수가 80이상을 넘을 만큼 활발히 회담이 개최되고, 합의서가 채택된다고 할지라도 상대점수는 5점 이상 부여할 수 없다. 이는 매개제도의 존재와 활발한 활동만으로는 10점 이상의 점수는 부여될 수 없고, 위임제도가 존재하였을 때만이 그 이상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	질적변수			양적변수 ⁴⁾					상대 점수
	위임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작동 ^a	회담 개최수	합의서 채택수	합의서 가중치	연도별 점수	연도별 점수에 따른 상대점수	
2007	0.0	3.0	2.0	22	16	24.0	46.0	2.5	7.5
2008	0.0	3.0	0.0	3	1	1.5	4.5	0.5	3.5
2009	0.0	3.0	0.0	4	0	0.0	4.0	0.5	3.5
2010	0.0	3.0	0.0	3	0	0.0	3.0	0.5	3.5
2011	0.0	3.0	0.0	0	0	0.0	0.0	0.0	3.0
2012	0.0	3.0	0.0	0	0	0.0	0.0	0.0	3.0
2013	0.0	3.0	0.0	22	5	7.5	29.5	1.5	4.5
2014	0.0	3.0	0.0	3	0	0.0	3.0	0.5	3.5
2015	0.0	3.0	0.0	1	0	0.0	1.0	0.5	3.5
2016	0.0	3.0	0.0	0	0	0.0	0.0	0.0	3.0
2017	0.0	3.0	0.0	0	0	0.0	0.0	0.0	3.0
2018	0.0	3.0	0.0	4	4	6.0	10.0	0.5	3.5
2019	0.0	3.0	0.0	0	0	0	0.0	0.0	3.0

a. 2000년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을 경우 매개제도가 작동한 것으로 보고 2점을 부여하였음.

※ 자료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http://dialogue.unikorea.go.kr>>.

6) 소득수준 수렴

- 2019년에 남한은 2.0%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북한은 0.4% 성장을 기록하였다.
- 북한의 소득수준은 여전히 남한의 10% 이하 수준이어서 소득수렴 부문의 상대점수는 예년과 같은 0점을 기록하였다.
 - 2019년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소득 대비 북한 1인당 소득수준은 2.0% 정도이다.

〈표 2-9〉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단위: 달러, %)

연도	북한	남한	비율	상대점수
1989	911	5,711	16.0%	1.74
1990	835	6,498	12.8%	1.08
1991	753	7,496	10.0%	0.42
1992	659	7,966	8.3%	0
1993	547	8,692	6.3%	0
1994	432	10,129	4.3%	0
1995	239	12,222	2.0%	0
1996	476	13,016	3.7%	0
1997	461	11,992	3.8%	0
1998	455	7,916	5.7%	0
1999	451	10,199	4.4%	0
2000	461	11,767	3.9%	0
2001	475	11,095	4.3%	0
2002	467	12,635	3.7%	0
2003	470	14,045	3.3%	0
2004	472	15,739	3.0%	0
2005	547	18,295	3.0%	0
2006	574	20,616	2.8%	0
2007	596	22,813	2.6%	0
2008	550	20,361	2.7%	0
2009	495	18,222	2.7%	0
2010	570	22,110	2.6%	0
2011	639	24,315	2.6%	0
2012	645	24,731	2.6%	0
2013	668	26,210	2.5%	0
2014	700	29,472	2.5%	0
2015	654	28,931	2.3%	0

연도	북한	남한	비율	상대점수
2016	669	29,531	2.4%	0
2017	688	31,911	2.2%	0
2018	689	33,710	2.0%	0
2019a	692	34,384	2.0%	0

※ 자료: UN, "Per Capita GNI in US Dollars", <<http://unstats.un.org/unsd/snaama/dnllist.asp>>.
a. 2019년 소득은 2018년 자료에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남북한 경제성장률을 곱하여 산출함. 전반적인 통계수치는 각 해에 발표된 UN 공식통계를 반영하여 재조정됨.

7) 이자율의 수렴

- 이자율의 수렴은 남북한의 월별 대출이자율과 화폐시장이자율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이자율의 수렴정도는 북한에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에 통합지수의 일부로 이용될 것이며 따라서 이 부문에서의 현재 점수는 0점을 부여한다.

8) 인플레이션율의 수렴

- 인플레이션율의 수렴은 남북한의 월별 CPI로 측정된 인플레이션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 현재 북한에서는 전반적인 가격자유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의 점수도 0점을 부여한다.

9) 경기변동의 동조화

- 경기변동의 동조화는 월별 산업생산량(industrial production) 자료를 활용하되 추이(trend)를 제거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 현재 북한과 남한의 경기변동을 동조화시키는 요인들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영역에서의 현재 점수도 0점으로 평가한다.

10) 자본시장의 통합 정도

- 북한에 주식과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 개설이후 ‘북한의 포트폴리오 투자액과 남한저축액과의 상관계수’ 및 ‘남북한 주식시장 수익률 상관계수’ 등을 이용하여 자본시장의 통합정도를 측정한다.
 - 현재 이 부분의 상대점수는 0점으로 평가한다.

라. 종합

- 2019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1.2점 하락한 10.9점을 기록하였고, 이는 통합단계로는 1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2019년에는 남북 경제 교류 전면 중단으로 인한 △ 남북 교역 대폭 감소, △ 대북 투자 감소, △ 남북 간 대화 중단 등이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다.
 - 통합단계는 전년과 동일한 1단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은 단계’이다.
 -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문화적 교류 재개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인 물적 자원 교류 현황만으로 평가하면 2019년의 남북 경제통합 수준은 사실상 0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10〉 2018년/2019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부문	2018년	2019년	증감	요인
변화 부문	공동 법제화	7.6	7.8	0.2	- 경제분야 공동법제화 구속력 소폭 상승
	교역	0.2	0.0	-0.2	- 남북교역 대폭 감소
	투자	0.3	0.1	-0.2	- 대북투자 전반적 감소
	무역자유화	0.5	0.0	-0.5	-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없음
	제도 장치	3.5	3.0	-0.5	- 남북 회담 및 합의서 채택 없음
불변 부문	공동제도와 정책	0	0	-	- 공동의 경제정책(통합재정, 공동 중앙은행)을 위임할 위임기관 부재
	공동화폐의 사용	0	0	-	- 남북공동 화폐 사용 관련 진전 없음.
	노동	0	0	-	- 남한 기업의 북한 인력 고용 전무함
	소득 수렴	0	0	-	- 남북간 소득격차 소폭 확대
	이자율 수렴	0	0	-	- 북한의 시장 이자율 미확립
	인플레이션 수렴	0	0	-	- 북한의 가격 자유화 미도입
	경기변동 동조화	0	0	-	- 남북한 경기변동 동조 요인이 없음.
	자본시장 통합도	0	0	-	- 북한 자본시장 미도입
계	12.1	10.9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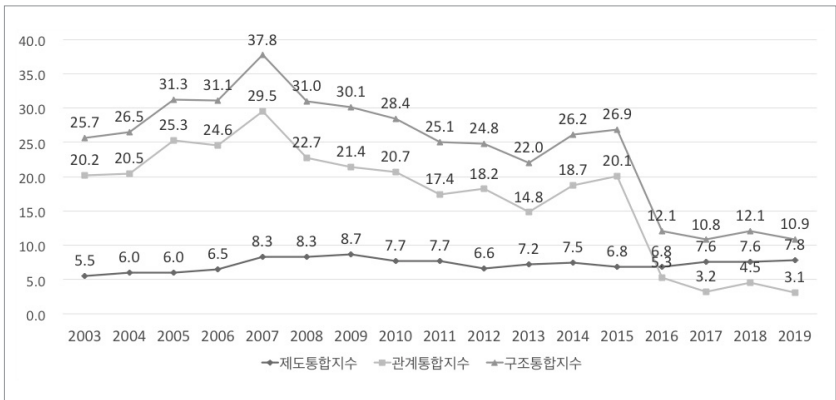
〈표 2-11〉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UN 명목소득 기준)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와 정책 (30)	동일 화폐 사용 (30)	법제 의 시장 경제 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 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 율 수렴 (10)	인플 레이 션 수렴 (10)	경기 변동 동조 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1989	0.0	0.0	1.0	0.1	0.0	0.0	5.0	0.0	1.5	0.0	0.0	0.0	0.0	7.8	0단계
1990	0.0	0.0	1.0	0.1	0.0	0.0	5.0	0.0	0.9	0.0	0.0	0.0	0.0	7.2	0단계
1991	0.0	0.0	1.0	0.9	0.0	0.0	5.0	0.0	0.0	0.0	0.0	0.0	0.0	7.3	0단계
1992	0.0	0.0	2.0	1.4	0.0	0.0	5.0	0.0	0.0	0.0	0.0	0.0	0.0	8.4	0단계
1993	0.0	0.0	2.0	1.5	0.0	0.0	5.0	0.0	0.0	0.0	0.0	0.0	0.0	8.5	0단계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 와 정책 (30)	동일 화폐 사용 (30)	법제 의 시장 경제 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 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 율 수렴 (10)	인플 레이 션 수렴 (10)	경기 변동 동조 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1994	0.0	0.0	2.0	1.9	0.0	0.0	5.0	0.0	0.0	0.0	0.0	0.0	0.0	8.9	0단계
1995	0.0	0.0	2.0	2.8	0.0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6	0.0	0.0	2.0	2.5	0.2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7	0.0	0.0	2.0	2.8	0.0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8	0.0	0.0	5.0	3.0	0.0	0.0	5.0	0.0	0.0	0.0	0.0	0.0	0.0	13.0	1단계
1999	0.0	0.0	5.0	4.1	2.9	0.0	5.0	0.0	0.0	0.0	0.0	0.0	0.0	17.0	1단계
2000	0.0	0.0	5.0	4.0	0.8	0.0	5.0	5.5	0.0	0.0	0.0	0.0	0.0	20.3	1단계
2001	0.0	0.0	5.0	3.4	3.6	0.0	5.0	3.5	0.0	0.0	0.0	0.0	0.0	20.4	1단계
2002	0.0	0.0	5.5	5.0	1.9	0.0	5.0	6.5	0.0	0.0	0.0	0.0	0.0	23.8	2단계
2003	0.0	0.0	5.5	5.2	3.0	0.0	5.0	7.0	0.0	0.0	0.0	0.0	0.0	25.7	2단계
2004	0.0	0.0	6.0	4.4	3.6	0.0	6.0	6.5	0.0	0.0	0.0	0.0	0.0	26.5	2단계
2005	0.0	0.0	6.0	5.8	5.6	0.4	7.0	6.5	0.0	0.0	0.0	0.0	0.0	31.3	3단계
2006	0.0	0.0	6.5	7.0	3.9	0.7	7.0	6.0	0.0	0.0	0.0	0.0	0.0	31.0	3단계
2007	0.0	0.0	8.3	8.5	5.1	1.4	7.0	7.5	0.0	0.0	0.0	0.0	0.0	37.8	3단계
2008	0.0	0.0	8.3	7.2	2.6	2.4	7.0	3.5	0.0	0.0	0.0	0.0	0.0	31.1	3단계
2009	0.0	0.0	8.7	7.4	1.3	2.7	6.5	3.5	0.0	0.0	0.0	0.0	0.0	30.1	2단계
2010	0.0	0.0	7.7	7.1	1.2	2.9	6.0	3.5	0.0	0.0	0.0	0.0	0.0	28.3	2단계
2011	0.0	0.0	7.7	4.8	0.5	3.1	6.0	3.0	0.0	0.0	0.0	0.0	0.0	25.0	2단계
2012	0.0	0.0	6.6	5.0	0.9	3.3	6.0	3.0	0.0	0.0	0.0	0.0	0.0	24.7	2단계
2013	0.0	0.0	7.2	3.0	1.3	1.9	4.1	4.5	0.0	0.0	0.0	0.0	0.0	22.0	2단계
2014	0.0	0.0	7.5	5.3	0.6	3.4	6.0	3.5	0.0	0.0	0.0	0.0	0.0	26.2	2단계
2015	0.0	0.0	6.8	6.8	0.4	3.4	6.0	3.5	0.0	0.0	0.0	0.0	0.0	26.9	2단계

년 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와 정책 (30)	동일 화폐 사용 (30)	법제 의 시장 경제 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 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 율 수렴 (10)	인플 레이 션 수렴 (10)	경기 변동 동조 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2016	0.0	0.0	6.8	1.1	0.2	0.4	0.7	3.0	0.0	0.0	0.0	0.0	0.0	12.1	1단계
2017	0.0	0.0	7.6	0.0	0.2	0.0	0.0	3.0	0.0	0.0	0.0	0.0	0.0	10.8	1단계
2018	0.0	0.0	7.6	0.2	0.3	0.0	0.5	3.5	0.0	0.0	0.0	0.0	0.0	12.1	1단계
2019	0.0	0.0	7.8	0.0	0.1	0.0	0.0	3.0	0.0	0.0	0.0	0.0	0.0	10.9	1단계

〈그림 2-2〉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참조 1] 북한소득 자료를 구매력 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기준으로 할 경우 경제통합지수 산정

- 북한의 국민소득 자료를 김병연·김석진·이근(2007)과 김병연(2008)⁵⁾이 추정한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국민소득(GDP) 통계를 사용할 경우 경제통합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구매력평가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지수를 산정할 경우 ‘투자부문’과 ‘소득수렴 부문’에서 UN명목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지수와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 우선 2019년 투자부문에서는 2018년 대비 0.1점 하락한 0.1점을 부여한다.

〈표 2-12〉 투자부문 상대점수 (구매력 평가소득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정부투자 (남북협력기금)a		민간 투자액 b	남한 전체 투자액 (A)	북한의 국민소득c (B)	남한투자 비중 C=(A/B)*100	상대점수 D=(C*14)/5.87
	경제협력 분야기반 조성 (경상지출)	남북교류 협력지원 (용자)					
1989					45,160	0.00	0.0
1990					41,979	0.00	0.0
1991					40,437	0.00	0.0
1992					36,293	0.00	0.0
1993					34,198	0.00	0.0
1994					34,272	0.00	0.0

5) Byung-Yeon Kim, Suk Jin Kim and Keun Lee, "Assess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orth Korea, 1954-1989: Estimates and growth accounting analysi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5 (2007), pp. 564-582 ; 김병연, "북한의 국민소득: 추정치와 평가", 『수은해외경제』, 2008 가을호, pp. 19~42.

연도	정부투자 (남북협력기금)a		민간 투자액 b	남한 전체 투자액 (A)	북한의 국민소득c (B)	남한투자 비중 $C=(A/B)*100$	상대점수 $D=(C*14)/5.87$
	경제협력 분야기반 조성 (경상지출)	남북교류 협력지원 (옹자)					
1995					31,065	0.00	0.0
1996	4.9		5.0	9.9	30,206	0.03	0.1
1997			1.0	1.0	26,826	0.00	0.0
1998			1.0	1.0	27,801	0.00	0.0
1999			125.0	125.0	30,407	0.41	1.4
2000	14.6		22.0	36.6	28,539	0.13	0.4
2001	89.9	46.0	28.0	163.9	30,442	0.54	1.8
2002	36.8	35.7	12.0	84.5	30,757	0.27	0.9
2003	76.3	54.7	8.0	139.0	31,643	0.44	1.5
2004	76.0	81.4	12.0	169.4	32,020	0.53	1.8
2005	204.5	56.8	45.0	306.3	33,567	0.91	3.1
2006	152.1	71.0		223.1	33,718	0.66	2.3
2007	172.5	140.0		312.5	32,294	0.97	3.3
2008	110.0	36.6		146.6	33,295d	0.44	1.5
2009	41.5	24.0		65.5	32,995	0.20	0.7
2010	17.7	45.2		62.9	32,830	0.19	0.7
2011	12.4	13.0		25.4	33,093	0.08	0.3
2012	23.8	22.1		45.9	33,523	0.14	0.5
2013	11.5	74.6		86.1	33,892	0.25	0.9
2014	20	22.3		42.3	34,231	0.12	0.4
2015	20.6	3.6		24.2	33,854	0.07	0.2
2016	11.5	3.2		14.7	35,175	0.04	0.1
2017	8.64	2.66		11.3	33,944	0.03	0.1
2018	18.1	2.57		20.7	32,552	0.06	0.2
2019	9.44	2.57		12.01	32,682	0.03	0.1

a.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통계』, 각년호 (1,000원 = 1달러 적용).

b. 김영훈, 2006, “남북경협 현황과 평가”, 『금융경제연구』, 제281호.

c. Byung-Yeon Kim, Suk Jin Kim and Keun Lee(2007).

d. 2008년 이후의 북한국민소득은 전년도 통계에 매년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북한 경제 성장률을 곱하여 구함.

- 소득수준 수렴부문에서는 구매력평가 자료에서도 북한소득이 남한소득의 대비 10% 미만으로 상대점수는 0점을 부여한다.

〈표 2-13〉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구매력평가 소득 기준)

(단위: 달러, %)

	북한 ^a	남한 ^b	비율	상대점수
1990	2,076	8,260	25.1%	3.5
1991	1,973	9,330	21.1%	2.6
1992	1,745	10,020	17.4%	2.0
1993	1,619	10,850	14.9%	1.3
1994	1,605	11,970	13.4%	1.1
1995	1,442	13,240	10.9%	0.4
1996	1,393	14,370	9.7%	0.0
1997	1,230	15,300	8.0%	0.0
1998	1,267	14,410	8.8%	0.0
1999	1,377	16,200	8.5%	0.0
2000	1,287	17,950	7.2%	0.0
2001	1,368	19,050	7.2%	0.0
2002	1,375	20,690	6.6%	0.0
2003	1,405	21,290	6.6%	0.0
2004	1,410	22,900	6.2%	0.0
2005	1,464	24,010	6.1%	0.0
2006	1,461	25,730	5.7%	0.0
2007	1,392	27,740	5.0%	0.0
2008	1,430	28,650	5.0%	0.0
2009	1,410	28,250	5.0%	0.0
2010	1,395	30,410	4.6%	0.0
2011	1,399	31,410	4.5%	0.0
2012	1,411	32,430	4.4%	0.0

	북한 ^a	남한 ^b	비율	상대점수
2013	1,420	32,850	4.3%	0.0
2014	1,427	33,690	4.2%	0.0
2015	1,404	35,300	4.0%	0.0
2016	1,453	36,730	4.0%	0.0
2017	1,395	38,340	3.6%	0.0
2018	1,388	40,090	3.5%	0.0
2019	1,394	43,430	3.2%	0.0

- a. Byung-Yeon Kim, Suk Jin Kim and Keun Lee(2007) ; Byung-Yeon Kim(2008).
b. World bank, "GNI per capita, PPP (current international \$)",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NP.PCAP.PP.CD, 검색일 2020.12.17).
c. 2008년 이후 북한의 소득은 전년도 소득에 매년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북한 경제 성장률을 곱하여 구함.

■ 구매력평가 소득을 기준으로 한 2019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1.1점 하락한 10.9점을 기록하였고, 이는 통합단계로 1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표 2-14〉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구매력평가 소득기준)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와 정책 (30)	동일 화폐 사용 (30)	법제 의 시장 경제 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 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 율 수렴 (10)	인플 레이션 수렴 (10)	경기 변동 조 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1989	0.0	0.0	1.0	0.1	0.0	0.0	5.0	0.0	1.7	0.0	0.0	0.0	0.0	7.8	0단계
1990	0.0	0.0	1.0	0.1	0.0	0.0	5.0	0.0	1.1	0.0	0.0	0.0	0.0	7.2	0단계
1991	0.0	0.0	1.0	0.9	0.0	0.0	5.0	0.0	0.4	0.0	0.0	0.0	0.0	7.3	0단계
1992	0.0	0.0	2.0	1.4	0.0	0.0	5.0	0.0	0.0	0.0	0.0	0.0	0.0	8.4	0단계
1993	0.0	0.0	2.0	1.5	0.0	0.0	5.0	0.0	0.0	0.0	0.0	0.0	0.0	8.5	0단계
1994	0.0	0.0	2.0	1.9	0.0	0.0	5.0	0.0	0.0	0.0	0.0	0.0	0.0	8.9	0단계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와 정책 (30)	동일 화폐 사용 (30)	법제 의 시장 경제 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 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 율 수렴 (10)	인플 레이션 수렴 (10)	경기 변동 동조 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1995	0.0	0.0	2.0	2.8	0.0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6	0.0	0.0	2.0	2.5	0.2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7	0.0	0.0	2.0	2.8	0.0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8	0.0	0.0	5.0	3.0	0.0	0.0	5.0	0.0	0.0	0.0	0.0	0.0	0.0	13.0	1단계
1999	0.0	0.0	5.0	4.1	1.4	0.0	5.0	0.0	0.0	0.0	0.0	0.0	0.0	15.5	1단계
2000	0.0	0.0	5.0	4.0	0.4	0.0	5.0	5.5	0.0	0.0	0.0	0.0	0.0	19.9	1단계
2001	0.0	0.0	5.0	3.4	1.8	0.0	5.0	3.5	0.0	0.0	0.0	0.0	0.0	18.7	1단계
2002	0.0	0.0	5.5	5.0	0.9	0.0	5.0	6.5	0.0	0.0	0.0	0.0	0.0	22.9	2단계
2003	0.0	0.0	5.5	5.2	1.5	0.0	5.0	7.0	0.0	0.0	0.0	0.0	0.0	24.2	2단계
2004	0.0	0.0	6.0	4.4	1.8	0.0	6.0	6.5	0.0	0.0	0.0	0.0	0.0	24.7	2단계
2005	0.0	0.0	6.0	5.8	3.1	0.5	7.0	6.5	0.0	0.0	0.0	0.0	0.0	28.9	2단계
2006	0.0	0.0	6.5	7.0	2.3	0.7	7.0	6.0	0.0	0.0	0.0	0.0	0.0	29.4	2단계
2007	0.0	0.0	8.3	8.5	3.3	1.4	7.0	7.5	0.0	0.0	0.0	0.0	0.0	36.0	3단계
2008	0.0	0.0	8.3	7.2	1.5	2.4	7.0	3.5	0.0	0.0	0.0	0.0	0.0	30.0	2단계
2009	0.0	0.0	8.7	7.4	0.6	2.7	6.5	3.5	0.0	0.0	0.0	0.0	0.0	29.4	2단계
2010	0.0	0.0	7.7	7.1	0.6	2.9	6.0	3.5	0.0	0.0	0.0	0.0	0.0	27.8	2단계
2011	0.0	0.0	7.7	4.8	0.3	3.1	6.0	3.0	0.0	0.0	0.0	0.0	0.0	24.9	2단계
2012	0.0	0.0	6.6	5.0	0.5	3.3	6.0	3.0	0.0	0.0	0.0	0.0	0.0	24.5	2단계
2013	0.0	0.0	7.2	3.0	0.9	1.9	4.1	4.5	0.0	0.0	0.0	0.0	0.0	21.6	2단계
2014	0.0	0.0	7.5	5.3	0.4	3.4	6.0	3.5	0.0	0.0	0.0	0.0	0.0	26.1	2단계
2015	0.0	0.0	6.8	6.8	0.2	3.4	6.0	3.5	0.0	0.0	0.0	0.0	0.0	26.8	2단계
2016	0.0	0.0	6.8	1.1	0.1	0.4	0.7	3.0	0.0	0.0	0.0	0.0	0.0	12.1	1단계
2017	0.0	0.0	7.6	0.0	0.1	0.0	0.0	3.0	0.0	0.0	0.0	0.0	0.0	10.7	1단계
2018	0.0	0.0	7.6	0.2	0.2	0.0	0.5	3.5	0.0	0.0	0.0	0.0	0.0	12.0	1단계
2019	0.0	0.0	7.8	0.0	0.1	0.0	0.0	3.0	0.0	0.0	0.0	0.0	0.0	10.9	1단계

2. 정치

가. 지수구성

■ 정치영역의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인과 배점은 아래와 같다.

〈표 2-15〉 정치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영역	변인	배점
제도적 통합	· 정치·군사의 공동집행기구	30
	· 정치제도의 단일화	30
	· 정치분야 남북 법제화	30
	소계	90
관계적 통합	· 실무정치회담	20
	· 고위급 정치회담	20
	· 군사회담	20
	· 의회회담	20
	· 대화·회담의 정례화	10
	·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	20
	· 정치분야 공동행사	10
	· 국제사회에서 외교군사적 협력	10
	· 군비축소	10
	·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10
	· 상대체제인정 행위	10
		소계
합계		250

■ 이상의 변인들에 부여된 점수를 가산하여 정치통합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11단계로 구분한다.

- 0단계 (정치적 대화· 회담 등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 10점 이하
- 1단계 (대화· 회담 등 교류가 있으나 빈도 및 비중이 낮음): 11-20점

- 2단계 (대화·회담 등 교류의 빈도·비중이 높음): 21-40점
- 3단계 (대화·회담 등 교류의 비중이 높으며, 교류의 의제가 포괄적): 41-60점
- 4단계 (3단계+매개제도의 구성과 활동): 61-80점
- 5단계 (4단계+매개제도의 정례화·제도화 진행): 81-100점
- 6단계 (5단계+매개제도의 역할 최대화): 101-130점
- 7단계 (6단계+남북공동집행기구 구성과 활동): 131-160점
- 8단계 (7단계+대부분의 정치활동을 공동집행기구 및 제도에 위임): 161-190점
- 9단계 (8단계+모든 정치활동을 공동집행기구 및 제도에 위임): 191-220점
- 10단계 (9단계+실질적인 정치통합): 221-250점

■ 남북통합 수준을 단계로 구분하면, 남북 접촉·교류기(0~2단계), 남북 협력도약기(3~5단계), 남북연합기(6~8단계), 통일 완성기(9~10단계)로 구분된다. 남북통합은 3단계, 6단계, 9단계에서 질적으로 도약(take-off)한다. 마지막의 실질적인 통일 시기는 남북 간 정치분야에서 민주화·제도화·단일화 등이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실현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나. 제도통합지수

- 정치통합은 구조통합과 의식통합으로 구분하며, 구조통합은 다시 제도통합과 관계통합의 두 차원으로 구성한다.
- 먼저 제도적 측면의 정치통합, 즉 제도통합은 남북의 정치행위를 규제·규정하는 공동의 집행기구가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공동기구가 실질적인 통치기능을 발휘하는가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또 남북한의 정치제도가 상호 동질화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제도통합의 중요한 변인으로 설정한다. 정치제도의 동질화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정치제도가

다원주의 정치체제로 변화하는 방향으로 남북의 정치제도가 동질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구체적으로는 북한 정치제도의 민주화 정도를 측정변인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제도적 통합은 남북한간 공동집행기구(정치·군사)의 구성과 활성화, 남북 정치제도의 단일화, 정치 분야의 남북 공동법제화 등의 변인을 포함한다.

〈표 2-16〉 정치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통합영역	지표	세부지표	배점
제도적 통합 (총 90점)	남북공동집행기구	남북정치공동기구	15
		남북군사공동기구	15
	남북정치제도의 단일화	북한 유일지도체계의 변화	10
		북한의 복수후보 선거	10
북한 정당결성의 자유		10	
남북한 공동법제화	북한 정치법제의 실효성	15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	15	

1) 남북공동정치기구의 구성과 활성화

- 정치와 군사 영역에서 각 15점씩 배정하고, 점수부여 방식은 기구구성 논의 5점, 기구구성 추진 5점, 기구의 활성화 5점으로 배정하며 각각의 요소에 대해 진전 정도와 수준에 따라 1~5점을 차별적으로 부여한다.
- 남북 통합지수에서 가정한 정치 분야의 공동 집행기구란 추후 남북 연합이나 남북 연방과 같이 통합된 정치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의 정치 활동을 공동으로 규제하고 통제할 중앙집행기구로서, 그동안 남북 간에는 공식적인 중앙집행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바 없다.
- 따라서 2019년 정치와 군사영역에서 공동정치기구의 구성에 대한 점수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0점이다.

2)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변인은 수령과 당의 유일지도체계가 변화하는가(10점), 복수후보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지는가(10점), 자유로운 정당결성의 자유가 존재하는가(10점) 등을 기준으로 30점을 배정하고, 각각의 논의가 진행되는 정도, 즉 당이나 정치권에서 논의 및 토론 시작(2.5점), 부분적인 변화 발생(2.5점), 광범위한 변화 발생(2.5점), 법제화 (2.5점)의 진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2019년의 북한의 정치제도는 과거와 비교할 때, 기존의 선군정치나 병진노선으로부터 당 중심의 당국가 체제로 변화하는 움직임이 지속되었다. 2019년에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만에 처음으로 군 인사를 배제하고 정치국 상무위원회 5인 체제를 구성하는 등 당내 군의 세력과 권력이 약화되었으며, 점진적으로 당 공식 회의들이 정례화 되었고 공식 회의를 통해 국정 전반 문제가 토의 결정되고 간부가 교체되었다. 신년사에서부터 자력갱생과 국가경제발전, 인민생활의 향상을 강조했으며 경제발전에 매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천명하였다.
- 이러한 변화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의 세 가지 자원(군사, 정치, 경제)에서 정치와 경제의 중요성이 꾸준히 커지는 방향의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수령과 당의 유일지도체제는 유지되고 있지만, 점차 군의 중요성보다 당과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당에 의한 통치가 제도화되어가는 양상이 보였다.
-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제1차회의를 통해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군보다는 정치와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경쟁적인 선거와 같은 방향으로의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2018년과 같이 체제의 운영 방향이나 방식이 기존과 달라지고 있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2019년 정치제도 단일화 부문의 점

수는 전년과 동일한 1.5점이다.

3) 남북한 공동법제화

■ 남북한 정치 관련 공동법제화는 크게 법제화의 수준(15점)과 법제의 실효성(15점)으로 구분된다. 정치분야 공동 법제화 수준은 다시 북한의 법제화 수준(5점), 남북한 간 법제의 수렴도(5점), 남북한 공동법제의 구속력 수준(5점) 등 세 항목으로 구성하며, 2020년 11월~12월 10명의 북한 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정치분야 남북한 법제화 수준은 15점 만점 중 6.2점이다.

〈표 2-17〉 북한 정치관련 법제화 정도

세부 지표	평균점수 (항목별 10점 만점)	상대점수 (항목별 5점 만점)	법제화 수준 (합계/15점 만점)
정치분야 북한의 법제화 수준	5.7	2.9	6.2/15
정치분야 남북간 법제의 수렴도	2.9	1.5	
정치분야 남북 공동법제의 구속력	3.5	1.8	

■ 법제의 실효성은 북한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민주화 관련 기본법 조항들이 실제로 현실사회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의 여부로 판단한다. 측정 지표와 배점은 아래와 같다. 문헌조사와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15점 만점 중 피선거권이나 정치적 자유에서는 여전히 억압적인 반면, 구속과 체포의 법적 보장 측면에서는 형법과 관련법이 개정되어 2004년부터 조금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8년과 비교할 때 특별히 나아진 것으로 없으므로 2019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는 1.0점을 부여한다.

〈표 2-18〉 북한 정치관련 법제의 실효성 정도

구분	헌법조항(98년)	실효성 점수
피선거권	17살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제66조)	0/5
정치적 자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제67조)	0/5
구속·체포의 법적 보장	국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국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79조)	1/5
합계		1/15

※ 실효성 점수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0점, '거의 없다'=1점, '약간 있다'=2점, '보통 이상이다'=3점, '상당히 크다'=4점, '전면적 효력이 있다'=5점으로 구분

■ 이상으로 남북한의 공동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표 2-19〉와 같다. 북한의 법제화 수준, 남북한 법제의 수렴도 및 공동법제의 구속력에 대해 법학자들이 평가한 점수에 북한법제의 실효성을 합한 점수를 산출한다. 2019년의 경우,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남북의 법제화 점수 6.2점과 북한법제의 실효성 1점을 합하여 최종 점수는 7.2점이 된다.⁶⁾

6) 1989~2007년 기간의 점수 산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합지수 1989~2007」 참고, 2008년 이후는 연도별 남북통합지수 보고서 참고

〈표 2-19〉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

연도	법제화 수준 (15)	북한법제 실효성 (15)	가중치 총점
1989	1.0	0	1
1990	1.0	0	1
1991	1.0	0	1
1992	2.0	0	2
1993	2.5	0	2.5
1994	2.6	0	2.6
1995	3.1	0	3.1
1996	3.2	0	3.2
1997	3.3	0	3.3
1998	3.8	0	3.8
1999	4.3	0	4.3
2000	4.4	0	4.4
2001	4.5	0	4.5
2002	4.6	0	4.6
2003	4.7	0	4.7
2004	5.0	1	6.0
2005	5.1	1	6.1
2006	5.2	1	6.2
2007	5.3	1	6.3
2008	5.3	1	6.3
2009	5.4	1	6.4
2010	4.8	1	5.8
2011	4.8	1	5.8
2012	4.5	1	5.5
2013	4.9	1	5.9
2014	4.9	1	5.9
2015	4.5	1	5.5
2016	4.8	1	5.8
2017	5.8	1	6.8
2018	6.0	1	7
2019	6.2	1	7.2

4) 제도통합지수 종합

■ 정치영역의 제도통합지수는 남북공동집행기구 및 남북한 정치체도의 단일화,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의 합계로 산정된다. 2019년에는 남북간의 공동집행기구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으므로 공동집행기구 점수는 0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군의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당에 의한 정치가 제도화되었으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중시하는 흐름이 지속되었지만, 헌법이나 당규약 개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해 2019년 단일제도화 점수는 작년과 동일한 1.5점을 부여한다.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법제화 측면과 실효성 측면을 합한 7.2점을 부여한다. 위의 점수를 나타낸 제도통합지수는 아래 <표 2-20>과 같다.

<표 2-20> 정치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연도	공동집행기구 (30)	단일제도화 (30)	공동법제화 (30)	합계 (90)
1989	0	0	1.0	1.0
1990	0	0	1.0	1.0
1991	0	0	1.0	1.0
1992	0	0	2.0	2.0
1993	0	0	2.5	2.5
1994	0	0	2.6	2.6
1995	0	0	3.1	3.1
1996	0	0	3.2	3.2
1997	0	0	3.3	3.3
1998	0	0	3.8	3.8
1999	0	0	4.3	4.3
2000	0	0	4.4	4.4
2001	0	0	4.5	4.5
2002	0	0	4.6	4.6
2003	0	0	4.7	4.7
2004	0	0	6.0	6.0

연도	공동집행기구 (30)	단일제도화 (30)	공동법제화 (30)	합계 (90)
2005	0	0	6.1	6.1
2006	0	0	6.2	6.2
2007	0	0	6.3	6.3
2008	0	0	6.3	6.3
2009	0	0.5	6.4	6.9
2010	0	1.0	5.8	6.8
2011	0	1.0	5.8	6.8
2012	0	1.0	5.5	6.5
2013	0	0.5	5.9	6.4
2014	0	0.5	5.9	6.4
2015	0	0.5	5.5	6.0
2016	0	0.5	5.8	6.3
2017	0	0.5	6.8	7.3
2018	0	1.5	7.0	8.5
2019	0	1.5	7.2	8.7

다. 관계통합지수

- 정치영역의 관계통합은 남북 간의 실무정치회담, 고위급정치회담, 군사 회담, 의회회담, 정치분야 공동행사, 위원회 존재 및 합의문·공동선언 발표 등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 대화·회담의 정례화, 국제사회에서의 외교군사적 협력, 군비축소,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사통합 정도, 상대 체제 인정행위 등의 변인을 포함한다.
- 각종 정치회담이 관계통합의 변인으로 많이 포함된 것은 다양한 수준에서의 정치대화와 협상, 합의 등의 활동이 남북 간 정치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함으로써 공동정치기구의 구성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유력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정치, 외교, 군사 분야에서 이러한 대화와 회담이 어

는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가 하는 측면과 그러한 대화와 회답이 위원회 구성 및 정례화 등으로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변인을 포함한다.

1) 실무정치회담

■ 2019년도에는 실무정치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9년도 실무정치회담 점수는 0점을 부여한다.

〈표 2-21〉 실무정치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연도	실무정치회담(횟수)	가중치(×0.2점)
1989	5	1.0
1990	11	2.2
1991	10	2.0
1992	77	15.4
1993	4	0.8
1994	10	2.0
1995	0	0.0
1996	0	0.0
1997	0	0.0
1998	2	0.4
1999	3	0.6
2000	13	2.6
2001	0	0.0
2002	2	0.4
2003	1	0.2
2004	0	0.0
2005	6	1.2
2006	3	0.6
2007	9	1.8

연도	실무정치회담(횟수)	가중치(×0.2점)
2008	0.2	0.0
2009	4	0.8
2010	0	0.0
2011	0	0.0
2012	0	0.0
2013	1	0.2
2014	1	0.2
2015	0	0.0
2016	0	0.0
2017	0	0.0
2018	7	1.4
2019	0	0.0

※ 자료 : 남북회담 홈페이지 dialogue.unikorea.go.kr

2) 고위급 정치회담

- 2019년도에는 고위급 정치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9년 고위급 정치회담 점수는 0점을 부여한다.

〈표 2-22〉 고위급 정치회담 연도별 횟수 및 점수

연도	정상회담	총리회담	장관급회담	차관급회담	횟수 총계	가중치 총점
가중치	×5점	×2점	×1.5점	×0.8점		
1989					0	0
1990		3			3	6
1991		2			2	4
1992		3			3	6
1993					0	0
1994					0	0

연도	정상회담	총리회담	장관급회담	차관급회담	횟수 총계	가중치 총점
1995					0	0
1996					0	0
1997					0	0
1998					0	0
1999				2	2	1.6
2000	1		4		5	11
2001			2		2	3.0
2002			2		2	3.0
2003			4		4	6
2004			2		2	3.0
2005			3	1	4	5.3
2006			2		2	3.0
2007	1	1	2		4	10
2008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2010	0	0	0	0	0	0
2011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2013	0	0	0	0	0	0
2014	0	0	1	0	1	1.5
2015	0	0	1	1	2	2.3
2016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2018	2.5	0	8	0	11	20
2019	0	0	0	0	0	0

* 2018년 5월 26일 남북정상회담은 약식회담으로 진행되어 1/2의 점수 부여하며 산출된 가중치 점수는 24.5점이나 배점 체계상의 만점이 20점이므로 20점을 부여함.

3) 군사회담

- 2019년도에는 군사분야 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9년 군사분야 회담 점수는 0점을 부여한다.

〈표 2-23〉 군사분야 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연도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횟수 총계	가중치 총점
가중치	×2점	×1점	×0.4점		
1989				0	0
1990				0	0
1991				0	0
1992				0	0
1993				0	0
1994				0	0
1995				0	0
1996				0	0
1997				0	0
1998				0	0
1999				0	0
2000	1		3	4	3.2
2001			2	2	0.8
2002			9	9	3.6
2003			6	6	2.4
2004		2	3	5	3.2
2005			3	3	1.2
2006		2	2	4	2.8
2007	1	3	7	11	7.8
2008	0	0	2	2	0.8
2009	0	0	0	0	0
2010	0	0	2	2	0.8

연도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횟수 총계	가중치 총점
2011	0	0	1	1	0.4
2012	0	0	0	0	0
2013	0	0	0	0	0
2014	0	0	1	1	0.4
2015	0	0	0	0	0
2016	0	0	0	0	0
2017	0	0	0	0	0
2018	0	3	1	4	3.4
2019	0	0	0	0	0

※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unikorea.go.kr

4) 의회회담

■ 2019년에 남북 간 국회 교류나 의회 회담, 정당 회담은 개최되지 못했다. 따라서 점수는 0점이며, 정당 교류와 정치인 교류도 없었으므로 총 점수는 0점이다.

〈표 2-24〉 의회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연도	국회회담	의회교류	정당간 회담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실무회담 실무접촉	정치인 교류	가중치 총점
가중치	×4점	×3점	×2점	×1점	×0.4점	×0.2점	
1989					2		0.8
1990					1		0.4
1991						1	0.2
1992							0
1993							0
1994							0
1995							0

연도	국회회담	의회교류	정당간 회담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실무회담 실무접촉	정치인 교류	가중치 총점
1996							0
1997							0
1998							0
1999						1	0.2
2000						3	0.6
2001						2	0.4
2002						3	0.6
2003						2	0.4
2004					1	4	1.2
2005				1		2	1.4
2006			1			3	2.6
2007						9	1.8
2008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1	0.2
2010	0	0	0	1	0	0	0.2
2011	0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0
2013	0	0	0	0	0	0	0
2014	0	0	0	0	0	0	0
2015	0	0	0	0	0	0	0
2016	0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0
2018	0	0	0	0	0	0	0
2019	0	0	0	0	0	0	0

〈표 2-25〉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관련 점수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가중치
1. 집권여당 간 교류	×1점
2. 제1야당 간 교류	×0.4점
3. 군소정당 간 교류	×0.2점

5) 정치분야 공동행사

- 2019년에는 남북 간 정상회담과 다양한 실무회담을 통해 민간 분야 공동 행사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개최된 바 없으므로 0점이다.

〈표 2-26〉 정치분야 공동행사

연도	3·1절 공동행사	6·15 공동행사	8·15 공동행사	10·3 개천절 공동행사	가중치 총점
2001	-	(민간)	(민간)-평양		0
2002	-	(민간)	(민간)-서울		0
2003	(민간)-서울	미개최	(민간)-평양		0
2004	-	(민간)-인천	조문파동 무산		0
2005	-	남측 당국대표단 (40명)- 평양	북측 당국대표단 (17명)- 서울		5
2006	-	북측 당국대표단 (19명), 남측 당국대표단 (13명)- 광주	수해로 미개최		2.5
2007	-	남측 국회의원 10명- 평양	을지훈련 등 이유 북한불참-미개최		2.5
2008	-	-	-	-	0
2009	-	-	-	-	0
2010	-	남측 공동행사 불허 각기 공동행사	-	-	0
2011	-	-	-	-	0

연도	3·1절 공동행사	6·15 공동행사	8·15 공동행사	10·3 개천절 공동행사	가중치 총점
2012	-	-	-	-	0
2013	-	-	-	-	0
2014	-	-	-	-	0
2015	-	-	-	-	0
2016	-	-	-	-	0
2017	-	-	-	-	0
2018	-	-	-	-	0
2019	-	-	-	-	0

※ 자료 : 김치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공동행사에 관한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통일부, 「통일백서」 2006, 2007, 2008; 2009년-2017년 공동행사 참여여부는 통일부 홈페이지(unikorea.go.kr) 보도자료와 신문기사 참조.

6)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

■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는 위원회, 회담체 등 매개제도의 존재(10점), 매개제도의 활동 결과로 나타난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의 횟수(10점)로 평가한다. 우선, 남북 정치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는 매개제도는 정치, 군사, 외교(핵 통제)의 세 영역에 대한 위원회나 회담체의 존재를 의미한다. 정치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외교공동위원회의 형태로 매개기구가 존재할 수 있고, 혹은 장관급회담, 장성급회담 등의 회담체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 따라서 매개제도의 영역을 정치회담, 군사회담, 외교회담의 3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회담기구(위원회 또는 회담체)의 존재 유무로 점수를 부여한다. 매개기구의 배점은 정치, 군사, 외교의 영역에서 각각 3점씩 부여하여 총 9점을 주고, 나머지 1점을 매개기구의 존재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1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 2018년에는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었고, 9월 14일에는 가시적인 매개체로서 상설 연락기구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가 설립되어 2019년에도 운영되면서 각종 회담, 협의 업무, 교류 협력을 지원했다.

■ 하지만 2019년에는 남북간의 정상회담이나 공동위원회의 개최, 그에 따른 공동보도문의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각 매개체도의 가중치를 반영한 2019년 매개체도의 구성과 활동 부문 점수는 3점이다.

〈표 2-27〉 매개체도의 구성과 활동 부문 점수

연도	공동위원회	합의서	공동보도문	가중치 총점
가중치	×3점	×0.5점	×0.3점	
1989	0	0	0	0
1990	0	1	0	0.5
1991	0	1	2	1.1
1992	3	10	1	14.3
1993	0	0	0	0
1994	0	2	0	1
1995	0	1	0	0.5
1996	0	0	0	0
1997	0	0	0	0
1998	0	0	0	0
1999	0	1	0	0.5
2000	2	7	5	11
2001	2	0	1	6.3
2002	2	0	4	7.2
2003	2	0	4	7.2
2004	2	1	2	7.1
2005	2	2	4	8.2
2006	2	1	1	6.8

연도	공동위원회	합의서	공동보도문	가중치 총점
2007	2	5	3	9.4
2008	1	0	0	3
2009	0	0	1	0.3
2010	0	0	0	0
2011	0	0	0	0
2012	0	0	0	0
2013	0	0	0	0
2014	0	0	1	0.3
2015	0	0	2	0.6
2016	0	0	0	0
2017	0	0	0	0
2018	1	4	6	4.8
2019	1	0	0	3

7) 대화·회담의 정례화

- 2019년에는 정치분야 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다. 이에 대화·회담의 정례화 부문에 대한 평가점수는 0점이다.

〈표 2-28〉 대화·회담의 정례화 수준 평가 방법

점수	정례화 수준	설명
0점	전혀 되어있지 않음	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으며 다음 회담 일정도 잡혀 있지 않음. 빠른 시일 내에 혹은 몇 개월 안에 접촉을 재개하기로 하는 방식
2.5점	약간 정례화	정기적 회담 개최가 문서로 약속되어 있으나 실행되지는 않으며 다음 회담 일정을 문서화하는 방식으로 진행
5점	중간정도(보통) 정례화	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편이며 다음 회담 일정이 문서화되어 있음
7.5점	상당한 수준으로 정례화	정기적 개최 방식으로 회담이 진행되는 비중이 높음
10점	완벽한 수준으로 정례화	정례화된 회담 개최 방식이 안정적으로 진행됨

〈표 2-29〉 대화·회담의 정례화 부문 점수

연도	정례화 수준 (10)	연도	정례화 수준 (10)
1989	0	2005	2.5
1990	2.5	2006	2.5
1991	2.5	2007	2.5
1992	2.5	2008	0
1993	0	2009	0
1994	0	2010	0
1995	0	2011	0
1996	0	2012	0
1997	0	2013	0
1998	0	2014	0
1999	0	2015	0
2000	2.5	2016	0
2001	2.5	2017	0
2002	2.5	2018	2.5
2003	5	2019	0
2004	2.5		

8) 국제사회에서의 외교군사적 협력

■ 국제사회에서 남북 외교군사적 협력은 4자회담이나 6자회담,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제네바군축회의(CD) 등의 국제적 외교·군사회담에 남북이 함께 참여한 경우, 그리고 유엔이나 국제기구의 회의에서 남북한이 상대방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선거지원 등을 포함한다. 외교군사 분야의 협력은 1회당 1점을 부과하고 비군사외교 분야에서 남북의 국제협력은 0.5점으로 처리하며 총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 2019년에는 2월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6월의 판문점 남북미정상회담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12월의 한중일 정상회의 등 비

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외교군사적 분야에서 남북한 간 협력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2019년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의 외교·군사적 협력은 0점이다.

〈표 2-30〉 국제사회에서 외교군사적 협력 횟수 및 점수

연도	4자회담	6자회담	ARF	CD	기타	가중치 총점
가중치	×0.5점	×0.5점	×0.5점	×0.5점	×0.2점	
1989						0
1990						0
1991					2	0.4
1992					2	0.4
1993					3	0.6
1994					1	0.2
1995						0
1996				1	1	0.7
1997		7			1	3.7
1998		4			1	2.2
1999		5				2.5
2000			1		1	0.7
2001			1			0.5
2002			1			0.5
2003		1	1			1.0
2004		4	1			2.5
2005		3	1		2	2.4
2006		1	1			1.0
2007		4	1		2	2.9
2008		2	1		0	1.5
2009			0			0
2010			0			0
2011			2		1	1.2

연도	4자회담	6자회담	ARF	CD	기타	가중치 총점
2012			0			0
2013	0	0	0	0	0	0
2014	0	0	0	0	0	0
2015	0	0	0	0	0	0
2016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2018	0	0	0	0	0	0
2019	0	0	0	0	0	0

※ 자료 : 『1999년 국방백서』, 245~246쪽; 『2003참여정부국방정책』, 165~170쪽;

※ 자료 : 『2004 국방백서』, 46~47쪽.

9) 군축

■ 군축변인은 남북한 병력 수 190만 명 이상을 0점으로 하고 40만 명을 10 점으로 하여 병력감축 수에 따라 비례로 점수를 부여한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2019년 남북한 통합병력 수는 183.5만여 명으로 병력감축 수준은 0.4점으로 계산된다. 이는 2018년 0.1점에 비해 0.3점 상승한 점수로, 남한 정부의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른 군비통제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 2-31> 남북한의 연도별 병력 수 및 병력감축 수준 부문 점수

연도	남한 병력	북한 병력	병력 합계 (a)	190만 명-a (b)	군축 점수 (b÷15만)
1989	65만 명	98만 명	163만 명	27.0	1.8
1990	65.5만 명	99만 명	164.5만 명	25.5	1.7
1991	65.5만 명	99.5만 명	165만 명	25.0	1.7
1992	65.5만 명	101만 명	166.5만 명	23.5	1.6
1993	65.5만 명	103만 명	168.5만 명	21.5	1.4
1994	65.5천 명	104만 명	169만 명	21.0	1.4
1995	65.5천 명	104만 명	169만 명	21.0	1.4
1996	69만 명*	105.5만 명	174.5만 명	15.5	1.0
1997	69만 명	114.7만 명	183.7만 명	6.3	0.4

연도	남한 병력	북한 병력	병력 합계 (a)	190만 명-a (b)	군축 점수 (b÷15만)
1998	69만 명	116만 명	185만 명	5.0	0.3
1999	69만여 명	117만여 명	186만여 명	4.0	0.3
2000	69만여 명	117만여 명	186만여 명	4.0	0.3
2001	69만여 명	117만여 명	186만여 명	4.0	0.3
2002	69.1만여 명	117만여 명	186.1만여 명	3.9	0.3
2003	69.1만여 명	117만여 명	186.1만여 명	3.9	0.3
2004	68.1만여 명	117만여 명	185.1만여 명	4.9	0.3
2005	68.1만여 명	117만여 명	185.1만여 명	4.9	0.3
2006	67.4만여 명	117만여 명	184.4만여 명	5.6	0.4
2007	67.4만여 명	117만여 명	184.4만여 명	5.6	0.4
2008	65.5만여 명	119만여 명	184.5만여 명	5.5	0.4
2009	65만여 명	122만여 명	187만여 명	3.0	0.2
2010	65만여 명	119만여 명	184만여 명	6.0	0.4
2011	65만여 명	119만여 명	184만여 명	6.0	0.4
2012	63.9만여 명	119만여 명	182.9만여 명	7.1	0.5
2013	63.3만 명	119만여 명	182.3만여 명	7.7	0.5
2014	63만여 명	120만여 명	183만여 명	7.0	0.5
2015	63만여 명	120만여 명	183만여 명	7.0	0.5
2016	62.5만여 명	128만여 명	190.5만여 명	-0.5	0.0
2017	59.9만여 명	128만여 명	187.9만여 명	2.1	0.1
2018	59.9만여 명	128만여 명	187.9만여 명	2.1	0.1
2019	55.5만여 명	128만여 명	183.5만여 명	6.5	0.4

* 1996년 남한의 병력 3만 5천 증가는 방위병 제도 폐지에 따른 방위병 현역화로 인한 것임, 『1996~1997년 국방백서』

※ 자료 : 1988~2000년 각 연도 『국방백서』; 2001~ 2003년은 국방백서 발간 중단으로 국방정책 소개책자; 2004년부터 격년 발간 『국방백서』

※ 2013년 자료 :

1. 남한 병력 - 『국방개혁 기본계획 14~30』 13쪽, 2014년 발행. ‘국방부 홈페이지-정보공개-간행물-정책자료집’에서 열람. 국방부 홈페이지 안에서 2013년 말 병력이 ‘63.3만 명’으로 표기된 e-book 『국방개혁 기본계획 14~30』을 찾아서 위 표에 반영하였음.

2. 북한 병력 - 『2012 국방백서』

※ 2019년 자료 : 『2020 국방백서』, 290쪽(2020년 12월 기준).

10)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점수는 상호 군사적 대결 혹은 긴장고조를 기준으로 한 평가로 2010년에 만들어진 항목이다. 신설한 군사적 긴장완화 관련부문 점수는 다음 <표 2-32>와 같이 배점을 정한다.
-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점수는 군사적 긴장 및 상호 대치가 없는 상태에 기본점수 5점을 부여하고 긴장의 고조에 따라 점수를 낮추고 상호통합의 정도가 증가하는 데 따라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전면전에 돌입한 상태를 최저점인 0점으로 계산하고 군사적 대결과 불신이 해소된 상호통합도가 완벽한 상태를 최고점인 10점으로 기록한다. 이 항목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긴장완화 혹은 긴장고조로 상호통합의 정도가 순행 또는 역행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이 부문의 점수가 추가되었으며 신설 항목을 위해 정례화 점수를 10점으로 축소하고 새롭게 10점을 확보하였다. 또한 점수가 새롭게 변화되면서 정치분야의 관계적 통합지수 역시 총점이 변화되었다.
-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항목을 새롭게 개발한 것은 상대체제 인정 행위를 전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평가해오던 기존의 평가가 현실과 괴리가 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표 2-32〉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배점

점수	내용
10점	군사적 협력이 완벽히 이루어진 상태임
9.5점	군사적 협력이 거의 이루어진 상태임
9점	군사적 대처 상태가 현저히 완화되고 군사적 협력이 추진되어 중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8.5점	군사적 대처 상태가 완화되고 군사적 협력이 추진되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8점	군사적 대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추진되어 현저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군사적 협력이 시도되는 상태임
7.5점	군사적 대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추진되어 중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7점	군사적 대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추진되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6.5점	군사적 대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보다 집중적으로 시도되는 상태임
6점	군사적 대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시도되는 초기 상태임
5.5점	군사적 대처 상황은 지속되나 상대방에 대한 의도적 긴장 유발 행위는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임
5점	군사적 대처 상황은 지속되나 상대방에 대한 의도적 긴장 유발 행위는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임
4.5점	라디오, 신문,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통한 상대방에 대한 심리전을 전개하는 긴장 상태임
4점	공식 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한 상호 구두위협을 통한 긴장 조성의 상태임
3.5점	선박 나포, 억류 등과 같은 사건을 통해 보다 직접적인 일방적 행위가 일어나는 긴장 상태임
3점	전방에서의 전투부대 재배치 등 군사 이동 및 동원이 일어나고 상호 경계선에 대한 침범과 핵공격 위협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임
2.5점	상대방 영토에 대한 총격 및 포격이 일어나는 긴장 상태임
2점	일방적 사격 및 포격이 아닌 공격 및 대응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로, 사상자가 0~10명에 이르는 경우임. 미사일 발사 등 긴장 조성 행위를 포함
1.5점	일방적 사격 및 포격이 아닌 공격 및 대응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로, 사상자가 10~50명에 이르는 경우임
1점	일방적 사격 및 포격이 아닌 공격 및 대응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로, 사상자가 50명 이상에 이르는 경우임. 핵실험 등 긴장 조성 행위를 포함
0.5점	생화학무기의 제한적인 사용, 전쟁 선언, 영토의 일부 점령 등이 일어나며 기간 내 (지속적인) 국지적 충돌 및 전투가 벌어지는 상태임
0점	군사적 긴장과 대처에서 전면적인 전쟁 국면에 돌입한 상태임

〈표 2-33〉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점수

연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10점)	연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10점)
1989	4	2005	5
1990	4	2006	4
1991	4	2007	4.5
1992	2	2008	2
1993	3	2009	1.5
1994	3	2010	1
1995	3.5	2011	2.5
1996	1	2012	2.5
1997	2.5	2013	1
1998	3.5	2014	2
1999	1.5	2015	2
2000	4	2016	1
2001	4	2017	1
2002	2	2018	6
2003	4	2019	4
2004	4.5		

※ 자료: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점수의 근거에 대해서는 연도별 남북통합지수 보고서 참고. 연도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일지, 통일연구원, 남북관계 연표 참고.

■ 2019년에는 2018년에 지속된 남북 간 정상회담과 북미 간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지속 되는 한편, 협상의 교착상태로 인해 다시 불신과 긴장이 강화되는 흐름도 이어졌다.

■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에 관한 적극적 의사가 표명되자 이에 화답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가 합의되었다.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시도했다. 하노이 회담에서는 영변핵시설 해체 여부와 제제 해

제의 범위나 단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종료되었다.

- 3월과 4월에는 한미 군사훈련의 종료와 한국 정부의 협상과 교류 협력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북미 합의나 회담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되지 못했다.
- 4월 북한은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비난했으며 5월 4일에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 한국 정부와 대통령은 북미 간의 입장 차이를 넘어 협상을 재개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6월 30일에는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판문점에서 최초의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 하지만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계속되자 북한은 이를 남북 정상 합의와 북미 합의에 위반된다며 7월 강원도 원산, 함경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 8~9월에도 추가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발사가 이루어졌으나,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과 북한 외무성의 담화를 통해 다시 북한과 미국 간의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스톡홀름에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이루어졌으나 비핵화의 방식과 단계, 그에 따른 상응 조치와 로드맵, 상호간 협상과 이행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10월 31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재차 발사했고, 11월 17일 한미는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11월에 북한은 함경남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고, 연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경우 긴장이 고조될 것을 우려해 유엔 안보리 비공식 실무협의를 개최되었고 제 8차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의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 2019년은 결국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 비핵화의 단계와 평화 프로세스의 로드맵에 대한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다시 상호 불신이 협상 교착과 긴장 강화로 이어진 양상을 보였다. 10월 이후 추가적인 북미 협상은 재개되지 못했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병행되어 연말까지 더 큰 군사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 이상의 노력을 반영하여 2019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부문 점수는 4점이다. 4점은 상호 구두 위협을 통한 긴장 조성 상태에 해당된다.

〈표 2-34〉 2019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내용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1.1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9년 신년사 육성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합의사항 철저히 이행 및 협력·교류의 전면적 확대 발전 주장 •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및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의사 적극 표시 정부, 北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환영의사 표명
1.6	미국 트럼프 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 협상중” 언급
1.18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워싱턴) 미국 트럼프 대통령-김영철 면담(백악관)
1.21	UN안보리 대북제재위, 인도지원 4개단체 대북제재 면제 공개
2.5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계획 발표
2.15	남·북·IOC,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등 협의(스위스 로잔)
2.25	남북, 철도·도로 협력 관련 자료 교환(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2.27~28	제 2차 북미정상회담(베트남 하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켓이나 핵실험 하지 않기로 약속 • 영변핵시설 해체 여부 논의 • 제재 해제의 범위와 단계 논의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단계와 규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회담 합의문 없이 회담 종료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3.1	대통령, 제 100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 •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인 진전 •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는 양국관계 정상화의 중요 성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길
3.2	한·미 국방장관, KR/FE 훈련 종료 결정
3.15	최섉희 北 외무성 부상 기자회견(평양) “이번과 같은 협상은 할 계획이 없음”
3.21	미 재무부, 대북제재 회피 관련 中 해운사 제재
3.22	北,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3.22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4.1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우리측 사전준비 개시
4.5	강원도 고성 일대 산불 관련 상황을 북측에 통지
4.11	한미 정상회담(워싱턴) 트럼프 대통령 “한미 양국관계는 긴밀.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알게 되었고, 존경” 대통령, “한국과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 상태에 대해 동일한 생각”
4.11~12	北,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개최 김정은 위원장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 “미국이 올바른 자세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하면 더 해볼 용의가 있음”
4.25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한미연합공중훈련비난
5.4	北,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 발사
5.7	대통령,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기고문, “한반도 전역에 걸쳐 오랜 시간 고착된 냉전적 갈등과 분열, 다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해체되어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신질서로 대체될 것을 목표로”
5.9	北, 단거리 미사일 추정 불상 발사체 2발 동쪽 방향 발사
5.30	北,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공식 통보
6.10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미 대통령 앞 친서 전달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으며, 관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 “어느 시점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바람”
6.12	대통령, 오슬로포럼 기조 연설 “국민을 위한 평화”,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 “동서독도 접경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공동 대처함” 이희호 여사 서거 관련,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조의문과 조화 전달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6.14	대통령, 스웨덴 의회 연설("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
6.26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미 수뇌분들이 노력해도 대조선 적대감이 가득한 정책작성자들이 미국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 조미관계 개선도, 조선반도 비핵화도 어려움"
6.30	한미 정상회담(서울) 대통령 "정전선언후 66년만에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남. 평화를 위한 약속" 남북미 회동(판문점 자유의 집) 김정은 위원장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 "김 위원장이 희망한다면 언제든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음"
7.16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6.12 조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대한 위반"
7.25	北,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7.29	北,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8.2	北,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미상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
8.5~20	한미연합훈련
8.10	北, 함경남도 함흥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추정) 2발 발사
8.16	北, 강원 통천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2발 발사
8.24	北, 함남 선덕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미상 발사체 2발 발사
9.5	北,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음"
9.10	北,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 미사일 2회 발사
9.24	대통령, 제74차 유엔 총회 총회 기조 연설 "세 가지 원칙(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함"
10.1	北,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조미 쌍방은 10.4 예비 접촉에 이어 10.5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
10.2	北, 강원도 원산 북방일대에서 동해로 미상 발사체 1발 발사
10.5-6	북미 실무협상(스톡홀름)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은 이번 협상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조미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그 시한부는 올해말까지임"
10.23	北, 김정은 위원장 금강산관광지구 현지도도 공개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10.31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
11.2	우리측 해군, 동해 NLL 남방 2해리 부근에 진입한 북한 어선 나포
11.13	北,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 “미국과 남조선이 계획하고 있는 합동군사연습이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를 피할 수 없이 격화시키는 주된 요인”
11.17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 발표
11.19	北,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에 대하여 꿈도 꾸지 말아야 함”
11.28	北,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 발사
12.8	北, 국방과학원 대변인, ‘12월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실험’ 관련 발표
12.14	北, 국방과학원 대변인, ‘12월 13일 중대한 시험’ 관련 발표
12.17	유엔 안보리, 비공식 실무협의 개최
12.24	제 8차 한·일·중 정상회의(청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북미간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함”

※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관계 주요일지>.

11) 상호체제 인정

- 상호체제 인정은 기존에 남한과 북한에서 교류와 접촉의 대상을 규제하는 법을 기준으로 한 평가이다. 2011년에 체제 간 상호비방의 강도를 기준으로 남북 정치통합의 정도를 반영하려 하였으나 보다 과학적인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방의 수준과 강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기존의 방식대로 상호체제를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영역으로 제한하여 평가하였다. 법 개정 관련부문 점수는 남북교류 관련법과 국가보안법(남한), 형법(북한) 등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두 개의 법률을 선택하여 총 4개의 법률에 각 2.5점씩 총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표 2-35〉 상호체제 인정 정도(법 개정)

점수	내용
0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음
0.5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1.0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짐
1.5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재개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2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재개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상당 수준으로 법제도가 확립됨.
2.5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가 완벽한 수준으로 제정(개정)되어 있음

■ 먼저 기존의 남북한 법 개정 관련부문 상호인정 점수는 다음과 같다. 상대체제 인정행위 중 법 개정 관련점수는 5점을 기준으로 환산했다. 남한의 경우, 2019년 남북교류협력 관련법은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재개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해당하는 1.5점을 부여한다.

■ 2005~2010년 기간에 2점으로 올라갔던 남북교류관련법은 2011년 이후 5.24조치와 2016년 개성공단 폐쇄의 영향으로 1.5점에서 한 단계 더 떨어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교류 협력이 적극 추진되었고, 체육, 문화, 산림, 적십자, 이산가족, 철도 등 여러 분야에서 각종 남북 교류 협력이 재개되어 2016년 수준의 1.5점을 부여했다.

■ 2019년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고 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한국 측에서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을 신청했고, 도로 협력에 관한 실무 접촉이 있었으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가 다양한 협력 관련 사업을 의결했다. 하지만 2월 북미 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이후 남북 간 공식 회담 등은 중단되었다. 즉, 인적 왕래는 2018년보다 약간 감소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작년과 같은 1.5점을 부여했다. 2019년 현재 국가보안법은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는 않으며 간헐적으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1991년 이후 0.1점을 부여하였다.

■ 북한의 경우, 연초에는 북미 협상과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마찬가지로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제재와 관련된 논란으로 실제 교류는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또한 10월에는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을 철거하는 통지문을 남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북한의 교류협력 관련법은 전무하여 0점으로 처리하고,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대비되는 형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9년에도 0.3점을 부여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법률적 측면에서 2019년 점수는 전년과 같은 1.9점으로 평가한다.

〈표 2-36〉 남북한의 상호체제 인정 부문 점수

	상호체제 인정(법 개정)				가중치 총점
	남한		북한		
	교류협력 관련법 (2.5점)	국가보안법 (2.5점)	교류협력 관련법 (2.5점)	형법 (2.5점)	(10점)
1989	0.5	0	0	0	0.5
1990	1.0	0	0	0	1.0
1991	1.0	0.1	0	0	1.1
1992	1.0	0.1	0	0	1.1
1993	1.0	0.1	0	0	1.1
1994	1.0	0.1	0	0	1.1
1995	1.0	0.1	0	0.1	1.2
1996	1.0	0.1	0	0.1	1.2
1997	1.0	0.1	0	0.1	1.2
1998	1.0	0.1	0	0.1	1.2
1999	1.0	0.1	0	0.2	1.3
2000	1.0	0.1	0	0.2	1.3
2001	1.0	0.1	0	0.2	1.3
2002	1.5	0.1	0	0.2	1.8
2003	1.5	0.1	0	0.2	1.8
2004	1.5	0.1	0	0.3	1.9

	상호체제 인정(법 개정)				가중치 총점
	남한		북한		
	교류협력 관련법 (2.5점)	국가보안법 (2.5점)	교류협력 관련법 (2.5점)	형법 (2.5점)	(10점)
2005	2.0	0.1	0	0.3	2.4
2006	2.0	0.1	0	0.3	2.4
2007	2.0	0.1	0	0.3	2.4
2008	2.0	0.1	0	0.3	2.4
2009	2.0	0.1	0	0.3	2.4
2010	2.0	0.1	0	0.3	2.4
2011	1.5	0.1	0	0.3	1.9
2012	1.5	0.1	0	0.3	1.9
2013	1.5	0.1	0	0.3	1.9
2014	1.5	0.1	0	0.3	1.9
2015	1.5	0.1	0	0.3	1.9
2016	1.5	0.1	0	0.3	1.9
2017	1.0	0.1	0	0.3	1.4
2018	1.5	0.1	0	0.3	1.9
2019	1.5	0.1	0	0.3	1.9

12) 관계통합지수 종합

- 정치영역의 관계통합지수는 지수를 구성하는 10개 변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된다.
- 2019년에는 실무정치회담, 고위급 정치회담, 군사분야 회담 모두 개최되지 못해 해당 지수가 모두 0점으로 돌아갔다. 매개제도 구성 활동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유지되었으나 명맥만 유지되었기에 3점이고, 정치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러 4점을 기록했다. 남한 병력의 감소로 군축 점수만이 전년 대비 0.3점 증가

하여 2019년 정치영역의 관계적 통합지수는 30.8점이 하락한 9.3점을 기록했다.

〈표 2-37〉 2018년/2019년 정치영역 관계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부문	2018년	2019년	증감	요인
실무정치회담	1.4	0.0	-1.4	후속 회담 없음
고위급정치회담	20.0	0.0	-20.0	정상회담 없음
군사분야 회담	3.4	0.0	-3.4	군사분야 회담 없음
의회회담	0.0	0.0	-	
정치분야공동행사	0.0	0.0	-	
매개제도 구성과 활동	4.8	3.0	-1.8	남북연락사무소 유지
대화·회담 정례화	2.5	0.0	-2.5	
외교군사적 협력	0.0	0.0	-	
군축	0.1	0.4	+0.3	남측의 군축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6.0	4.0	-2.0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
상호체제인정	1.9	1.9	-	
계	40.1	9.3	-30.8	

라. 종합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을 포함하는 정치 영역 구조통합을 평가한 전체지수를 종합하면 다음 <표 2-38>와 같다.

<표 2-38>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연도	제도적 통합(90)				관계적 통합(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집행 기구 (30)	단일 제도 화 (30)	공동 법제 화 (30)	실무 정치 회담 (20)	고위 급 정치 회담 (20)	군사 회담 (20)	의회 회담 (20)	남북 공동 행사 (10)	매개 제도 (20)	정례 화 (10)	국제 협력 (10)	군축 (10)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10)	상호 체제 인정 (10)		
1989	0	0	1.0	1.0	0	0	0.8	0	0	0	0	1.8	4	0.5	9.1	0
1990	0	0	1.0	2.2	6	0	0.4	0	0.5	2.5	0	1.7	4	1.0	19.3	1
1991	0	0	1.0	2.0	4	0	0.2	0	1.1	2.5	0.4	1.7	4	1.1	18	1
1992	0	0	2.0	15.4	6	0	0	0	14.3	2.5	0.4	1.6	2	1.1	45.3	3
1993	0	0	2.5	0.8	0	0	0	0	0	0	0.6	1.4	3	1.1	9.4	0
1994	0	0	2.6	2.0	0	0	0	0	1	0	0.2	1.4	3	1.1	11.3	1
1995	0	0	3.1	0.0	0	0	0	0	0.5	0	0	1.4	3.5	1.2	9.7	0
1996	0	0	3.2	0.0	0	0	0	0	0	0	0.7	1.0	1	1.2	7.1	0
1997	0	0	3.3	0.0	0	0	0	0	0	0	3.7	0.4	2.5	1.2	11.1	1
1998	0	0	3.8	0.4	0	0	0	0	0	0	2.2	0.3	3.5	1.2	11.4	1
1999	0	0	4.3	0.6	1.6	0	0.2	0	0.5	0	2.5	0.3	1.5	1.3	12.8	1
2000	0	0	4.4	2.6	11	3.2	0.6	0	11	2.5	0.7	0.3	4	1.3	41.6	3
2001	0	0	4.5	0.0	3	0.8	0.4	0	6.3	2.5	0.5	0.3	4	1.3	23.6	2
2002	0	0	4.6	0.4	3	3.6	0.6	0	7.2	2.5	0.5	0.3	2	1.8	26.5	2
2003	0	0	4.7	0.2	6	2.4	0.4	0	7.2	5	1.0	0.3	4	1.8	33	2
2004	0	0	6	0.0	3	3.2	1.2	0	7.1	2.5	2.5	0.3	4.5	1.9	32.2	2
2005	0	0	6.1	1.2	5.3	1.2	1.4	5	8.2	2.5	2.4	0.3	5	2.4	41	3
2006	0	0	6.2	0.6	3	2.8	2.6	2.5	6.8	2.5	1.0	0.4	4	2.4	34.8	2
2007	0	0	6.3	1.8	10	7.8	1.8	2.5	9.4	2.5	2.9	0.4	4.5	2.4	52.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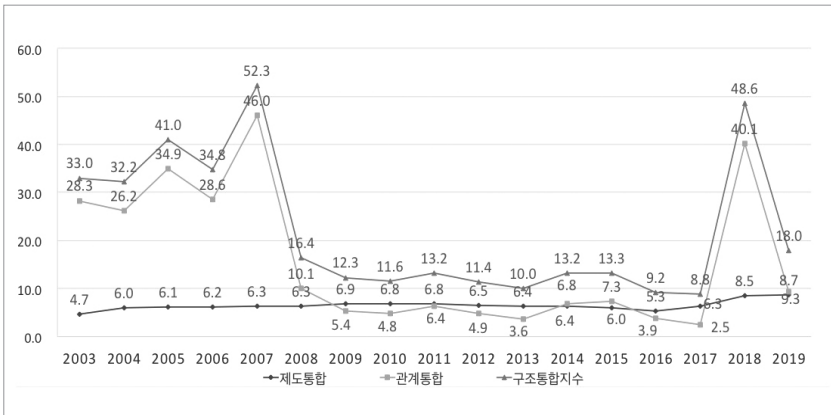
연도	제도적 통합(90)			관계적 통합(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집행 기구 (30)	단일 제도 화 (30)	공동 법제 화 (30)	실무 정치 회담 (20)	고위 급 정치 회담 (20)	군사 회담 (20)	의회 회담 (20)	남북 공동 행사 (10)	매개 제도 (20)	정례 화 (10)	국제 협력 (10)	군축 (10)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10)			상호 체제 인정 (10)
2008	0	0	6.3	0	0	0.8	0	0	3	0	1.5	0.4	2	2.4	16.4	1
2009	0	0.5	6.4	0.8	0	0	0.2	0	0.3	0	0	0.2	1.5	2.4	12.3	1
2010	0	1.0	5.8	0	0	0.8	0.2	0	0	0	0	0.4	1	2.4	11.6	1
2011	0	1.0	5.8	0	0	0.4	0	0	0	0	1.2	0.4	2.5	1.9	13.2	1
2012	0	1.0	5.5	0	0	0	0	0	0	0	0	0.5	2.5	1.9	11.4	1
2013	0	0.5	5.9	0.2	0	0	0	0	0	0	0	0.5	1.0	1.9	10.0	0
2014	0	0.5	5.9	0.2	1.5	0.4	0	0	0.3	0	0	0.5	2	1.9	13.2	1
2015	0	0.5	5.5	0	2.3	0	0	0	0.6	0	0	0.5	2	1.9	13.3	1
2016	0	0.5	4.8	0	0	0	0	0	0	0	0	0	2	1.9	9.2	0
2017	0	0.5	5.8	0	0	0	0	0	0	0	0	0.1	1	1.4	8.8	0
2018	0	1.5	7	1.4	20	3.4	0	0	4.8	2.5	0	0.1	6	1.9	48.6	3
2019	0	1.5	7.2	0	0	0	0	0	3	0	0	0.4	4	1.9	18	1

■ 2019년 정치영역의 남북한 구조통합지수는 18점으로 전년에 비해 30.6점이 감소했다. 통합단계는 11~20점 사이인 1단계 수준으로 평가된다.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한 축인 제도통합 부문은 0.2점 증가하였고, 다른 한 축인 관계통합 부문은 30.8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0.6점이 감소하였다.

■ 제도통합 부문은 정치분야나 군사분야의 남북공동집행기구가 존재하지 않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유지되었고 북한이 당 중심 통치의 강화와 경제 개발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며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정도는 1.5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공동법제화 수준은 전년 대비 0.2점 증가하여 7.2점이다.

■ 관계통합 부문은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었으나 협상과 합의 이행 과정에서 상호 입장 차이와 불신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 부분은 작년보다 하락한 4점이었다. 남북 간 정치회담, 군사회담, 공동행사 모두 개최되지 못하여 0점으로 하락했고, 매개제도는 남북 간 협상은 부족했지만 채널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3점, 군축은 남한 정부의 군비통제 추진으로 0.4점을 기록했다. 상호체제인정 부문에서는 전년 수준이 유지되어 1.9점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2-3〉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3. 사회문화

가. 지수구성

- 사회문화영역의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제도적 통합과 관계적 통합은 반드시 누적적 단계에 따라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실현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적 통합은 관계적 통합이 일정한 수준까지 올랐을 때 관계적 통합을 제도적으로 보장 또는 확정하는 방식으로 뒤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사회문화영역의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인과 배점은 아래와 같다.

〈표 2-39〉 사회문화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영역	변인	배점
제도통합	사회문화정책 공동집행기구	30
	사회문화분야 남북 법제화	30
	사회문화제도의 단일화	30
	소계	90
관계통합	사회문화 인적 왕래	20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공동행사)	20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20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10
	인적 이동의 자유화	20
	언론·방송의 자유화	20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20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30
	소계	160
합계		250

■ 이상의 변인들에 부여된 점수를 가산하여 사회문화적 통합의 단계를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 0단계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 10점 이하
- 1단계 (비정기적인 교류, 접촉빈도 낮음(제한적 범위에서 진행)): 11-20점
- 2단계 (비정기적인 교류, 접촉빈도 높음): 21-40점
- 3단계 (정기적인 교류, 공동 협의기구(매개 제도) 구성): 41-70점
- 4단계 (공동협의기구(매개제도)의 상시화): 71-90점
- 5단계 (주요 대회 공동개최, 자유화 진행): 91-110점
- 6단계 (남북 사회문화 공동집행기구 구성): 111-130점
- 7단계 (일부 사회문화제도 단일화·공동법제화): 131-160점
- 8단계 (광범위한 사회문화제도 단일화·공동법제화): 161-190점
- 9단계 (포괄적 사회문화정책 공동집행기구에 위임): 191-220점
- 10단계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완성): 221-250점

■ 남북통합 수준을 단계로 구분하면, 남북 접촉·교류기(0~2단계), 남북 협력도약기(3~5단계), 남북연합기(6~8단계), 통일 완성기(9~10단계)이다. 남북통합은 3단계, 6단계, 9단계에서 질적으로 도약(take-off)한다. 마지막 실질적인 통일 시기는 남북한 간 사회문화 분야에서 자유화·제도화·단일화 등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나. 제도통합지수

■ 사회문화영역의 제도통합을 측정하는 지표와 배점은 아래와 같다. 단, 사회문화영역의 남북 공동 집행기구는 구성뿐만 아니라 기구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준까지 포함하며, 남북한 간 사회문화제도의 표준화와 단일화 영역은 대표적 측정지표로서 소통의 도구로서 언어와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사회복지제도의 단일화로 한정한다.

■ 제도통합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와 배점의 세부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40〉 사회문화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통합 영역	지표	세부 지표	배점
제도적 통합 (총 90점)	남북 공동의 사회문화정책 집행기구 (30점)	공동의 집행기구 구성 논의	10
		공동의 집행기구 구성 추진	10
		공동의 집행기구 활성화	10
	남북한 사회문화제도 단일화 (30점)	언어의 표준화	10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10
		사회복지제도의 단일화	10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30점)	남북한 법제화 수준	15	
	북한 법제의 실효성	15	

1) 남북한 공동의 사회문화정책 집행기구

■ 2019년에는 남북한 사회문화정책을 공동으로 집행할 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수에 해당되는 점수는 30점 만점 중 0점이다.

2) 남북한 사회문화제도의 단일화

■ 2019년에는 남북한 당국 간 사회문화제도(언어, 방송통신기술, 사회복지제도 등)를 표준화 또는 단일화하려는 조치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이 중 사회복지제도의 단일화에 대한 조치에 대해 부여하는 점수는 10점 만점 중 0점이다.

■ 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남북한 간 사회문화제도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방송통신기술의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지표를 세분화하여 반영기로 하였다.

■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에 대한 배점은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환경조성 2점,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합의 도출 3점,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실행 5점으로 세분화되었다.

- 방송통신기술 표준화 환경조성의 경우 남한주민의 이동전화 이용률⁷⁾과 북한주민의 손전화 이용률⁸⁾을 평균한 점수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0~25%는 0.5점, 26~50%는 1.0점, 51~75%는 1.5점 76~100% 2.0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퓨리서치(Pew Research)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남한주민 이동전화 보급률은 100%를 기록하였다. 북한주민의 손전화 이용률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2020년도 발표자료에 따르면 56.0%에 이른다.
- 따라서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환경조성에 대한 점수는 평균 이용률 77.9%으로 해당하는 점수는 2.0점이다. 결과적으로 2019년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에 대한 조치에 대해 부여하는 점수는 10점 만점 중 2.0점이다.
-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합의 도출 3점,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실행 5점 항목에 있어서는 진행된 바 없어 둘 다 0점이다.

■ 민간 차원에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통해 언어의 표준화가 시도되고 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2015년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제25차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회의를 개최를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회의는 중단된 상태다. 2015년 회의에서는 올림말 집필 원고 24,076개를 검토하였으며, 이 중 19,799개의 원고를 합의하였다.⁹⁾ 따라서 남북

7) “8 charts on internet use around the world as countries grapple with COVID-19,” Pew Research Center, 2020년 4월 2일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0/04/02/8-charts-on-internet-use-around-the-world-as-countries-grapple-with-covid-19/> (검색일: 2020.12.13)

8)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포스트 하노이 북한사회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 자료집(2020년 10월 29일) 참조.

9) 김호준,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회의 7~13일 중 다렌서 개최,” 『연합뉴스』, 2015년 12월 1일 <http://m.yna.co.kr/amp/kr/contents/?cid=AKR20151201061900014>

한 간 언어 표준화에 부여하는 점수는 10점 만점 중 7.9점이다.

- 2005년 2월 남북 합의 하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가 결성된 이래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사전 편찬이 중단되었으나, 2014년 7월에 재개되어 2015년 5월 5~11일 중국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와 만나 겨레말큰사전 편찬회의와 집필회의를 하였다.¹⁰⁾
- 남한 편찬위원회는 2016년 이후 2018년 말까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후 남북간 협의가 이루어진 표제어의 교정, 정리 등을 추진하여 2019년 말까지 78.7%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¹¹⁾

3)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법제화 변수

■ 남북한 사회문화 관련 공동법제화는 크게 법제화의 수준과 법제의 실효성으로 구분된다.

■ 먼저, 사회문화영역의 법제화 수준은 북한의 법제화 수준, 남북간 법제의 수렴 정도, 남북 공동법제의 구속력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전문가조사를 통해 측정된다. 전문가조사는 2020년 10월에 10명의 북한법 전문가들이 세 개의 지표를 10점 척도로 하여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 전문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문화영역에서 북한의 법제화 수준에 5.5점, 남북한 간 법제의 수렴도에 3.9점, 그리고 남북한 공동법제의 구속력에 3.8점이 부여되었다. 각 항목별 점수를 다시 5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합한 결과, 2019년 사회문화영역의 남북한 법제화 수준은 15점 만점 중 6.6점이다.

10) 김호준, “겨레말큰사전 남북 편찬회의 5~11일 중 선양서 개최,” 『연합뉴스』, 2015년 5월 5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5/0200000000AKR20150505049400043.HTML?input=1179m>

11) 통일부, 『2020년 통일백서』, p.71.

〈표 2-41〉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정도

세부 지표	평균점수 (항목별 10점 만점)	상대점수 (항목별 5점 만점)	법제화 수준 (합계/15점 만점)
사회문화영역 북한의 법제화 수준	5.5	2.7	6.6
사회문화영역 남북 간 법제의 수렴도	3.9	2.0	
사회문화영역 남북 공동법제의 구속력	3.8	1.9	

〈표 2-42〉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전문가 설문조사 연도별 추이

세부 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회문화 영역 북한의 법제화 수준	4.4	5.1	5.1	6.0	5.2	5.5	5.3	5.5	5.5	5.5
사회문화 영역 남북 간 법제의 수렴도	3.2	3.4	3.3	3.8	3.8	3.3	3.3	3.6	3.5	3.9
사회문화 영역 남북 공동 법제의 구속력	3.8	3.1	3.1	3.4	3.7	2.8	2.9	3.6	3.6	3.8
평균	3.8	3.9	3.8	4.4	4.2	3.9	3.8	4.2	4.2	4.4

■ 법제의 실효성은 북한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문화 자유화 관련 기본 법 조항들이 실제로 현실사회에서 보장되고 있는가 여부로 판단한다. 측정지표와 배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북한의 사회문화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에 대한 점수는 문헌조사, 북한법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북한주민(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2019년 기간 동안 사회문화 자유화와 관련된 북한 법제가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북한주민 통일의식』¹²⁾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 헌법에 명시된 거주·여행의 자유가 전혀 실효성이 없지는 않다. 해외여행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의 거주·여행의 자유 관련 법제의 부분적 실효성을 인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

- 거주·여행의 자유 관련한 질문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에 대해 “자주 가보았다” 또는 “가끔 가보았다”로 응답한 비율은 51.4%로 나타났다.
- 나머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 관련 법 조항과 신앙의 자유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되어 각각 0점을 부여한다.

〈표 2-43〉 북한의 사회문화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

헌법조항	실효성 수준*	실효성 점수* (5점 만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짐	실효성 전혀 없음	0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짐	실효성 전혀 없음	0
모든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짐	부분적 실효성 있음	2.5
합계 (15점 만점)	2.5	

* 실효성 점수는 전면적 효력=5점, 부분적 효력=2.5점, 무효력=0점으로 구분

■ 이상의 남북 사회문화 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보면, 2019년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점수는 남북 법제화 정도 6.6점과 북한의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 2.5점을 합하여 30점 만점 중 9.1점으로 2018년보다 0.4점 증가하였다.

1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포스트 하노이 북한사회 변화」(2020년 10월 29일) 참조.

〈표 2-44〉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

연도 \ 구분	법제의 실효성	남북한 법제화 정도	남북한 법제화 점수 (합계)
1989	0	1.1	1.1
1990	0	1.1	1.1
1991	0	1.1	1.1
1992	0	1.3	1.3
1993	0	1.5	1.5
1994	0	1.6	1.6
1995	0	1.9	1.9
1996	0	2.2	2.2
1997	0	3.2	3.2
1998	2.5	4.4	6.9
1999	2.5	4.5	7.0
2000	2.5	4.6	7.1
2001	2.5	4.7	7.2
2002	2.5	4.7	7.2
2003	2.5	4.9	7.4
2004	2.5	5.0	7.5
2005	2.5	5.0	7.5
2006	2.5	5.0	7.5
2007	2.5	6.6	9.1
2008	2.5	6.6	9.1
2009	2.5	6.7	9.2
2010	2.5	5.7	8.2
2011	2.5	5.8	8.3
2012	2.5	5.8	8.3
2013	2.5	6.6	9.1
2014	2.5	6.4	8.9
2015	2.5	5.8	8.3
2016	2.5	5.9	8.4

연도 \ 구분	법제의 실효성	남북한 법제화 정도	남북한 법제화 점수 (합계)
2017	2.5	6.3	8.8
2018	2.5	6.2	8.7
2019	2.5	6.6	9.1

4) 제도통합지수 종합

- 사회문화영역 제도통합지수는 세 가지 지표인 남북 공동의 사회문화정책 공동집행기구, 남북한 사회문화제도 단일화,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각각에 부여된 점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2019년 사회문화영역 제도적 통합지수는 90점 만점 중 19점으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0.4점 증가하였다.

〈표 2-45〉 사회문화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연도 \ 구분	공동집행기구 (30)	제도 단일화 (30)	남북한 법제화 (30)	제도적 통합지수 (합계)
1989	0	0	1.1	1.1
1990	0	0	1.1	1.1
1991	0	0	1.1	1.1
1992	0	0	1.3	1.3
1993	0	0	1.5	1.5
1994	0	0	1.6	1.6
1995	0	0	1.9	1.9
1996	0	0	2.2	2.2
1997	0	0	3.2	3.2
1998	0	0	6.9	6.9
1999	0	0	7.0	7.0
2000	0	0	7.1	7.1
2001	0	0	7.2	7.2

연도 \ 구분	공동집행기구 (30)	제도 단일화 (30)	남북한 법제화 (30)	제도적 통합지수 (합계)
2002	0	0	7.2	7.2
2003	0	0	7.4	7.4
2004	0	0	7.5	7.5
2005	0	0.9	7.5	8.4
2006	0	1.7	7.5	9.2
2007	0	2.6	9.1	11.7
2008	0	3.5	9.1	12.6
2009	0	5.0	9.2	14.2
2010	0	5.7	8.2	13.9
2011	0	5.7	8.3	14.0
2012	0	5.7	8.3	14.0
2013	0	5.7	9.1	14.8
2014	0	7.7	8.9	16.6
2015	0	7.2	8.3	15.5
2016	0	7.2	8.4	15.6
2017	0	7.2	8.8	16.0
2018	0	9.9	8.7	18.6
2019	0	9.9	9.1	19.0

다. 관계통합지수

- 사회문화영역의 관계통합을 측정하는 지표는 인적왕래의 규모,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빈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사회문화영역의 비중,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이동의 자유화, 언론방송의 자유화, 국제대회에서의 민족적 단결성, 마지막으로 정책협의 정례화와 공동성 등이 포함된다.
- 사회문화영역 관계통합을 구성하는 지표와 배점의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46〉 사회문화영역 관계적 통합 지표와 배점

통합영역	지표	배점
관계통합	사회문화 인적 왕래	20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공동행사)	20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20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10
	인적 이동의 자유화	20
	언론·방송의 자유화	20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20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30
	소계	160

1) 인적 왕래

- 인적왕래 변인의 경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북한주민이 방남한 경우에는 인원수에 2를 곱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인원과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인원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방북 9,835명+방남 0명(X2)=9,835명이다.
 - 2019년 인적왕래는 통일부의 통계자료 분류 방식의 변경으로 분야별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인원은 확인 불가능하며, 총 인원은 9,835명이다.
 - 2009년 이후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의 경우 통일부의 통계자료 분류 방식의 변경으로 분야별 남한방문 인원을 확인할 수 없어 2019년에는 0명이다.

■ 연간 인적왕래 수준의 기준점은 700만 명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인적왕래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¹³⁾

■ 2019년 인적왕래 변인의 총점은 9,835명으로 2018년에 비해 소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9년 인적왕래 변인에 부여된 상대점수는 20점 만점 중 0점이다. 상대점수가 0점인 이유는 기준점에 대한 비율이 0.1% 이하인 경우는 0점 처리하는 것으로 지수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2-47〉 인적왕래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이산 가족 (A)	교육 학술 (B)	문화 예술 (C)	체육 (D)	종교 (F)	언론 출판 (G)	대북 지원 (H)	관광 (I)	가중치 총점 *	비율 (% **)	상대 점수
1989									1	0	0
1990									1,056	0	0
1991									762	0	0
1992									566	0	0
1993									36	0	0
1994									12	0	0
1995									536	0	0
1996									146	0	0
1997	0	1	0	0	4	11	151	-	167	0	0
1998	1	21	87	0	51	48	129	10,554	10,891	0.2	0
1999	5	1	106	125	39	4	364	148,008	148,652	2.1	0.4
2000	348	5	697	446	47	143	751	212,247	214,684	3.1	0.6
2001	436	76	134	312	86	82	803	57,285	59,214	0.9	0.2
2002	1,479	68	513	2,182	195	84	1,975	84,347	90,843	1.3	0.2
2003	233	396	34	1,552	584	253	1,670	75,353	80,075	1.1	0.2
2004	1,632	797	784	161	376	107	2,067	268,420	274,344	3.9	0.8
2005	247	273	286	955	1,231	1,242	6,669	301,011	311,914	4.5	0.9

13) 본 수치에 활용하던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의 출판이 2017년 7월 이후로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전에 분야별로 표기하던 방북인원 수치는 확인하기 어렵고 총 인원 수로만 나타내기로 한다.

구분 연도	이산 가족 (A)	교육 학술 (B)	문화 예술 (C)	체육 (D)	종교 (F)	언론 출판 (G)	대북 지원 (H)	관광 (I)	가중치 총점 *	비율 (%) **	상대 점수
2006	2,127	378	138	274	788	487	7,658	234,446	246,296	3.5	0.8
2007	3,207	865	331	1,624	4,779	289	13,119	352,433	376,647	5.4	1
2008	2,267	663	46	424	685	308	4,812	303,088	312,293	4.5	0.9
2009 ***	1,449	112	0	23	103	0	761	0	2,574	0.04	0
방남 63명 (가중치x2점)											
2010	754	95	0	3	77	7	684	0	1,884	0.03	0
	방남 132명 (가중치x2점)										
2011	0	44	3	0	133	2	946	0	1,156	0.02	0
	방남 14명 (사회문화 1명, 대북 지원 13명)										
2012	1	0	2	0	77	2	117	33	232	0	0
	방남 0명										
2013	0	9	0	41	53	0	35	74	292	0	0
	방남 40명 (사회문화 40명 가중치x2점)										
2014	760	100	6	0	186	0	63	33	1,880	0.03	0
	방남 366명 (사회문화 366명 가중치x2점)										
2015	1,491	840	15	100	354	0	295	43	3,156	0.04	0
	방남 4명 (사회문화 4명 가중치x2점)										
2016	방북 14,787명								14,787	0.21	0
	방남 0명										
2017	방북 52명								178	0	0
	방남 63명 (사회문화 63명 가중치x2점)										
2018	방북 6,689명								8,307	0.1	0
	방남 809명 (사회문화 809명 가중치x2점)										
2019	방북 9,835명								9,835	0.1	0
	방남 0명 (사회문화 0명 가중치x2점)										

* 1989~1996년 기간은 분야별 통계가 없고 합계 통계만 있어 가중치 총점만 산출함.

** 비율이 0.1% 이하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함.

*** 2003, 2004, 2005, 2007년 관광 분야 방북자 수치 및 가중치 총점, 2010, 2015년 방남자 수치 및 가중치 총점, 2016년 방북자 수치 및 가중치 총점 수정함.

**** 2009년부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자료에는 분야별 인원이 누락되고, 총 인원만 표시되어 있음.

***** 2017년부터 북한주민의 북한방문 또한 분야별 인원이 누락되고, 총 인원만 표시 되어 있음.

※ 자료 : 통일부, 『2020 통일백서』 참조

2) 공동 행사(교류협력사업)

- 공동행사 변인 상대점수는 방문 성사 1건당 1점을 부여하여 산출하되, 인적왕래와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남한방문의 경우에는 건수에 2를 곱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 2019년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행사는 방북 행사는 교육학술·문화예술 부문 3건, 체육 0건으로 나타났고 방남의 경우 0건으로 나타났다.
 - 문화예술분야에서는 현대아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2019.02.08~09, 금강산)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민간단체로 구성된 ‘새해맞이 추진위원회’가 참여한 새해맞이 연대모임(2019.02.12~13, 금강산)이 진행되었다.
 - 교육학술분야에서는 남북보건의료재단과 국제당뇨병 연맹 대표단이 참여한 평양당뇨병 의학과학 토론회(2019.05.06~07, 평양)가 개최되었다.
- 이상의 방북 행사 건수와 방남 행사 건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총점은 3점이다. 2018년보다 1점이 낮으며, 기준점(600건) 대비 비율은 0.5%이다.
 - 연간 남북공동행사의 개최 건수의 기준점은 600건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공동행사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최종적으로 상대점수로 전환했을 경우 2019년 공동행사 변인에 부여된 상대점수는 0점이다.

〈표 2-48〉 공동행사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교육 학술	문화 예술	체육	종교	언론 출판	가중치 총점	비율 (%)	상대 점수	
1989	0	0	0	0	0	0	0	0	
1990	0	0	0	0	0	0	0	0	
1991	0	0	0	0	0	0	0	0	
1992	0	0	0	0	0	0	0	0	
1993	0	0	0	0	0	0	0	0	
1994	0	0	0	0	0	0	0	0	
1995	0	0	0	0	0	0	0	0	
1996	0	0	0	0	0	0	0	0	
1997	1	0	0	3	3	7	1.2	0.2	
1998	6	6	0	10	10	32	5.3	1	
1999	1	7	65	9	2	84	14	2.8	
2000	2	9	51	9	12	83	13.8	2.8	
2001	13	10	39	11	11	84	14	2.8	
2002	15	19	45	17	9	105	17.5	3.6	
2003	24	11	24	22	21	102	17	3.4	
2004	19	12	6	24	21	82	13.7	2.8	
2005	32	19	29	68	75	223	37.2	7.4	
2006	37	25	36	58	61	217	36.2	7.2	
2007	85	32	77	119	44	357	59.5	12	
2008	57	14	30	58	35	194	32.3	6.4	
2009	9	0	2	15	0	(26)	36	6	1.1
	방남 5건 (가중치×2점)*					(10)			
2010	8	0	1	15	3	(27)	27	4.5	0.9
	방남 0건					0			
2011	7	1	0	13	1	(22)	24	4	0.8
	방남 1건 (가중치×2점)*					(2)			
2012	0	1	0	8	1	(10)	10	1.7	0.3
	방남 0건					(0)			
2013	1	0	1	3	0	(4)	8	1.3	0.2
	방남 2건 (가중치×2점)*					(4)			

구분 연도	교육 학술	문화 예술	체육	종교	언론 출판	가중치 총점	비율 (%)	상대 점수	
2014	8	2	0	12	0	(22)	32	5.3	1.0
	방남 5건 (가중치x2점)*					(10)			
2015	0	0	0	0	0	0	0	0	0
	0								
2016	0	0	0	0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2018	0	1	1	0	0	2	4	0.7	0.1
	방남 1건 (가중치x2점)*					2			
2019	1	2	0	0	0	3	3	0.5	0
	0								

※ 자료 : 통일부, 『2020 통일백서』; 통일부,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3) 사회문화 교류협력 기금

■ 2019년 사회문화영역에 정부가 지출한 남북협력기금¹⁴⁾은 인적왕래지원에 1,100만원, 사회문화협력지원에 36억 7,300만원, 이산가족교류지원에 44억 4,300만원, 인도적 지원(무상)에 313억 9,400만원으로 총 395억 2,100만원이다.

■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¹⁵⁾ 2019년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은 약 1,914.0조원으로 사회문화영역에 지출한 남북협력기금의 비율은 약 0.0021% 수준에 불과하다.

14) 남북교류협력기금 통계, <https://www.unikorea.go.kr/viewer/skin/doc.html?fn=2020012213591129751.hwp&rs=/viewer/doc/202012/> (검색일: 2020.12.16.)

15) 한국은행, “2019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lid=10056801&menuNo=200690> (검색일 2020.12.17.)

○ 남북협력기금은 GNI 대비 약 0.016% 차지하고, 그중 사회문화 분야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전체의 약 12.7% 수준이다.

■ 국민총소득(GNI) 대비 교류협력기금이 차지하는 비중 0.1%를 연간 사회문화 교류협력 기금의 기준점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교류협력기금 지출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 기준점 대비 2019년 사회문화 교류협력 기금의 비율은 1.72%로 2018년 0.825%에 비해 0.895%p 상승하였다. 최종적으로 2019년 사회문화 남북협력기금 변인에 부여된 상대점수는 0.3점이다.

〈표 2-49〉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사회문화회영역 지출액(억원)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	기준점과의 비교(%) (0.12=100)	상대 점수
1989	0	0	0	0
1990	0	0	0	0
1991	0	0	0	0
1992	0	0	0	0
1993	0	0	0	0
1994	0	0	0	0
1995	1,824	0.03	25.0	3
1996	55	0.001	0.8	0
1997	191	0.003	2.5	0.6
1998	199	0.003	2.5	0.6
1999	343	0.005	4.2	0.8
2000	1,896	0.03	25.0	3
2001	1,182	0.02	16.7	3.4
2002	2,450	0.04	33.3	6.6
2003	3,110	0.05	41.7	8.4

구분 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사회문화영역 지출액(억원)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	기준점과의 비교(%) (0.12=100)	상대 점수
2004	2,319	0.04	33.3	6.6
2005	3,904	0.06	50.0	10
2006	2,391	0.04	33.3	6.6
2007	4,032	0.06	50.0	10
2008	845	0.005	4.2	0.8
2009	345	0.003	2.5	0.6
2010	233	0.002	1.7	0.3
2011	129	0.001	0.8	0
2012	52	0.0002	0.2	0
2013	174	0.0012	1.0	0
2014	212	0.0015	1.3	0
2015	133	0.00088	0.7	0
2016	46	0.00027	0.225	0
2017	58	0.00035	0.292	0
2018	177	0.0010	0.825	0
2019	395	0.0021	1.72	0.3

※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통계, 한국은행의 2019년 국민계정 (잠정)을 활용하여 재구성.

4)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

■ 연간 이산가족 상봉 인원수의 기준점은 13,000명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이산가족 상봉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1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 2019년 이산가족 상봉 수는 1명으로 상대점수(10점 만점)는 0점이다.

〈표 2-50〉 이산가족 상봉 변인 상대점수

연도	구분	이산가족 상봉 인원수	비율(%)	상대점수
1989		0	0	0
1990		0	0	0
1991		0	0	0
1992		0	0	0
1993		0	0	0
1994		0	0	0
1995		0	0	0
1996		0	0	0
1997		0	0	0
1998		1	0.01	0
1999		5	0.04	0
2000		348	2.7	0.3
2001		296	2.3	0.2
2002		1,479	11.4	1
2003		233	1.8	0.2
2004		1,624	12.5	1.2
2005		239	1.8	0.2
2006		2,127	16.4	1.6
2007		3,207	24.7	2.5
2008		2,267	17.4	1.7
2009		1,449	11.1	1.1
2010		754	5.8	0.6
2011		0	0	0
2012		1	0.01	0
2013		0	0	0
2014		760	5.8	0.6
2015		976	7.5	0.8
2016		0	0	0
2017		0	0	0
2018		834	6.4	0.6
2019		1	0.01	0

※ 자료 : 통일부, 이산가족 신청 및 교류현황, 각 해당 연호¹⁶⁾

16) 통일부, 남북이산가족 교류현황, https://reunion.unikorea.go.kr/reuni/home/pds/reqstat/list_exc.do?mid=SM00000129 (검색일: 2020.12.16.)

5) 인적 이동의 자유화

- 인적 이동의 자유화 변인은 2009년 남북통합지수부터 기존 관광자유화 변인이 명칭 변경된 것이다. 기존의 인적 이동의 자유화 변인은 관광분야의 인적 이동과 경제분야의 인적 이동을 합한 것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탈북민 입국 수가 추가되었다.
- 인적 이동의 자유화는 남북한 주민의 지역 간 인적 이동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루어지는가를 측정한다. 남한주민의 북한 방문에 비해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은 상대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가중치(×2)를 부여한다.
- 연간 인적 이동의 자유화 기준점은 700만 명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이동 인원의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2019년 인적 이동 자유화 변인의 상대점수는 2018년과 동일하게 0점이다.
 - 2019년 남북 인적교류는 9,835명으로 전년의 7,498명 대비 2,337명 증가했으나 남북화물 물동량은 전년 9천 톤에서 4백 톤¹⁷⁾으로 감소하였다.
 - 관광 분야의 인적 이동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의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그해 11월에 개성관광마져 중단된 이후 2009년에서 2011년까지 0명을 유지해 왔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두자릿수를 증가한 이후 유지되다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속 0명이다.
 - 탈북민 입국 수의 경우 2012년부터 감소하여 2019년에는 1,047명이다.

17) 통일부, 남북인적교류 및 물동량 추이,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3 (검색일: 2020.12.16.)

〈표 2-51〉 인적 이동 자유화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관광분야 인적 이동	경제분야 인적 이동		탈북민 입국 수	소계	비율(%)	상대 점수
		방북	방남*				
1989	0	-	-	-	-	0	0
1990	0	-	-	-	-	0	0
1991	0	-	-	-	-	0	0
1992	0	-	-	-	-	0	0
1993	0	-	-	-	-	0	0
1994	0	-	-	-	-	0	0
1995	0	-	-	-	-	0	0
1996	0	-	-	-	-	0	0
1997	0	-	-	-	-	0	0
1998	10,554	2,193	0	-	12,747	0	0
1999	148,008	2,288	0	-	150,296	0	0
2000	212,247	2,800	15	-	215,062	0	0
2001	57,285	1,162	19	-	58,466	0	0
2002	84,347	2,762	115	1,142	88,366	1.3	0.2
2003	73,922	5,208	82	1,285	80,497	1.2	0.2
2004	266,223	18,250	120	1,898	286,491	4.1	0.8
2005	301,153	69,682	50	1,384	372,269	5.3	1.1
2006	234,446	87,845	13	2,028	324,332	4.6	0.9
2007	352,433	130,006	213	2,554	485,206	6.9	1.3
2008	303,088	176,970	78	2,803	482,939	6.9	1.3
2009	0	118,303	183	2,914	121,583	1.7	0.3
2010	0	128,346	132	2,402	131,012	1.9	0.3
2011	0	114,919	0	2,706	117,625	1.7	0.3
2012	33	120,128	0	1,502	121,664	1.7	0.3
2013	74	75,990	0	1,514	77,578	1.1	0.2
2014	33	126,014	0	1,397	127,444	1.8	0.3
2015	0	128,566	0	1,276	129,842	1.9	0.3

구분 연도	관광분야 인적 이동	경제분야 인적 이동		탈북민 입국 수	소계	비율(%)	상대 점수
		방북	방남*				
2016	0	14,786	0	1,418	16,204	0	0
2017	0	52	63	1,127	1,242	0	0
2018	0	6,689	809	1,137	8,635	0	0
2019	0	9,835	0	1,047	10,882	0	0

* 북한의 남한방문은 x2 가중치 부여.

** 2017년 8월 이후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폐간으로 분야별 방문인원 파악 불가는

※ 자료 : 통일부 「2020 통일백서」,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및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참조

6) 언론·방송의 자유화

■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에서 언론·방송부문의 자유화 변인은 일방향 교류, 쌍방향 교류, 제한적 자유화, 전면적 자유화로 나뉘며, 또 각 세부 지표는 모색, 제도화, 활성화로 하위 평가 단계를 가진다. 각 지표와 배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 2019년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의 상대점수는 8점이다. 2008년 10월에 제4차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에서 기사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쌍방향 교류의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였지만,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단계까지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에 2008년 이후 10년 연속 8점을 유지하고 있다.

〈표 2-52〉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지표와 배점

언론· 방송의 자유화 (20점)	세부지표	일방향 교류	쌍방향 교류	제한적 자유화	전면적 자유화
	배점	5	10	15	20
	세부배점	모색(1) 제도화(3) 활성화(5)	모색(6) 제도화(8) 활성화(10)	모색(11) 제도화(13) 활성화(15)	모색(16) 제도화(18) 활성화(20)

〈표 2-53〉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점수

구분 연도	언론·방송의 자유화 수준		자유화 점수
1989	방송, 신문에서 북한·통일 관련 고정 프로그램, 지면 마련 (예: KBS의 '남북의 창' 등)	일방향 교류의 모색 단계	1
1990		"	1
1991		"	1
1992		"	1
1993		"	1
1994		"	1
1995		"	1
1996		"	1
1997		"	1
1998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 북한 영상물의 국내 반입 허가	일방향 교류의 제도화 단계	3
1999		"	3
2000	6.15남북공동선언 채택, 언론·방송 교류 활성화	일방향 교류의 활성화 단계	5
2001		"	5
2002		"	5
2003		"	5
2004		"	5
2005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 공식 발족	쌍방향 교류의 모색 단계	6
2006		"	6
2007		"	6
2008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 개최: 기사교류합의	쌍방향 교류의 제도화 단계	8
2009		"	8
2010		"	8
2011		"	8
2012		"	8

구분 연도	언론·방송의 자유화 수준		자유화 점수
2013		”	8
2014		”	8
2015		”	8
2016		”	8
2017		”	8
2018		”	8
2019		”	8

7)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 점수 산출방법은 주요 국제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선수권대회 등)를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단일팀 구성 또는 공동 입장할 경우를 연평균 20회를 기준(20점)으로 하여 1회에 1점씩 부여하여 상대점수를 산출한다. 그러나 20회 이상이 되더라도 상한점수인 20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2019년 단일팀·공동입장 부문에서는 1회로 기록되어 1점이 부여되었다.
- 2019년에는 겨울 베를린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1.10~27)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했으며 호칭은 코리아, 단가는 아리랑을 사용하였다.

 -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단일팀으로 참가한 국제대회는 2011~2017년 동안 전무했고 2018년에도 국제대회를 공동 개최한 사례는 없으나 단일팀 구성과 공동입장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2018년 가장 대표적인 단일팀 구성과 공동입장은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및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사례다.

〈표 2-54〉 주요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국제대회 공동개최	단일팀·공동입장	총점	상대점수
1989	0	0	0	0
1990	0	0	0	0
1991	0	2	2	2
1992	0	0	0	0
1993	0	0	0	0
1994	0	0	0	0
1995	0	0	0	0
1996	0	0	0	0
1997	0	0	0	0
1998	0	0	0	0
1999	0	0	0	0
2000	0	1	1	1
2001	0	0	0	0
2002	0	0	0	0
2003	0	0	0	0
2004	0	1	1	1
2005	0	0	0	0
2006	0	0	0	0
2007	0	0	0	0
2008	0	0	0	0
2009	0	0	0	0
2010	0	0	0	0
2011	0	0	0	0
2012	0	0	0	0
2013	0	0	0	0
2014	0	0	0	0
2015	0	0	0	0

연도\구분	국제대회 공동개최	단일팀·공동입장	총점	상대점수
2016	0	0	0	0
2017	0	0	0	0
2018	0	11	24	20
2019	0	1	1	1

※ 자료 : 통일부 『2020 통일백서』

8)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은 사회문화 교류협력 관련 당국자 회담(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매개기구] 구성(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1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 단, 합의서의 경우는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가중치 2점을, 공동보도문의 경우는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1.5점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당국자 회담 총점의 산출방식은 “회담 수 + 합의서 채택수×2 + 공동보도문×1.5”이다.

■ 2019년 사회문화영역의 당국자 회담 총점은 0점이다.

○ 남북당국자 회담의 상대점수는 연간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의 기준점을 24회로 하고 상대점수를 회담 비율 1%가 변화할 때마다 0.1점이 가산 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19년 당국자 간 회담 상대점수는 0이다.

〈표 2-55〉 사회문화 교류협력 당국자 회담 상대점수

연도\구분	회담 (A)	합의서 (B)	합의서 가중치 (C=B*2)	공동보도문 (D)	공동보도문 가중치 (E=D*1.5)	총점 (A+C+E)	비율 (%)	상대 점수
1989	9	0	0	0	0	9	37.5	3.8
1990	7	0	0	0	0	7	29.2	3
1991	7	4	8	0	0	15	62.5	6.3

구분 연도	회답 (A)	합의서 (B)	합의서 가중치 (C=B*2)	공동보도문 (D)	공동보도문 가중치 (E=D*1.5)	총점 (A+C+E)	비율 (%)	상대 점수
1992	0	0	0	0	0	0	0	0
1993	0	0	0	0	0	0	0	0
1994	0	0	0	0	0	0	0	0
1995	0	0	0	0	0	0	0	0
1996	0	0	0	0	0	0	0	0
1997	0	0	0	0	0	0	0	0
1998	0	0	0	0	0	0	0	0
1999	0	0	0	0	0	0	0	0
2000	0	0	0	0	0	0	0	0
2001	0	0	0	0	0	0	0	0
2002	2	1	2	0	0	4	16.7	1.7
2003	1	1	2	0	0	3	12.5	1.3
2004	1	1	2	0	0	3	12.5	1.3
2005	6	2	4	1	1.5	11.5	47.9	4.8
2006	3	0	0	0	0	3	12.5	1.3
2007	6	0	0	3	4.5	10.5	43.8	4.4
2008	1	1	2	0	0	3	12.5	1.3
2009	2	1	2	0	0	4	16.7	1.7
2010	4	1	2	0	0	6	25	2.5
2011	0	0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0	0
2013	1	1	2	0	0	3	12.5	1.3
2014	2	0	0	0	0	2	8.3	0.9
2015	1	1	2	0	0	3	12.5	1.3
2016	0	0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0	0
2018	7	0	0	7	10.5	17.5	72.9	7.3
2019	0	0	0	0	0	0	0	0

※ 자료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통계' (<http://dialogue.unikorea.go.kr>)

- 공동협의기구의 경우는 구성에 10점이 배점되고, 기구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경우 10점이 추가 배점된다. 2019년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에 부여되는 상대점수는 0점이다.

〈표 2-56〉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 종합점수

구분 연도	당국자 회담 (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 구성 (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 (10점 만점)	종합점수 (30점 만점)
1989	3.8	0	0	3.8
1990	3	0	0	3
1991	6.3	0	0	6.3
1992	0	10	5*	15
1993	0	0	0	0
1994	0	0	0	0
1995	0	0	0	0
1996	0	0	0	0
1997	0	0	0	0
1998	0	0	0	0
1999	0	0	0	0
2000	0	0	0	0
2001	0	0	0	0
2002	1.7	0	0	1.7
2003	1.3	0	0	1.3
2004	1.3	0	0	1.3
2005	4.8	0	0	4.8
2006	1.3	0	0	1.3
2007	4.4	10	0	14.4
2008	1.3	10	0	11.3
2009	1.7	10	0	11.7
2010	2.5	10	0	12.5
2011	0	10	0	10

구분 연도	당국자 회담 (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 구성 (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 (10점 만점)	종합점수 (30점 만점)
2012	0	10	0	10
2013	1.3	10	0	11.3
2014	0.9	10	0	10.9
2015	1.3	10	0	11.3
2016	0	10	0	10
2017	0	10	0	10
2018	7.3	10	0	17.3
2019	0	10	0	10

* 1992년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에서 5점을 부여한 것은 1992년 3월~10월까지 총 6차례의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어 매년 12회(10점 만점) 개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라. 종합

-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제도통합지수와 관계통합지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앞에서 제시한 단계별 배점 기준에 따라 사회문화영역의 구조통합 수준을 단계로 제시한다.
- 제도적 통합지수 19점과 관계적 통합지수 19.4점을 합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한 2019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는 38.4이다. 이 수치는 단계별 배점 기준에 따라 2단계(21~40점)에 해당된다. 2단계는 교류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나, 접촉빈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 2019년 구조통합지수는 2018년 55.6점에 비해 17.2점 감소하였다.

〈표 2-57〉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연도	제도적 통합 (90)			관계적 통합 (160)								제도 · 관계 통합 지수 (합계)	통합 단계 (250)
	공동 집행 기구 (30)	단일 제도 화 (30)	공동 법제 화 (30)	인적 왕래 (20)	공동 행사 (20)	교류 협력 기금 (20)	이산 가족 상봉 상시화 (10)	인적 이동 자유 화 (20)	언론 / 방송 자유 화 (20)	국제대회 공동개최 · 단일팀 (20)	정례화 (30)		
1989	0	0	1.1	0	0	0	0	0	1	0	3.8	5.9	0단계
1990	0	0	1.1	0	0	0	0	0	1	0	3	5.1	0단계
1991	0	0	1.1	0	0	0	0	0	1	2	6.3	10.4	0단계
1992	0	0	1.3	0	0	0	0	0	1	0	15	17.3	1단계
1993	0	0	1.5	0	0	0	0	0	1	0	0	2.5	0단계
1994	0	0	1.6	0	0	0	0	0	1	0	0	2.6	0단계
1995	0	0	1.9	0	0	3	0	0	1	0	0	5.9	0단계
1996	0	0	2.2	0	0	0	0	0	1	0	0	3.2	0단계
1997	0	0	3.2	0	0.2	0.6	0	0	1	0	0	5.0	0단계
1998	0	0	6.9	0	1	0.6	0	0	3	0	0	11.5	1단계
1999	0	0	7.0	0.4	2.8	0.8	0	0	3	0	0	14	1단계
2000	0	0	7.1	0.6	2.8	3	0.3	0	5	1	0	19.8	1단계
2001	0	0	7.2	0.2	2.8	3.4	0.2	0	5	0	0	18.8	1단계
2002	0	0	7.2	0.2	3.6	6.6	1	0	5	0	1.7	25.3	2단계
2003	0	0	7.4	0.2	3.4	8.4	0.2	0	5	0	1.3	25.9	2단계
2004	0	0	7.5	0.8	2.8	6.6	1.2	0.8	5	1	1.3	27.0	2단계
2005	0	0.9	7.5	0.9	7.4	10	0.2	1.1	6	0	4.8	38.8	2단계
2006	0	1.7	7.5	0.8	7.2	6.6	1.5	0.9	6	0	1.3	33.5	2단계
2007	0	2.6	9.1	1	12	10	2.5	1.4	6	0	14.4	59.0	3단계
2008	0	3.5	9.1	0.9	6.4	0.8	1.7	1.4	8	0	11.3	43.1	3단계
2009	0	5	9.2	0	1.1	0.6	1.1	0.3	8	0	11.7	37.0	2단계
2010	0	5.7	8.2	0	0.9	0.3	0.6	0.3	8	0	12.5	36.6	2단계
2011	0	5.7	8.3	0	0.8	0	0	0.3	8	0	10	33.1	2단계
2012	0	5.7	8.3	0	0.3	0	0	0.3	8	0	10	32.6	2단계

연도	제도적 통합 (90)			관계적 통합 (160)								제도 · 관계 통합 지수 (합계)	통합 단계 (250)
	공동 집행 기구 (30)	단일 제도 화 (30)	공동 법제 화 (30)	인적 왕래 (20)	공동 행사 (20)	교류 협력 기금 (20)	이산 가족 상봉 상시화 (10)	인적 이동 자유 화 (20)	언론 / 방송 자유 화 (20)	국제대회 공동개최 · 단일팀 (20)	정례화 (30)		
2013	0	5.7	9.1	0	0.2	0	0	0.4	8	0	11.3	34.7	2단계
2014	0	7.7	8.9	0	1.0	0	0.6	0.5	8	0	10.9	37.6	2단계
2015	0	7.2	8.3	0	0	0	0.8	0.3	8	0	11.3	35.9	2단계
2016	0	7.2	8.4	0	0	0	0	0	8	0	10	33.6	2단계
2017	0	7.2	8.8	0	0	0	0	0	8	0	10	34	2단계
2018	0	9.9	8.7	0	0.1	0	0.6	0	8	11	17.3	55.6	3단계
2019	0	9.9	9.1	0	0.1	0.3	0	0	8	1	10	38.4	2단계

*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지표의 만점의 수치를 표시

〈표 2-58〉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연도	제도적 통합	관계적 통합	구조통합지수
1989	1.1	4.8	5.9
1990	1.1	4	5.1
1991	1.1	9.3	10.4
1992	1.3	16	17.3
1993	1.5	1	2.5
1994	1.6	1	2.6
1995	1.9	4	5.9
1996	2.2	1	3.2
1997	3.2	1.8	5.0
1998	6.9	4.6	11.5
1999	7.0	7.4	14.4
2000	7.1	13.3	20.4
2001	7.2	11.6	18.8

연도	제도적 통합	관계적 통합	구조통합지수
2002	7.2	18.3	25.5
2003	7.4	18.7	26.1
2004	7.5	19.5	27.0
2005	8.4	30.4	38.8
2006	9.2	24.3	33.5
2007	11.7	47.3	59.0
2008	12.6	30.5	43.1
2009	14.2	22.8	37.0
2010	13.9	22.7	36.6
2011	14.0	19.1	33.1
2012	14.0	18.6	32.6
2013	14.8	19.9	34.7
2014	16.6	21.0	37.6
2015	15.5	20.4	35.9
2016	15.6	18.0	33.6
2017	16.0	18.0	34.0
2018	18.6	37	55.6
2019	19.0	19.4	38.4

〈표 2-59〉 2018/2019년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통합 영역	지표	2018년	2019년	증감	요인
제도적 통합	공동집행기구	0	0	0	전년 대비 변화 없음
	단일 제도화	9.9	9.9	0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수준 변화 없음
	공동 법제화	8.7	9.1	+0.4	전문가조사 결과 공동법제화 수준 약간 증가
	합계	18.6	19.0	+0.4	전년 대비 약간 증가
관계적 통합	인적 왕래	0	0	0	전년 대비 변화 없음
	공동행사	0.1	0.1	0	공동행사 변화 없음
	사회문화교류 협력기금집행	0	0.3	+0.3	전년 대비 약간 증가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0.6	0.0	-0.6	이산가족 상봉 감소
	인적 이동의 자유화	0	0	0	전년 대비 변화 없음
관계적 통합	언론방송의 자유화	8	8	0	전년 대비 변화 없음
	국제대회 공동개최, 단일팀 구성	11	1	-10	단일팀 1개 구성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17.3	10	-7.3	당국자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음
	합계	37.0	19.4	-17.6	전년 대비 크게 감소
계		55.6	38.4	-17.2	전년 대비 크게 감소

■ 2019년 구조통합지수는 28.4점으로 전년 55.6점에서 대폭 하락했으며, 이는 관계통합지수 대폭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전년 대비 제도통합지수는 0.4점 상승했으나, 관계통합지수는 17.6점 하락했다.

- 제도적통합 지수 소폭 상승은 전문가 조사 결과 ‘공동법제화 수준’이 다소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 관계적통합 지수 대폭 하락은 2018년 대비 △이산가족 상봉 감소 △국제대회 공동개최, 단일팀 구성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감소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이 전년 대비 -10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2019년 당국자회담이 전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가 -7.3로 줄어들었다.

- 2018년 사회문화 통합지수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2019년 대폭 하락한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제도+관계)는 2010년대 들어 남북 사회문화 통합 수준이 큰 변화 없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을 나타낸다.

2장. 의식통합지수

1. 지수구성

■ 의식통합지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영역으로 나뉘고, 총배점은 250점이다.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에는 각각 80점씩 부과되고 사회문화영역의 의식통합에는 90점이 부과된다. 사회문화영역의 배점이 더 큰 이유는 사회문화영역이 사회통합의 본질이자 정치·경제영역의 통합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각 영역별 의식통합지수의 변인과 배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1〉 의식통합지수 변인과 배점

영역		변인	배점
정치영역	남북한 공동	통일의 필요성	20
		상대방에 대한 관계 인식	1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20
		남북간 정치제도(선거방식, 법률제도) 차이 인식	2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10
	소계		80
경제영역	남한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2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10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10
	북한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15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 대한 인지도	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10
소계		80	

영역		변인	배점
사회문화 영역	남북한 공통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0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20
	소계		90
합계			250

■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020년 남북통합지수에 활용한 설문조사 데이터는 남한주민의 경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9년 7월 1일 ~7월 26일에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의 성인남녀 1,200명을 유효표본으로 실시한 『2019 통일의식조사』의 자료이고, 북한주민의 경우 동 기관이 2020년에 남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109명을 유효표본으로 실시한 『북한주민 통일 의식 2020』의 자료이다.¹⁸⁾

■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간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까지 총 12차례(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18)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북한 이탈주민을 통해 본 포스트 하노이 북한사회 변화」 참조. 이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지 준거 시점을 조사 시기보다 1년 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실시된 조사의 경우 설문지 준거 시점은 2019년이다.

- 2008년과 2009년의 조사는 하나원에 입소해 있는 북한이탈주민(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2008년과 2009년 조사의 경우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연도가 일치되지 않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측정되는 의식의 기준연도 편차가 크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 기존 조사의 표본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1년의 조사부터는 직전 연도에 북한을 나온 사람들로 한정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2020년의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109명 모두는 2019년 1월~12월 중 북한지역에 거주했고, 그 중간이나 2020년에 남한에 입국한 북한주민들이다.

2. 영역별 지수

가. 경제

-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지수의 변인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3-2〉 경제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변인		배점(남한)
남한주민 설문내용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2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10
북한주민 설문내용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15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10

1) 남한주민 지표별 응답율과 상대점수

가)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 통일에 대한 집단적 이익 기대감의 긍정 응답률은 2019년 61.9%으로 전년 대비 4.2% 포인트 증가하여 201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지난해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개인적 이익 기대감의 긍정 응답률 역시 30.9%를 기록하여 2018년 26.7%에 비해 4.2% 포인트 증가하였다. 2016년과 2017년에 2년 연속 하락한데에서 반등하여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최근의 추세는 집단적 이익 기대감에 비해 개인의 이익 기대감이 약 1/2 수준의 긍정 응답률을 보이는 가운데 그 추이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 정리하면,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해 2018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상대점수는 9.3점이다.

〈표 3-3〉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3	질문: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택	48.6	7.0/20
	질문: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선택	21.8	
2014	”	55.5	8.2/20
	”	26.7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5	"	57.4	8.5/20
	"	28.0	
2016	"	53.0	7.8/20
	"	24.6	
2017	"	52.1	7.6/20
	"	23.9	
2018	"	57.7	8.4/20
	"	26.7	
2019	"	61.9	9.3/20
	"	30.9	

나) 남한 주민의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평가

- 본 항목은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남한 주민의 평가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2017년 이후 조사에서는 각 정책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각 정책이 ‘통일을 위해 시급한’ 정도를 묻는 질문으로 대체되었다.
- 2019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75.4%로 2018년 71.3%에서 4.1%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6.1%로 전년 대비 1.2%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상대점수 역시 6.3점에서 6.6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 이는 2019년 북미·남북 간 회담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의식이 지난해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4〉 남한 주민의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평가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3	질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응답: “매우 도움이 된다”와 “다소 도움이 된다” 선택	61.8	5.4/10
	질문: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 지원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도움이 된다”와 “다소 도움이 된다” 선택	46.3	
2014	”	62.2	5.5/10
	”	46.9	
2015	”	65.4	5.8/10
	”	50.3	
2016	”	52.5	4.7/10
	”	41.8	
2017	질문: “남북한 경제협력에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시급하다”와 “다소 시급하다” 선택	62.5	5.3/10
	질문: “인도적 대북 지원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시급하다”와 “다소 시급하다” 선택	43.3	
2018	”	71.3	6.3/10
	”	54.9	
2019	”	75.4	6.6/10
	”	56.1	

다)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

■ 과거에 지수 산출을 위해 사용되었던 설문 문항이 통일외식조사에서 다른 문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7년 이후 본 항목을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긍정적 응답과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부정적 응답의 비중의 평균을 구하여 산출한다.

- 2013년부터 본 항목은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문과 “대북 지원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질문을 활용하여 지수를 산출하여 왔다.
- 그러나 2016년에는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질문이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질문으로 대체되었으며, 뒤이어 2017년에는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대체되었다.

■ 2019년 대북 지원 선호 정도에 대한 점수는 4.6점으로 2018년보다 0.4점 증가하였다. 2019년의 점수 증가는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서는 긍정응답이 줄어든 반면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야한다는 응답은 크게 상승한 결과로 보인다.

〈표 3-5〉 대북 지원의 선호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3	<p>질문: (1)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2)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p> <p>응답: (1)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와 “약간 도움이 된다” 선택한 사람과 (2)에서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택한 사람의 평균을 구함</p>	27.4	2.7/10
2014	”	32.8	3.3/10
2015	”	32.5	3.3/10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6	질문: (1) 상동, (2)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응답: (1)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와 “약간 도움이 된다” 선택한 사람과 (2)에서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택한 사람의 평균을 구함	34.2	3.4/10
2017	질문: (1) “북한의 개혁 개방에 인도적 대북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상동 응답: (1)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와 “약간 도움이 된다” 선택한 사람과 (2)에서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택한 사람의 평균을 구함	37.1	3.7/10
2018	”	41.5	4.2/10
2019	”	45.8	4.6/10

2) 북한주민 지표별 응답율과 상대점수

가)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는 2019년 67.9%로 전년 대비 5.5% 포인트 감소하였다. 2015년부터 3년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며 최저점을 기록한 뒤 2018년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하였지만 2019년 다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한편, 북한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로 ‘개혁·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을 선택한 비율은 23.9%로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2015년 이후로 큰 변화 없이 20% 안팎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북한체제 평가 및 시장경제 부문의 상대점수는 2018년의 7.1점에서 2019년 6.9점으로 0.2점 하락하였다.

〈표 3-6〉 북한체제 평가와 시장경제 우호도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3	질문: “귀하는 북한에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응답: “자본주의 지지” 선택	75.1	7.0/15
	질문: “귀하는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개혁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 선택	18.1	
2014	“	76.6	7.9/15
	“	28.7	
2015	“	75.9	7.3/15
	“	21.3	
2016	“	72.0	6.9/15
	“	19.7	
2017	“	59.8	5.9/15
	“	19.5	
2018	“	72.4	7.1/15
	“	21.6	
2019	“	67.9	6.9/15
	“	23.9	

나) 대북지원에 대한 인지도와 우호도

■ ‘남한의 지원여부에 대한 인지’ 및 ‘긍정적 평가’는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남한의 대북 지원 여부를 북한주민이 알고 있냐’는 설문에서는 54.1%가 있다고 답해 전년 47.7% 대비 6.4% 포인트 상승하였다. 장기적으로 보면, 2014년 71.3%를 기록한 후 2017년 소폭 반등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19년 다시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에 반해 남한의 대북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18년 67.2%에서 2019년 76.2%로 대폭 상승하였다. 남북 경제교류의 단절이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에서도 대북지원 인지도는 올해 크게 반등하였다.

■ 종합하면,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와 ‘대북지원에 대한 우호도’ 모두 올해 크게 상승하여 점수 상승을 이끌었으며 전년 대비 1.2점 상승한 9.8점을 기록하였다.

〈표 3-7〉 대북 지원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3	질문: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하는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잘 알고 있다.” 혹은 “조금 잘 알고 있다.” 선택	62.4	10.2/15
	질문: “귀하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대북 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혹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선택	73.0	
2014	”	71.3	10.9/15
	”	74.6	
2015	”	63.0	10.4/15
	”	75.0	
2016	”	53.1	9.5/15
	”	74.2	
2017	”	56.3	9.1/15
	”	65.5	
2018	”	47.4	8.6/15
	”	67.2	
2019	”	54.1	9.8/15
	”	76.2	

다)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한 우호도

-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 사업에 대한 우호도는 2011년 첫 조사 이래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 왔지만 2019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 조사에서 ‘남한의 경제투자를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78.0%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여 2018년 66.4%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다.
- 이에 대북투자 우호도 부문의 상대점수는 2018년보다 1.2점 상승한 7.8 점을 기록하였다.

〈표 3-8〉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3	질문: “귀하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 투자를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혹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선택	85.2	8.5/10
2014	”	76.3	7.6/10
2015	”	73.1	7.3/10
2016	”	70.4	7.0/10
2017	”	66.7	6.7/10
2018	”	66.4	6.6/10
2019	”	78.0	7.8/10

3) 종합

- 지난 6년간 의식지수를 비교하면, 경제 부문 점수는 2015년까지 40점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2016년과 2017년 30점대로 내려앉은 후 2018년에는 다시 반등하여 40점대를 회복하였고 2019년에는 크게 상승하여 45.0점을 기록,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남한주민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13년 15.1점 → 2014년 17.0점 → 2015년 17.6점 → 2016년 15.9점 → 2017년 16.6점 → 2018년 18.9점 → 2019년 20.5점으로 집계되었다. 2016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그에 따른 남북 간 교류 중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남북 간 분위기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2019년에도 남한주민의 상대점수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이어갔다.

■ 북한주민(북한이탈주민)의 의식조사 점수는 2018년 반등의 추세를 올해도 이어갔다.

○ 북한주민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13년 25.7점 → 2014년 26.4점 → 2015년 25.0점 → 2016년 23.4점 → 2017년 21.7점 → 2018년 22.3점 → 2019년 24.5점으로 2015년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 21점대 까지 내려갔으나 2018년 이후 2년 연속 상승을 기록하였다.

○ 2019년 조사에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그의 ‘대북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와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모두 비교적 크게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는 2019년 국제사회와의 대화가 단절된 이후에도 대북지원과 대북투자에 대한 북한주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 이상을 종합하면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지수는 2018년 41.2점에서 2019년 45.0점으로 3.8점 상승하였다.

〈표 3-9〉 경제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질문과 응답	점수/만점	총점/만점
2013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0/20	15.1/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4/10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2.7/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7.0/15	25.7/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0.2/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8.5/10	
총점			40.8	
2014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8.2/20	17.0/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5/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3.3/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7.9/15	26.4/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0.9/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6/10	
총점			43.4	
2015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8.5/20	17.6/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8/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3.3/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7.3/15	25.0/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0.4/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3/10	
총점			42.6	
2016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8/20	15.9/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4.7/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3.4/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6.9/15	23.4/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9.5/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0/10	
총점			39.3	

		질문과 응답	점수/만점	총점/만점
2017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6/20	16.6/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3/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3.7/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5.9/15	21.7/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9.1/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6.7/10	
총점			38.3	
2018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8.4/20	18.9/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6.3/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4.2/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7.1/15	22.3/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8.6/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6.6/10	
총점			41.2	
2019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9.3/20	20.5/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6.6/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4.6/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6.9/15	24.5/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9.8/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8/10	
총점			45.0	

나. 정치

정치영역의 의식통합지수의 변인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3-10〉 정치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변인	배점(남한)	배점(북한)
통일의 필요성	10	10
남북간 정치제도의 동질성	10	10
상대방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	10	1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5	5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5	5

1) 지표별 응답률과 상대점수

가)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남북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얼마나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을 제기했다. 2019년 남한주민은 53.0%, 북한주민은 93.1%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북주민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로 환산하면 각각 5.3점, 9.4점으로 총 14.7점(20점 만점)이 된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상대점수는 2008년 14.7점, 2009년 15.2점, 2010년 15.5점, 2011년 14.8점, 2012년 15.0점, 2013년 15.5점, 2014년 15.4점, 2015년 14.6점, 2016년 15.1점 2017년 14.9점, 2018년 15.3점을 기록하였다.

〈표 3-1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연도	주민 구분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1.6	5.2
	북한주민	응답: “필요하다” 선택	95.2	9.5
2009	남한주민	”	55.8	5.5
	북한주민	”	97.0	9.7
2010	남한주민	질문: OO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59.0	5.9
	북한주민	응답: “필요하다” 선택	94.7	9.6
2011	남한주민	”	53.7	5.4
	북한주민	”	93.8	9.4
2012	남한주민	”	57.0	5.7
	북한주민	”	93.3	9.3
2013	남한주민	”	54.8	5.5
	북한주민	”	100.0	10
2014	남한주민	”	55.9	5.6
	북한주민	”	98.0	9.8
2015	남한주민	”	51.0	5.1
	북한주민	”	94.9	9.5
2016	남한주민	”	53.4	5.3
	북한주민	”	97.8	9.8
2017	남한주민	”	53.8	5.4
	북한주민	”	95.4	9.5
2018	남한주민	”	59.7	6.0
	북한주민	”	93.1	9.3
2019	남한주민	”	53.0	5.3
	북한주민	”	93.6	9.4

* 2010, 2014, 2015, 2017년 남북한주민 응답률 및 상대점수 오기 수정

나) 남북한 간 정치제도의 동질성

■ 남북한 주민들이 남북의 정치제도가 동질적이라고 인식하면 의식통합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주민에게 남북한 간 선거제도 차이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남북의 선거방식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5.8%였고, 북한주민은 1.8%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를 상대점수(10점)로 환산하면 각각 0.6점, 0.2점이 된다. 이 둘을 합하면 2019년 남북 정치제도의 동질성에 대한 인식은 0.8점(20점 만점)이다. 2008년 0.8점, 2009년 0.7점, 2010년 1.3점, 2011년 1.0점, 2012년 0.9점, 2013년 1.8점, 2014년 1.2점, 2015년 1.4점, 2016년 1.1점, 2017년 1.1점, 2018년 0.9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하락한 수치이다.

〈표 3-12〉 남북 정치제도의 동질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연도	주민 구분	질문과 응답	질문1 응답률 (%)	질문2 응답률 (%)	평균 응답률 (%)	상대 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 측면(선거방식)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7	4.9	5.3	0.5
	북한주민	응답: “없다” 선택	3.5	2.3	2.9	0.3
2009	남한주민	"	4.2	4.2	4.2	0.4
	북한주민		3.5	3.0	3.3	0.3
2010	남한주민	질문: OO님은 현재 다음 측면(선거방식)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6.2	11.3	8.8	0.9
	북한주민	응답: “없다” 선택	3.8	-	3.8	0.4
2011	남한주민	"	6.1	-	6.1	0.6
	북한주민		3.8	-	3.8	0.4
2012	남한주민	"	6.6	-	6.6	0.7
	북한주민		2.3	-	2.3	0.2

연도	주민 구분	질문과 응답	질문1 응답률 (%)	질문2 응답률 (%)	평균 응답률 (%)	상대 점수
2013	남한주민	"	8.6	-	8.6	0.9
	북한주민		9.0	-	9.0	0.9
2014	남한주민	"	9.0	-	9.0	0.9
	북한주민		2.5	-	2.5	0.3
2015	남한주민	"	6.7	-	6.7	0.7
	북한주민		6.5	-	6.5	0.7
2016	남한주민	"	7.6	-	7.6	0.8
	북한주민		3.0	-	3.0	0.3
2017	남한주민	"	8.2	-	8.2	0.8
	북한주민		3.4	-	3.4	0.3
2018	남한주민	"	6.4	-	6.4	0.6
	북한주민		2.6	-	2.6	0.3
2019	남한주민	"	5.8	-	5.8	0.6
	북한주민		1.8	-	1.8	0.2

* 2017, 2018년 남한주민 응답률 및 상대점수 오기 수정

다)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 남북한이 상대방에 대해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북의 정치통합을 위해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남한주민은 42.0%가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북한주민은 55.5%가 남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상대점수(10점)로 환산하면 각각 4.2점, 5.6점으로 총 9.8점이 된다. 이 부문의 총 점수는 2008년 11.7점, 2009년 9.5점, 2010년 6.9점, 2011년 6.7점, 2012년 8.5점, 2013년 7.0점, 2014년 7.7점, 2015년 7.3점, 2016년 8.1점, 2017년 7.3점, 2018년 9.7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증가한 수치이다.

〈표 3-13〉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연도	주민 구분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앞으로 북한의(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없다” 선택	47.8	4.8
	북한주민		68.7	6.9
2009	남한주민	"	37.3	3.7
	북한주민		58.4	5.8
2010	남한주민	"	32.5	3.2
	북한주민		36.9	3.7
2011	남한주민	"	21.7	2.2
	북한주민		44.7	4.5
2012	남한주민	"	31.1	3.1
	북한주민		54.2	5.4
2013	남한주민	"	34.0	3.4
	북한주민		36.2	3.6
2014	남한주민	"	25.1	2.5
	북한주민		51.6	5.2
2015	남한주민	"	29.5	3.0
	북한주민		42.6	4.3
2016	남한주민	"	33.9	3.4
	북한주민		46.9	4.7
2017	남한주민	"	28.8	2.9
	북한주민		43.6	4.4
2018	남한주민	"	43.9	4.4
	북한주민		53.4	5.3
2019	남한주민	"	42.0	4.2
	북한주민		55.5	5.6

라)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도 통합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데에 유용한 변인이다. 남한주민은 67.9%가 북한을 긍정적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북한주민은 68.8%가 남한을 긍정적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상대점수(5점)로 환산하면 남북한이 둘 다 3.4점으로 총 6.8점이 된다. 남한주민의 북한에 대한 긍정인식은 전년 대비 0.2점 감소하였고, 북한주민의 남한에 대한 긍정인식은 0.6점 증가하였다. 총 점수는 2008년 7.4점, 2009년 7.2점, 2010년 6.2점, 2011년 6.7점, 2012년 6.9점, 2013년 6.1점, 2014년 6.3점, 2015년 5.8점, 2016년 5.9점, 2017년 6.0점, 2018년 6.4점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0.4점 증가했다.

〈표 3-14〉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연도	주민 구분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북한이(남한이) 귀하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9.5	4.0
	북한주민	응답: “지원대상” + “협력대상” 선택	67.8	3.4
2009	남한주민	”	68.1	3.4
	북한주민	”	75.7	3.8
2010	남한주민	”	64.0	3.2
	북한주민	”	60.2	3.0
2011	남한주민	”	63.7	3.2
	북한주민	”	70.0	3.5
2012	남한주민	”	62.9	3.1
	북한주민	”	76.7	3.8
2013	남한주민	”	56.8	2.8
	북한주민	”	66.6	3.3
2014	남한주민	”	58.8	2.9
	북한주민	”	68.1	3.4

연도	주민 구분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5	남한주민	"	52.5	2.6
	북한주민		64.9	3.2
2016	남한주민	"	55.3	2.8
	북한주민		62.1	3.1
2017	남한주민	"	54.9	2.7
	북한주민		65.5	3.3
2018	남한주민	"	71.0	3.6
	북한주민		56.0	2.8
2019	남한주민	"	67.9	3.4
	북한주민		68.8	3.4

* 2017, 2018년 남한주민 응답률 및 상대점수 오기 수정

마)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 남북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이 상대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가 어떠한가를 질문하였다. 남한주민들은 선군정치(68.9%), 주체사상(83.5%), 천리마운동(81.1%), 고난의 행군(75.0%), 장마당(70.8%), 모란봉악단(91.5%)에 대해 팔호 안의 수치만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인지도는 78.5%였다. 북한주민들은 4.19 혁명(73.4%), 5.18 광주항쟁(85.3%), 88서울올림픽(65.1%), 2002 월드컵(64.2%), 세월호 사건(72.5%), 개성공업지구 운영(88.1%), 촛불 집회(60.6%), 1997 IMF 외환위기(28.4%), K-POP(케이팝)(28.4%)에 대해 팔호 안의 수치만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인지도는 62.9%였다. 한편, 북한주민은 남한의 쌀과 비료에 대한 대북지원에 대해서 54.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두 결과를 종합한 평균 인지도는 58.5%가 된다. 이를 상대점수(5점)로 환산하면 남한의 경우 3.9점, 북한의 경우 2.9점으로 총 6.8점이 된다.

■ 남한주민들의 북한인지도는 2008년 2.9점, 2009년 2.6점, 2010년 3.0점, 2011년 3.2점, 2012년 3.0점, 2013년 3.0점, 2014년 3.1점, 2015년 3.5점, 2016년 3.5점, 2017년 3.5점, 2018년 3.9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북한주민들의 남한인지도는 2008년, 2010년 3.4점, 2009년, 2011, 2012년 3.5점, 2013년 3.2점, 2014년 3.6점, 2015년 3.5점, 2016년 3.2점, 2017년 3.4점, 2018년 3.0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감소하였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K-POP과 같이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보기를 추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종합인지도는 2008년 6.3점, 2009년 6.1점, 2010년 6.4점, 2011년 6.7점, 2012년 6.5점, 2013년 6.2점, 2014년 6.7점, 2015년 7.0점, 2016년 6.7점, 2017년 6.9점, 2018년 6.9점으로 2019년은 전년 대비 0.1점 감소한 점수를 기록하였다.

〈표 3-15〉 상대방 인지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연도	주민 구분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꽃제비, 아리랑축전), (북한-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58.6	2.9
	북한주민	응답: “알고 있다” 선택	68.7	3.4
2009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북한-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52.8	2.6
	북한주민	응답: “알고 있다” 선택	70.8	3.5
2010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60.6	3.0
	북한주민	응답: “알고 있다” 선택	68.1	3.4
2011	남한주민	2010년과 상동	63.2	3.2
	북한주민		70.1	3.5

2012	남한주민	2010년과 상동	60.7	3.0
	북한주민		70.7	3.5
2013	남한주민	2010년과 상동	59.8	3.0
	북한주민		63.5	3.2
2014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업지구 운영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a 응답: “알고 있다” 선택	62.5	3.1
	북한주민		73.2	3.6
2015	남한주민	2014년과 상동	69.6	3.5
	북한주민		70.3	3.5
2016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모란봉악단),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업지구 운영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b 응답: “알고 있다” 선택	69.2	3.5
	북한주민		62.9	3.2
2017	남한주민	2016년과 상동	69.4	3.5
	북한주민		68.4	3.4
2018	남한주민	2016년과 상동	78.6c	3.9
	북한주민		59.8	3.0
2019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모란봉악단),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업지구 운영, 촛불집회, 1997 IMF 외환위기, K-POP(케이팝)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d 응답: “알고 있다” 선택	78.5	3.9
	북한주민		58.5	2.9

a. 2014년 북한주민 질문 수정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삭제, 세월호 사건, 개성공업지구 운영 추가)

b. 2016년 남한주민 질문 수정 (아리랑축전 삭제, 모란봉악단 추가)

c. 2018년 남한주민 응답률 오기 수정

d. 2019년 북한주민 질문 수정 (촛불집회, 1997 IMF 외환위기, K-POP(케이팝) 추가)

2) 종합

- 정치영역 의식통합지수는 남한과 북한을 각각 50%씩 배정하여 총 80점 만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5개의 측정지표에 대한 남북한의 상대점수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남북한 의식통합을 산출하였다. 2019년도 정치영역 의식통합지수는 80.0점 만점에 38.9점이다.
- 2019년의 정치영역 의식통합지수는 전년인 2018년과 비교하면 0.3점 하락하였다. 항목별로 보면,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이 전년 대비 0.1점 상승했고,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이 전년 대비 0.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의 필요성, 정치제도 동질성,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는 2018년에 비하여 각각 0.6점, 0.1점, 0.1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북한 주민의 정치영역 통합의식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하락하다 2012년에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3년에는 다시 하락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36~37점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에는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3.0점)하였고, 2019년에는 0.3점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된다.

〈표 3-16〉 정치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연도	항목	남한 점수/만점	북한 점수/만점	합계
2008	통일의 필요성	5.2/10	9.5/10	14.7/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5/10	0.3/10	0.8/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4.8/10	6.9/10	11.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4.0/5	3.4/5	7.4/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2.9/5	3.4/5	6.3/10
	총점	17.4/40	23.5/40	40.9/80

연도	항목	남한 점수/만점	북한 점수/만점	합계
2009	통일의 필요성	5.6/10	9.7/10	15.3/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4/10	0.3/10	0.7/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7/10	5.8/10	9.5/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4/ 5	3.8/ 5	7.2/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2.6/ 5	3.5/ 5	6.1/10
	총점	15.7/40	23.1/40	38.8/80
2010	통일의 필요성	5.9/10	9.6/10	15.5/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9/10	0.4/10	1.3/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2/10	3.7/10	6.9/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2/ 5	3.0/ 5	6.2/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0/ 5	3.4/ 5	6.4/10
	총점	16.2/40	20.1/40	36.3/80
2011	통일의 필요성	5.4/10	9.4/10	14.8/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6/10	0.4/10	1/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2.2/10	4.5/10	6.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2/ 5	3.5/ 5	6.7/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2/ 5	3.5/ 5	6.7/10
	총점	14.6/40	21.3/40	35.9/80
2012	통일의 필요성	5.7/10	9.3/10	15.0/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7/10	0.2/10	0.9/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1/10	5.4/10	8.5/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1/ 5	3.8/ 5	6.9/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0/ 5	3.5/ 5	6.5/10
	총점	15.6/40	22.2/40	37.8/80
2013	통일의 필요성	5.5/10	10/10	15.5/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9/10	0.9/10	1.8/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4/10	3.6/10	7.0/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8/5	3.3/5	6.1/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0/5	3.2/5	6.2/10
	총점	15.6/40	21.0/40	36.6/80

연도	항목	남한 점수/만점	북한 점수/만점	합계
2014	통일의 필요성	5.6/10	9.8/10	15.4/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9/10	0.3/10	1.2/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2.5/10	5.2/10	7.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9/5	3.4/5	6.3/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1/5	3.6/5	6.7/10
	총점	15.0/40	22.3/40	37.3/80
2015	통일의 필요성	5.1/10	9.5/10	14.6/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7/10	0.7/10	1.4/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0/10	4.3/10	7.3/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6/5	3.2/5	5.8/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5/5	3.5/5	7.0/10
	총점	14.9/40	21.2/40	36.1/80
2016	통일의 필요성	5.3/10	9.8/10	15.1/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8/10	0.3/10	1.1/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4/10	4.7/10	8.1/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8/5	3.1/5	5.9/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5/5	3.2/5	6.7/10
	총점	15.8/40	21.1/40	36.9/80
2017	통일의 필요성	5.4/10	9.5/10	14.9/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8/10	0.3/10	1.1/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2.9/10	4.4/10	7.3/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7/5	3.3/5	6.0/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5/5	3.4/5	6.9/10
	총점	15.3/40	20.9/40	36.2/80
2018	통일의 필요성	6.0/10	9.3/10	15.3/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6/10	0.3/10	0.9/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4.4/10	5.3/10	9.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6/10	2.8/10	6.4/2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9/10	3.0/10	6.9/20
	총점	18.6/40	20.7/40	39.2/80

연도	항목	남한 점수/만점	북한 점수/만점	합계
2019	통일의 필요성	5.3/10	9.4/10	14.7/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6/10	0.2/10	0.8/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4.2/10	5.6/10	9.8/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4/10	3.4/10	6.8/2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9/10	2.9/10	6.8/20
	총점	17.4/40	21.5/40	38.9/80

* 2009, 2015, 2017, 2018년 점수 오기 수정

다. 사회문화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의 측정 지표는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5가지이다.
- 사회문화영역의 의식통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인과 배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각 변인에 해당하는 최종점수는 남북한 주민 각각의 질문 응답 비율을 다시 각 변인에 해당하는 배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점수로 환산하여 산출된다.

〈표 3-17〉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통합영역	변인	배점(남한)	배점(북한)
사회문화 의식통합 (총 90점)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 수준	5	5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10	1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10	1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0	1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 수준	10	10
	소계	45	45

1) 지표별 응답률과 상대점수

가)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 수준

■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상대방의 사회문화를 얼마나 접촉한 경험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를 상대점수(5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 1.3점, 북한주민 4.1점이다.

- 위 질문에 대해 남한주민은 26.2%, 북한주민은 82.5%가 상대방의 사회문화를 접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5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1.3점, 북한주민의 경우 4.1점이 부여된다.
- 남한주민의 경우 북한의 사회문화를 접해보았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5.6%p 정도 늘어난 반면, 북한주민의 경우 8.9%p 줄어든 수치를 보인다.

〈표 3-18〉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 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한[북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31.2	1.6
	북한주민	응답: “접해봄” 또는 “있다” 선택	64.7	3.3
2009	남한주민	”	46.2	2.3
	북한주민	”	56.5	2.8
2010	남한주민	”	37.4	1.9
	북한주민	”	77.3	3.9
2011	남한주민	”	31.5	1.6
	북한주민	”	90.0	4.5
2012	남한주민	”	32.3	1.6
	북한주민	”	88.0	4.4
2013	남한주민	”	27.3	1.4
	북한주민	”	85.9	4.3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4	남한주민	"	31.5	1.6
	북한주민		87.7	4.4
2015	남한주민	"	23.2	1.2
	북한주민		87.0	4.4
2016	남한주민	"	21.6	1.1
	북한주민		86.4	4.3
2017	남한주민	"	31.2	1.5
	북한주민		81.6	4.1
2018	남한주민	"	20.6	1.0
	북한주민		91.4	4.6
2019	남한주민	"	26.2	1.3
	북한주민		82.5	4.1

※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외식조사 2010-2019 DATA SET (KOSSDA 기탁) 참조.

나)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상대방(또는 상대방의 사회문화)을 접촉하였을 때 얼마나 친근감을 느꼈는가를 질문했다. 2019년의 경우 남한 주민은 29.8%, 북한주민은 87.1%가 상대방에 대해 친근감을 느꼈다고 응답해, 남북한 주민 간의 큰 격차를 보였다.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3.0점, 북한주민의 경우 8.7점이다.

○ 2009년 조사까지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각각에게 질문한 내용이 상이했던 점을 보완하여 2010년 조사 때부터는 질문 문항의 표현을 아래의 <표 3-19>와 같이 동일하게 조정했다.

■ 2019년 남북한 상호 수용의식의 격차는 57.3%p로 전년 61.3%p보다는 소폭 줄어든 양상을 보인다.

○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의식은 2012년에 4.0점에서

2013년 4.2점, 그리고 2014년 4.3점, 2015년 4.6점에서 2016년 2.9점, 2017년 2.6점으로 연속 하락했다. 2018년에 다시 2.8점으로 상승했다가 2019년도 3.0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출신 주민에 대한 수용의식은 2012년 9.0점, 2013년 8.7점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9.0점, 2015년 9.2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2016년에는 9.2점으로 전년수치와 동일했다. 이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 소폭 하락했다.
- 전반적으로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 수용의식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주민 수용의식에 비해 낮은 편으로 북한주민의 상대방 수용의식이 2~3배 높은 편이다.

〈표 3-19〉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응답: “친근하게 느껴진다” 선택	36.1	3.6
	북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한[북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응답: “친숙했음” 선택	72.1	7.2
2009	남한주민	”	36.3	3.6
	북한주민	”	52.1	5.2
2010	남한주민	”	42.4	4.2
	북한주민 (변경 후)	질문: 귀하는 남한출신 주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응답: “친근하게 느껴진다” 선택	91.9	9.2
2011	남한주민	2008년 문항 질문: 귀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응답: “친근하게 느껴진다” 선택	41.0	4.1
	북한주민	2010년 문항 질문: 귀하는 남한출신 주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응답: “친근하게 느껴진다” 선택	90.5	9.1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2	남한주민	"	39.5	4.0
	북한주민	"	89.7	9.0
2013	남한주민	"	42.0	4.2
	북한주민	"	87.1	8.7
2014	남한주민	"	43.2	4.3
	북한주민	"	90.6	9.0
2015	남한주민	"	45.9	4.6
	북한주민	"	91.7	9.2
2016	남한주민	"	29.0	2.9
	북한주민	"	92.4	9.2
2017	남한주민	"	25.8	2.6
	북한주민	"	89.7	9.0
2018	남한주민	"	27.5	2.8
	북한주민	"	88.8	8.9
2019	남한주민	"	29.8	3.0
	북한주민	"	87.1	8.7

* 2008~2018년 남북한주민 응답률 및 상대점수 오기 수정
 ※ 자료: <표 3-18>과 동일.

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 남북한 주민에게 각각 상대방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한 주민은 10.8%, 북한주민은 18.3%가 상대방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적대감 해소’ 정도가 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남한 주민의 상대점수는 8.8점, 북한 주민의 상대점수는 8.2점이다.

-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대감 해소”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인 점수는 적대감의 역응답률을 적용한다.
- 남한주민의 경우 역응답률 88.2%에 대한 상대점수는 8.8점, 북한주민의 역응답률 81.7%에 대한 상대점수는 8.2점이다.

■ 남한주민의 경우 북한주민에 대한 적대감이 늘어난 반면,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적대감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표 3-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	역응답률 (%)	상대 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한[북한]이 북한[남한]에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5.4	94.6	9.5
	북한주민	응답: “적대대상” 선택	20.9	79.1	7.9
2009	남한주민	”	9.1	90.9	9.1
	북한주민	”	11.4	88.6	8.9
2010	남한주민	”	12.0	88.0	8.8
	북한주민	”	13.3	86.7	8.7
2011	남한주민	”	16.7	83.3	8.3
	북한주민	”	15.7	84.3	8.4
2012	남한주민	”	10.9	89.1	8.9
	북한주민	”	12.9	87.1	8.7
2013	남한주민	”	16.4	83.6	8.4
	북한주민	”	20.1	79.9	8.0
2014	남한주민	”	13.9	86.1	8.6
	북한주민	”	16.4	84.6	8.5
2015	남한주민	”	16.5	83.5	8.4
	북한주민	”	22.5	77.5	7.8
2016	남한주민	”	14.8	85.2	8.5
	북한주민	”	23.5	76.5	7.7
2017	남한주민	”	16.2	83.8	8.4
	북한주민	”	28.7	71.3	7.1
2018	남한주민	”	10.3	89.7	9.0
	북한주민	”	30.2	69.8	7.0
2019	남한주민	”	10.8	88.2	8.8
	북한주민	”	18.3	81.7	8.2

* 2010~2018년 북한주민 응답률 및 상대점수 오기 수정

※ 자료: 〈표 3-18〉과 동일.

라)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 남북한 간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양식(언어, 생활풍습)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남한주민은 16.4% 북한주민은 11.45%가 상대방의 사회문화양식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해 상대점수(10점 만점)으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1.6점, 북한주민의 경우 1.1점이다.
- 앞서 살펴본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 정도를 감안할 때 여전히 서로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는 정도는 낮게 나타난다.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촉이 동질감의 확인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다.

〈표 3-21〉 남북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질문1 응답률 (%)	질문2 응답률 (%)	평균 응답률 (%)	상대 점수
2008	남한주민	문항1 질문: 언어사용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전혀 차이없음”과 “별로 차이없음” 선택	17.6	17.0	17.3	1.7
	북한주민	문항2 질문: 생활풍습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전혀 차이없음”과 “별로 차이없음” 선택	6.6	12.4	9.5	1.0
2009	남한주민	"	7.2	11.8	9.5	1.0
	북한주민		4.6	7.3	6.0	0.6
2010	남한주민	"	10.9	13.3	12.1	1.2
	북한주민		5.8	4.8	5.3	0.5
2011	남한주민	"	9.2	11.7	10.4	1.0
	북한주민		2.4	11.6	7.0	0.7
2012	남한주민	"	11.9	14.3	13.1	1.3
	북한주민		5.3	10.5	7.9	0.8

		질문과 응답	질문1 응답률 (%)	질문2 응답률 (%)	평균 응답률 (%)	상대 점수
2013	남한주민	"	14.7	14.2	14.45	1.5
	북한주민		4.7	8.1	6.4	0.6
2014	남한주민	"	16.4	16.7	16.55	1.7
	북한주민		6.2	13	9.6	1.0
2015	남한주민	"	15.8	17.9	16.85	1.7
	북한주민		6.5	10.8	8.65	0.9
2016	남한주민	"	18.7	22.2	20.45	2.0
	북한주민		9.0	3.8	6.4	0.6
2017	남한주민	"	17.5	22.9	20.2	2.0
	북한주민		13.8	13.7	13.8	1.4
2018	남한주민	"	16.3	23.6	19.8	2.0
	북한주민		6.8	14.6	10.7	1.1
2019	남한주민	"	13.6	19.2	16.4	1.6
	북한주민		6.4	16.5	11.45	1.1

* 2008~2018년 남북한 주민 응답률 및 상대점수 오기 수정

※ 자료: <표 3-18>과 동일.

마)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동일한 질문을 제시했다. 2018년에는 남한주민 18.1%, 북한주민 73.4%가 통일 이후에 빈부의 격차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남북한 주민 간의 큰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1.8점, 북한주민의 경우 7.3점으로 점수간 차이가 크다.

○ 2009년까지는 남한주민 의식조사와 북한주민(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간에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동일한 질문이 없어 그에 상응하는 각각의 질문을 추출하여 사용했다. 남한주민 의식조사의 경우에는 통일이 된 후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북한주민 의식조사의 경우에는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이 남한주민과 비교해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가를 질문했다.

- 2010년부터는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동일하게 질문했다.

■ 남한주민의 경우 통일 이후 사회평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1.8점을 나타냈으며, 북한주민의 경우 전년 대비 0.7점이 감소한 7.3점으로 나타났다.

■ 통일 이후 빈부격차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계속해서 북한주민에게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한주민은 훨씬 낮은 기대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양측의 온도차는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22〉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크게 개선”과 “약간 개선” 선택	10.0	1.0
	북한주민	질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북쪽 주민이 남쪽 주민과 비교해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출신지역과 상관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임” 선택	38.5	3.9
2009	남한주민	”	14.7	1.5
	북한주민	”	44.0	4.4
2010	남한주민	”	15.8	1.6
	북한주민 (변경 후)	질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크게 개선”과 “약간 개선” 선택	77.2	7.7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1	남한주민	2008년 문항 질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크게 개선”과 “약간 개선” 선택	12.5	1.3
	북한주민	2010년 문항 질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크게 개선”과 “약간 개선” 선택	77.9	7.8
2012	남한주민	”	12.2	1.2
	북한주민	”	86.3	8.6
2013	남한주민	”	14.8	1.5
	북한주민	”	85.3	8.5
2014	남한주민	”	13.6	1.4
	북한주민	”	79.4	8.0
2015	남한주민	”	19.8	2.0
	북한주민	”	86.2	8.6
2016	남한주민	”	12.3	1.2
	북한주민	”	80.3	8.0
2017	남한주민	”	16.8	1.7
	북한주민	”	86.2	8.6
2018	남한주민	”	11.6	1.2
	북한주민	”	80.1	8.0
2019	남한주민	”	18.1	1.8
	북한주민	”	73.4	7.3

* 2008~2018년 남북한 주민 응답률 및 상대점수 오기 수정

※ 자료: <표 3-18>과 동일.

2)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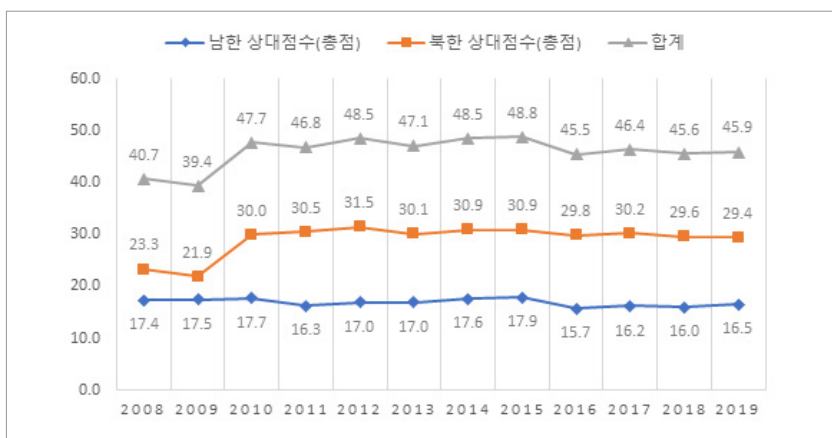
■ 2019년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는 90점 만점 중 45.9점으로 2018년 45.6점에서 다소 상승했다. 남한주민의 의식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0.5점

상승하였으며, 북한주민의 의식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0.2점 하락했다.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가 측정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부터 2019년 까지 12년간의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에서 보이는 부동성(不動性)은 남북한 주민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 2008년 40.7→2009년 39.4→2010년 47.7→2011년 46.8→2012년 48.5→2013년 47.1→2014년 48.3→2015년 48.8→2016년 45.5→2017년 46.4→2018년 45.6→2019년 45.9로 2010년 이후로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1〉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 (2008~2019)



■ 항목별 남북한 주민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남 1.3 vs. 북 4.1),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남 3.0 vs. 북 8.7),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남 1.8 vs. 북 7.3) 항목들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 간에 격차가 크다.

■ 반면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남 8.8 vs. 북 8.2)와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남 1.6 vs. 북 1.1) 항목들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 간에 격차가 크지 않다.

〈표 3-23〉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 종합

	항목	남한 상대점수 /배점	북한 상대점수 /배점	합계 /만점
2008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3.3/5	4.9/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3.6/10	7.2/10	10.8/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9.5/10	7.9/10	17.4/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7/10	1.0/10	2.7/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0/10	3.9/10	4.9/20
	총점	17.4/45	23.3/45	40.7/90
2009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2.3/5	2.8/5	5.1/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3.6/10	5.2/10	8.8/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9.1/10	8.9/10	18/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0/10	0.6/10	1.6/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5/10	4.4/10	5.9/20
	총점	17.5/45	21.9/45	39.4/90
2010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9/5	3.9/5	5.8/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2/10	9.2/10	13.4/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8/10	8.7/10	17.5/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2/10	0.5/10	1.6/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6/10	7.7/10	9.3/20
	총점	17.7/45	30.0/45	47.7/90
2011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4.5/5	6.1/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1/10	9.1/10	13.2/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3/10	8.4/10	16.7/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0/10	0.7/10	1.7/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3/10	7.8/10	9.1/20
	총점	16.3/45	30.5/45	46.8/90

	항목	남한 상대점수 /배점	북한 상대점수 /배점	합계 /만점
2012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4.4/5	6.0/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0/10	9.0/10	13.0/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9/10	8.7/10	17.6/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3/10	0.8/10	2.1/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2/10	8.6/10	9.8/20
	총점	17.0/45	31.5/45	48.5/90
2013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4/5	4.3/5	5.7/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2/10	8.7/10	12.9/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4/10	8.0/10	16.4/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5/10	0.6/10	2.1/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5/10	8.5/10	10.0/20
	총점	17.0/45	30.1/45	47.1/90
2014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4.4/5	6.0/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3/10	9.0/10	13.3/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6/10	8.5/10	17.1/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7/10	1.0/10	2.7/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4/10	8.0/10	9.4/20
	총점	17.6/45	30.9/45	48.5/90
2015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2/5	4.4/5	5.6/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6/10	9.2/10	13.8/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4/10	7.8/10	16.2/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7/10	0.9/10	2.6/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2.0/10	8.6/10	10.6/20
	총점	17.9/45	30.9/45	48.8/90

	항목	남한 상대점수 /배점	북한 상대점수 /배점	합계 /만점
2016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1/5	4.3/5	5.4/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2.9/10	9.2/10	12.1/1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5/10	7.7/10	16.2/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2.0/10	0.6/10	2.6/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2/10	8.0/10	9.3/20
	총점	15.7/45	29.8/45	45.5/90
2017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5/5	4.1/5	5.6/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2.6/10	9.0/10	11.6/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4/10	7.1/10	15.5/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2.0/10	1.4/10	3.4/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7/10	8.6/10	10.3/20
	총점	16.2/45	30.2/45	46.4/90
2018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0/5	4.6/5	5.6/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2.8/10	8.9/10	11.7/1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9.0/10	7.0/10	16/1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2.0/10	1.1/10	3.1/1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2/10	8.0/10	9.2/10
	총점	16/45	29.6/45	45.6/90
2019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3/5	4.1/5	5.4/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3.0/10	8.7/10	11.7/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8/10	8.2/10	17/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6/10	1.1/10	2.7/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8/10	7.3/10	9.1/20
	총점	16.5/45	29.4/45	45.9/90

3. 종합

- 2019년 남북 의식통합지수는 경제영역 45.0점, 정치영역 38.9점, 사회문화영역 45.9점을 합한 결과 총점 129.8점이다. 이 수치는 2018년의 126.0점에서 3.8점 상승한 것이다. 이 변화는 경제영역과 사회문화영역이 각각 3.8점과 0.3점 상승하고 정치영역은 0.3점 하락한 결과이다.
- 연도별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123.5점 → 2009년 119.5점 → 2010년 124.6점 → 2011년 124.2점 → 2012년 128.8점 → 2013년 124.5점 → 2014년 129.2점 → 2015년 127.5점 → 2016년 121.7점 → 2017년 120.9점 → 2018년 126점 → 2019년 129.8점으로 짧은 주기의 등락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 수준이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 120점대를 유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큰 폭의 변화 없이 일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영역별로 연도별 추이를 요약해 보면, 먼저 경제영역 의식통합의 경우 2008년부터 40점대를 유지하다가 2016, 2017년 30점대로 떨어졌고, 2018년 다시 40점대를 회복하여 2019년에는 45점까지 상승했다. 2019년 남한주민의 경우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등 모든 항목에서 긍정응답이 증가하면서 의식통합 점수가 상승하였다. 북한주민의 경우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와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가 상승하여 전체 의식통합 점수 상승을 이끌었으나,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항목은 소폭 하락하였다.
- 정치영역 의식통합의 경우 2008년 40.9점이었으나, 2009년부터 30점대를 유지하며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9년 통일의 필요성, 정치제도 동질성,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가 소폭 하락하였고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항목에서는 상승을 기록하였다. 정

지역역 합계 의식통합지수는 지난해 대비 0.3점 하락하였다.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는 2008년 40.7점, 2009년 39.4점에서 2010년 47.7점으로 대폭 상승한 후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9년 조사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항목에서 1.0점 상승하여 모든 항목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고 그 외 항목에서는 소폭 하락 혹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3-24〉 남북의식통합지수 연도별 변화

영역	변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영역 (80)	남한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7	7.8	7.9	7.8	7.0	8.2	8.5	7.8	7.6	8.4	9.3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9	6.0	5.6	5.9	5.4	5.5	5.8	4.7	5.3	6.3	6.6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1.9	2.5	2.2	2.4	2.4	3.3	3.3	3.4	3.7	4.2	4.6
	북한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7.9	6.3	6.2	7.0	7.0	7.9	7.3	6.9	5.9	7.1	6.9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10.9	10.1	10.8	10.8	10.2	10.9	10.4	9.5	9.1	8.6	9.8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0	7.9	8.8	8.6	8.5	7.6	7.3	7.0	6.7	6.6	7.8
	소계		41.3	40.6	41.5	42.5	40.8	43.4	42.6	39.3	38.3	41.2	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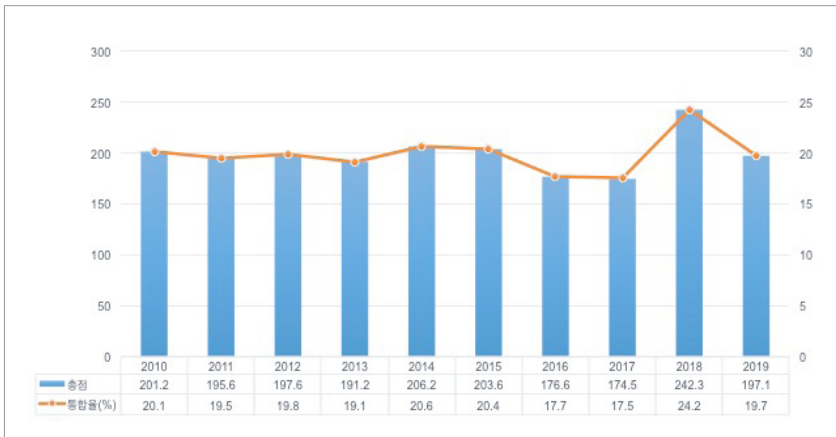
영역	변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정치영역 (80)	남북공동 예안과목	통일의 필요성	15.3	15.5	14.8	15.0	15.5	15.4	14.6	15.1	14.9	15.3	14.7
		정치제도 동질성	0.7	1.3	1.0	0.9	1.8	1.2	1.4	1.1	1.1	0.9	0.8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9.5	6.9	6.7	8.5	7.0	7.7	7.3	8.1	7.3	9.7	9.8
		상대방에 대한 공정인식	7.2	6.2	6.7	6.9	6.1	6.3	5.8	5.9	6.1	6.4	6.8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6.1	6.4	6.7	6.5	6.2	6.7	7.0	6.7	6.9	6.9	6.8
	소계	38.8	36.3	35.9	37.8	36.6	37.3	36.1	36.9	36.2	39.2	38.9	
사회문화영역 (90)	남북공동 예안과목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5.1	5.8	6.1	6.0	5.7	6.0	5.6	5.4	5.6	5.6	5.4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8.8	13.4	13.2	13.0	12.9	13.3	13.8	12.1	11.6	11.7	11.7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18.0	17.5	16.7	17.6	16.4	17.1	16.2	16.2	15.5	16	17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6	1.6	1.7	2.1	2.1	2.7	2.6	2.6	3.4	3.1	2.7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5.9	9.3	9.1	9.8	10.0	9.4	10.6	9.3	10.3	9.2	9.1
	소계	39.4	47.7	46.8	48.5	47.1	48.5	48.8	45.5	46.4	45.6	45.9	
합계	만점 250점	119.5	124.6	124.2	128.8	124.5	129.2	127.5	121.7	120.9	126.0	129.8	

〈그림 3-2〉 의식통합지수 2010~2019년 변화 추이



3장. 남북통합지수 : 2010~2019

〈그림 4-1〉 2010~2019년 남북통합지수 추이



■ 2019년 남북통합지수는 1,000점 만점에 197.1점이다. 남북한의 통합 수준을 백분율로 표시하면 19.7%이다.

○ 2019년 남북통합지수는 2018년 242.3점에 비해 45.2점이 하락하였다. 남북관계가 급격한 반전을 맞이하였던 2018년과 달리 협상이 진전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통합률 역시 24.2%에서 19.7%로 4.5% 포인트 하락하였다. 전년 대비 의식통합지수는 3.8점 상승한 반면 구조통합지수는 59점 하락하여 종합지수도 크게 하락했다.

○ 제도적 통합지수는 270점 만점 중 35.5점으로 전년 대비 0.8점 상승한 반면, 관계적 통합지수 480점 만점 중 21.8점으로 전년 대비 59.8점 하락하여 전체적인 구조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49점이 하락했다. 또한 의식통합지수는 250점 만점 중 129.8점으로 전년 126.0점 대비 3.8점 상승하였다.

■ 영역별로는 경제영역에서 전년 대비 통합지수가 상승한 반면 정치, 사회 문화 영역에서는 하락하였다.

- 경제영역 통합지수는 55.9점으로 전년 대비 2.6점 상승하였고, 정치 영역 통합지수는 56.9점, 사회문화영역 통합지수는 84.3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9점, 16.9점 하락하였다.
- 관계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총 59.8점 하락한 21.8점을 기록하였다. 경제영역, 정치영역, 사회문화영역 각각 1.4점, 30.8점, 17.6점 하락하였다. 특히 정치 영역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 제도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하였다. 경제영역은 0.2점, 정치영역은 0.2점, 사회문화영역은 0.4점 상승하여 총 0.8점 상승한 35.5점을 기록하였다.
- 의식통합지수는 정치영역이 전년 대비 0.3점 감소했으나 경제영역에서 3.8점, 사회문화영역에서 0.3점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3.8점 상승하였다.

〈표 4-1〉 2010~2019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연도	구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2010	제도적 통합	7.7/90	8.6	6.8/90	7.6	13.9/90	15.4	28.4/270	10.5
	관계적 통합	20.7/160	12.9	4.8/160	3	22.7/160	14.2	48.2/480	10
	의식 통합	40.6/80	50.8	36.3/80	45.4	47.7/90	53.0	124.6/250	49.8
	합계	69.0/330	20.9	47.9/330	14.5	84.3/340	24.8	201.2/1000	20.1
2011	제도적 통합	7.7/90	8.6	6.8/90	7.6	14.0/90	15.6	28.5/270	10.6
	관계적 통합	17.4/160	10.9	6.4/160	4.0	19.1/160	11.9	42.9/480	8.9
	의식 통합	41.5/80	51.9	35.9/80	44.3	46.8/90	52	124.2/250	49.7
	합계	66.6/330	20.2	49.1/330	14.7	79.9/340	23.5	195.6/1000	19.5

연도	구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2012	제도적 통합	6.6/90	7.3	6.5/90	7.2	14.0/90	15.6	27.1/270	10.0
	관계적 통합	18.2/160	11.4	4.9/160	3.1	18.6/160	11.6	41.7/480	8.7
	의식 통합	42.5/80	53.1	37.8/80	47.3	48.5/90	36.2	128.8/250	51.5
	합계	67.3/330	20.4	49.2/330	14.9	81.1/340	23.8	197.6/1000	19.8
2013	제도적 통합	7.2/90	8.0	6.4/90	7.1	14.8/90	16.4	28.4/270	10.5
	관계적 통합	14.8/160	9.3	3.6/160	2.3	19.9/160	12.4	38.3/480	8.0
	의식 통합	40.8/80	51.0	36.6/80	45.8	47.1/90	52.3	124.5/250	49.8
	합계	62.8/330	19.0	46.6/330	14.1	81.8/340	24.1	191.2/1000	19.1
2014	제도적 통합	7.5/90	8.3	6.4/90	7.1	16.6/90	18.4	30.5/270	11.3
	관계적 통합	18.7/160	11.8	6.8/160	4.3	21.0/160	13.1	46.5/480	9.7
	의식 통합	43.4/80	54.3	37.3/80	46.6	48.5/90	53.9	129.2/250	51.7
	합계	69.6/330	21.1	50.5/330	15.3	86.1/340	25.3	206.2/1000	20.6
2015	제도적 통합	6.8/90	7.6	6.0/90	6.6	15.5/90	17.2	28.3/270	11.3
	관계적 통합	20.1/160	11.8	7.3/160	4.6	20.4/160	12.8	47.8/480	10.0
	의식 통합	42.6/80	53.3	36.1/80	45.1	48.8/90	54.2	127.5/250	51.0
	합계	69.5/330	21.1	49.4/330	15.0	84.7/340	24.9	203.6/1000	20.4
2016	제도적 통합	6.8/90	7.6	5.3/90	5.9	15.6/90	17.3	27.7/270	10.3
	관계적 통합	5.3/160	3.3	3.9/160	2.4	18.0/160	11.2	27.2/480	5.7
	의식 통합	39.3/80	49.1	36.9/80	46.1	45.5/90	50.6	121.7/250	48.7
	합계	51.4/330	15.6%	46.1/330	14.0	79.1/340	23.3	176.6/1000	17.7

연도	구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2017	제도적 통합	7.6/90	8.4	6.3/90	7.0	16.0/90	17.8	29.9/270	11.1
	관계적 통합	3.2/160	2.0	2.5/160	1.6	18.0/160	11.3	23.7/480	4.9
	의식 통합	38.3/80	47.9	36.2/80	45.3	46.4/90	51.6	120.9/250	48.4
	합계	49.1/330	14.9	45.0/330	13.6	80.4/340	23.6	174.5/1000	17.5
2018	제도적 통합	7.6/90	8.4	8.5/90	9.4	18.6/90	20.7	34.7/270	12.9
	관계적 통합	4.5/160	2.8	40.1/160	25.1	37.0/160	23.1	81.6/480	17.0
	의식 통합	41.2/80	51.5	39.2/80	49.0	45.6/90	50.7	126.0/250	50.4
	합계	53.3/330	16.1	87.8/330	26.6	101.2/340	29.8	242.3/1000	24.2
2019	제도적 통합	7.8/90	8.7	8.7/90	9.7	19.0/90	21.1	35.5/270	13.1
	관계적 통합	3.1/160	1.9	9.3/160	5.8	19.4/160	12.1	31.8/480	6.6
	의식 통합	45.0/80	56.3	38.9/80	48.6	45.9/90	51.0	129.8/250	51.9
	합계	55.9/330	16.9	56.9/330	17.2	84.3/340	24.8	197.1/1000	19.7

■ 2010~2019년의 남북통합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구조통합지수와 의식통합지수를 합한 종합지수는 2015년까지 200점 안팎에서 등락하다가 2016~2017년에 170점대로 크게 하락한 뒤 2018년 240점대로 크게 상승했으나, 2019년 187.1점으로 다시 하락했다.

○ 10년간 종합지수는 2010년 201.2점 → 2011년 195.6점 → 2012년 197.6점 → 2013년 191.2점 → 2014년 206.2점 → 2015년 203.6점 → 2016년 176.6점 → 2017년 174.5점 → 2018년 242.3점 → 2019년 197.1점으로 나타났다.

○ 제도적 통합과 관계적 통합으로 구성되는 구조통합지수는 2011년 71.4점 → 2012년 68.8점 → 2013년 66.7점 → 2014년 77점 → 2015

년 76.1점 → 2016년 54.9점 → 2017년 53.6점 → 2018년 116.3점 → 2019년 67.3점으로 변화했다. 2010년대 들어 계속 60~70점대를 유지하다가 2016~2017년에 50점대로 크게 하락했고 2018년 116.3점으로 두 배 넘게 상승하였으나, 2019년 다시 50점대로 떨어졌다. 제도적 통합수준은 2010~2017년 8년간 27~30점 범위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2018년 34.7점으로 상승했고, 올해 35.5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계적 통합 수준은 꾸준히 감소하다가 핵 위기가 본격화된 2016년과 2017년에는 눈에 띄게 하락하였으나, 남북관계의 반전으로 2018년에는 81.6점으로 급등했고, 올해 남북관계 교착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 10년간의 의식통합지수는 2010년 124.6점 → 2011년 124.2점 → 2012년 128.8점 → 2013년 124.5점 → 2014년 129.2점 → 2015년 127.5점 → 2016년 121.7점 → 2017년 120.9점 → 2018년 126점 → 2019년 129.8점으로 120점대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다 2018, 2019년의 의식통합지수는 한반도 정세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상승하며 전년 대비 5.1점, 3.8점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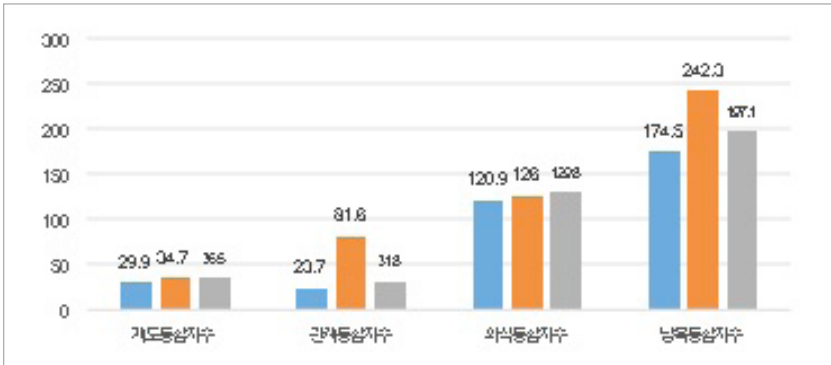
■ 2010년~2019년의 남북한의 통합률을 보면 2015년까지는 20% 내외에서 소폭 변동하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크게 하락, 2018년에는 크게 반등했고, 2019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10년간 남북 통합률은 2010년 20.1% → 2011년 19.5% → 2012년 19.8% → 2013년 19.1% → 2014년 20.6% → 2015년 20.4% → 2016년 17.7% → 2017년 17.5% → 2018년 24.2% → 2019년 19.7%를 나타냈다.

- 2019년 영역별 통합률의 변동을 살펴보면, 경제 영역은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으며 정치 영역과 사회문화영역은 각각 9.4%, 5.0% 감소하였다.
- 영역별 통합률은 2008~2017년 동안 사회문화>경제>정치 영역 순서로 높게 나타났지만 2018년 정치영역 통합률의 가파른 증가로 정치영역이 경제영역보다 높은 통합률을 기록했고, 2019년에도 사회문화>정

치>경제 영역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구조적 통합(제도+관계 통합)의 경우 사회문화(15.4%)>정치(7.2%)>경제(4.4%) 순서로 통합률의 차이를 나타내며, 의식통합의 경우 경제(56.3%)>사회문화(51.0%)>정치(48.6%)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4-2〉 최근 3년간의 제도, 관계, 의식, 종합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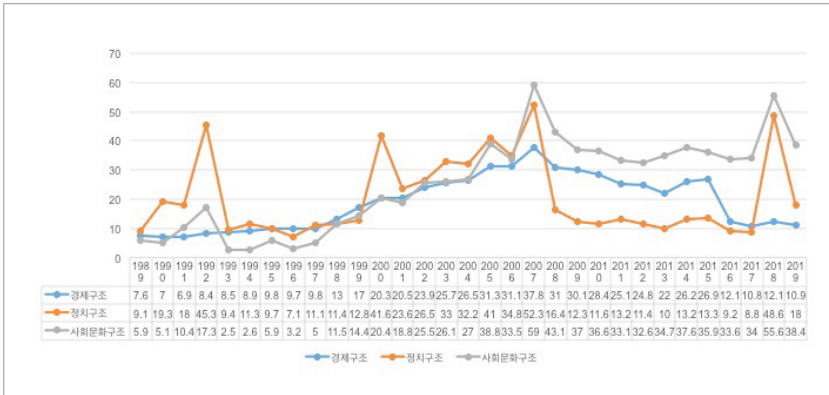
- 남북한 통합의 단계를 구조통합지수를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경제와 정치영역의 통합단계는 1단계이고, 사회문화영역은 2단계를 기록하였다.
 - 경제영역의 경우, 2010~2015년에는 2단계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1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 정치영역의 경우, 2010~2015년 동안 2013년 0단계를 제외하면 모두 1단계를 기록했고, 2016~2017년 0단계, 2018년 3단계를 기록했다가 2019년 다시 1단계로 돌아왔다.
 - 사회문화영역은 2010년부터 줄곧 2단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 3단계로 상승했고, 2019년 다시 2단계를 기록하였다.

〈표 4-2〉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시계열적 추이와 단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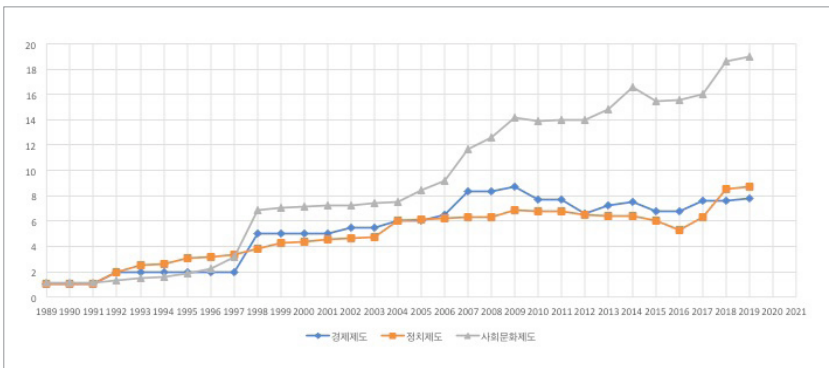
	경제(250)				정치(250)				사회·문화(250)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1989	1.0	6.6	7.6	0	1.0	8.1	9.1	0	1.1	4.8	5.9	0
1990	1.0	6.0	7.0	0	1.0	18.3	19.3	1	1.1	4.0	5.1	0
1991	1.0	5.9	6.9	0	1.0	17.0	18.0	1	1.1	9.3	10.4	0
1992	2.0	6.4	8.4	0	2.0	43.3	45.3	3	1.3	16.0	17.3	1
1993	2.0	6.5	8.5	0	2.5	6.9	9.4	0	1.5	1.0	2.5	0
1994	2.0	6.9	8.9	0	2.6	8.7	11.3	1	1.6	1.0	2.6	0
1995	2.0	7.8	9.8	0	3.1	6.6	9.7	0	1.9	4.0	5.9	0
1996	2.0	7.7	9.7	0	3.2	3.9	7.1	0	2.2	1.0	3.2	0
1997	2.0	7.8	9.8	0	3.3	7.8	11.1	1	3.2	1.8	5.0	0
1998	5.0	8.0	13.0	1	3.8	7.6	11.4	1	6.9	4.6	11.5	1
1999	5.0	12.0	17.0	1	4.3	8.5	12.8	1	7.0	7.4	14.4	1
2000	5.0	15.3	20.3	1	4.4	37.2	41.6	3	7.1	13.3	20.4	1
2001	5.0	15.5	20.5	1	4.5	19.1	23.6	2	7.2	11.6	18.8	1
2002	5.5	18.4	23.9	2	4.6	21.9	26.5	2	7.2	18.3	25.5	2
2003	5.5	20.2	25.7	2	4.7	28.3	33.0	2	7.4	18.7	26.1	2
2004	6.0	20.5	26.5	2	6.0	26.2	32.2	2	7.5	19.5	27.0	2
2005	6.0	25.3	31.3	3	6.1	34.9	41.0	3	8.4	30.4	38.8	2
2006	6.5	24.6	31.1	3	6.2	28.6	34.8	2	9.2	24.3	33.5	2
2007	8.3	29.5	37.8	3	6.3	46.0	52.3	3	11.7	47.3	59.0	3
2008	8.3	22.7	31.0	3	6.3	10.1	16.4	1	12.6	30.5	43.1	3
2009	8.7	21.4	30.1	2	6.9	5.4	12.3	1	14.2	22.8	37.0	2
2010	7.7	20.7	28.4	2	6.8	4.8	11.6	1	13.9	22.7	36.6	2
2011	7.7	17.4	25.1	2	6.8	6.4	13.2	1	14.0	19.1	33.1	2
2012	6.6	18.2	24.8	2	6.5	4.9	11.4	1	14.0	18.6	32.6	2
2013	7.2	14.8	22.0	2	6.4	3.6	10.0	0	14.8	19.9	34.7	2
2014	7.5	18.7	26.2	2	6.4	6.8	13.2	1	16.6	21.0	37.6	2
2015	6.8	20.1	26.9	2	6.0	7.3	13.3	1	15.5	20.4	35.9	2

	경제(250)				정치(250)				사회·문화(250)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2016	6.8	5.3	12.1	1	5.3	3.9	9.2	0	15.6	18.0	33.6	2
2017	7.6	3.2	10.8	1	6.3	2.5	8.8	0	16.0	18.0	34.0	2
2018	7.6	4.5	12.1	1	8.5	40.1	48.6	3	18.6	37.0	55.6	3
2019	7.8	3.1	10.9	1	8.7	9.3	18.0	1	19.0	19.4	38.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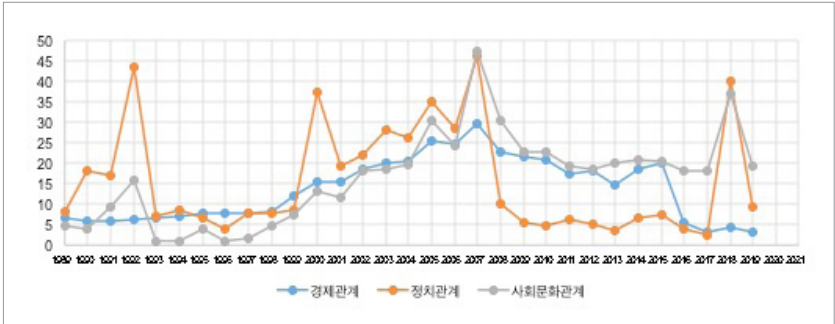
〈그림 4-3〉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그림 4-4〉 영역별 제도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그림 4-5〉 영역별 관계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53

2020 남북통합지수

발행일	2021. 2. 28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임경훈
책임연구원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공동연구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교수) 이경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보조연구원	조용신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김유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프로젝트 연구원) 최현정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
등록	119-82-11113(2020.8.3)
주소	15011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화로 173, 교육협력동 9층 906호
전화	031-5176-2332~3
팩스	031-624-4751
홈페이지	https://ipus.snu.ac.kr
디자인	희망커뮤니케이션즈 (02-2268-1968)

ISBN 979-11-966513-5-0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